II

문헌조사 자료

2.1 철원군
2.2 포천시
2.3 연천군

2.3 연천군

2.3.1 연천의 역사적 배경

연천은 한반도 첫 인류가 살았고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도음지의 천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뱃길로, 일제강점기에는 기찻길로 번화했던 고장이기도 하다. 전곡리 선사유적, 고구려의 당포성와 호로고루, 신라의 초성리산성과 조선의 보개산 성령산성, 연천역 급수탑 등 연천의 수많은 문화재와 유적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연천 지역은 예부터 연천, 마전, 삭녕으로 불리다가 1914년에 '연천'으로 통일이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합쳐져서 오늘의 연천군을 이룬다. 마전과 연천은 임진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었으며, 그 위쪽으로 지금은 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이 된 삭녕이다. 이 세 지역은 북으로는 개성과 평양, 남으로는 한양, 서로는 인천, 동으로는 금강산을 잇는 중간지대였다. 지형상 남북을 나누는 추가령지구대가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추가령지구대는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좁고 길며 낮은 골짜기로, 원산 쪽에서 한강 하류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제공하는데, 예로부터 북쪽의 문화가 남하하는 통로이자 한강 하류와 서해 도서지역의 문화가 임진강을 역류하여 올라오는 지역이기도 했다. 과거 임진강 뱃길이나 경원선 철도도 이 추가령지구대를 따라 길을 냈다.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발달했던 뱃길이 쇠퇴하고 경원선이 단절되면서 연천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해방 이후 38선이 그어지고 일부 지역은 북측에 속했다가 한국전쟁으로 다시 남측에 속하는 파란을 겪었다. 오늘은 인민군과 내일은 국군과 대치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고향과 가족을 잃은 사람도 생겨났다. 전쟁 후에는 갈 곳을 잃은 피난민 등이 정착하기도 했다.[1] 이처럼 굴곡진 역사적 삶의 현장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1) 연천

연천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탄강과 임진강을 따라서 분포하는 이 지역의 구석기유적은 빠른 시기의 것들로서 크게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전기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며 평양지역의 고인류 화석 유적들과 함께 한반도 인류서식의 초기 형상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연천군은 추가령지구대가 지나는 곳으로, 추가령지구대는 동북 지방인 원산 쪽에서 경기도의 한강 하류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제공하고 또한 임진강이 황해도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결국 서북한 지역과 동북한 지역이 남하하면서 합쳐지는 곳이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문화복합형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지역의 문화가 남하하는 통로에 해당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강유역의 선사문화와 연결되고 있으며 또 다른 흐름으로서는 한강 하류와 서해 도서지역의 문화가 임진강을 역류하여 올라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

1) 연천군 편,『타임머신을 탄 연천이야기』, 연천군청, 2014. 6-7쪽.

2) 이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연천군지』상(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7~419쪽)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연천군은 선사시대 전반을 통하여 주민과 문화의 유입이 많았던 것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구석기 유적과 함께 많은 선사유적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한강 중하류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을 살펴보면, 임진강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에서 많은 신석기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이미 드러난 지석묘 말고도 파주, 부천, 광명 그리고 북쪽으로 연결되는 황해도 유적의 분포를 보건데 많은 유적이 부존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천의 선사문화에 있어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는 이제까지의 드러난 증거는 그 서막에 해당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앞으로 발굴에 따라서 획기적인 자료도 많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시대

1978년 전곡리 한탄강변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이 확인된 이래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지점들이 발굴되었다. 한탄강과 임진강변에 분포하는 이 유적들은 한국 구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석기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세계 구석기 문화 가설을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증거가 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석기 공작들이다.

연천의 구석기 유적은 한국의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적들의 수효는 연천군 내에서만도 전곡리, 남계리, 동이리, 신답리, 고문리, 원당리, 고량포리 등의 지점이 있지만 한탄강 변의 점토성 퇴적층이 있는 곳에는 거의 구석기 유문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전곡리 유적은 1979년 이래 10차의 발굴이 있었고, 그 외에도 남계리가 2차, 원당리 유적이 이미 3차에 걸쳐 발굴한 바 있다. 이 유적들은 층위나 석기 유물의 성격상 공통성이 보이는데 모두 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철원 고석정 유적의 최상층에서 후기와 말기에 속하는 석기들이 발굴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앞으로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후기 구석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연천의 구석기 유물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위로는 통현리와 부곡리로부터 아래로는 고능리와 남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한탄강의 줄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과거 인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부터 연천군의 한탄강 유역이 인류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신석기 시대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은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속하며 한강과 연결되어 한반도의 중부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중부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암사동과 미사리로 대표되는 전기적인 특성을 가진 토기문화가 있고 또한 해안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친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후기 신석기 문화가 있다. 그래서 한강 유역과 연결되는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은 초기부터 신석기 문화가 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다.

다만, 한강과 같이 큰 강이 아니어서 상류로 가면서 그 유적 존재의 가능성이 적어지기는 하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신석기 토기들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조사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연천군에서 신석기 토기가 채집된 곳은 많지는 않다. 삼거리 유적, 학곡리 유적, 우정리 유적, 삼곶리 유적등지에서 신석기 토기들이 발견 되었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아

직 없다. 이 유적들의 공통적인 입지 조건은 어느 정도 강수량을 유지하는 지역의 강안 충적대지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천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비교적 문양이 굵은 편에 속하고 정교한 시문이 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거친 시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천지역의 신석기시대 주민들도 한강유역이나 서해안 지역의 다른 유적들 주민과 마찬가지로 수렵과 어로 그리고 채집이 생계경재의 기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입지가 거의 모두 강안 충적대지상이라는 점에서 어로활동이 중요한 생계행위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 모래땅에 원형의 수혈주거지를 짓고 살았을 것이며 토기는 중서해안의 전형적인 형식인 침저 내지 원저의 포탄형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을 것이고 채집을 기본으로 한 어로와 수렵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을 것이다.

3) 시대

연천의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석묘들이다. 그리고 강안의 충적대지 또는 낮은 언덕 등지에서 무문토기나 또는 '마재석기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유적들의 분포를 본다면 연천의 전 지역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천군 지역은 황해도 지방에서 남하하는 임진강을 두고 있어 문화나 주민 남하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한강 유역의 청동기 문화와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양상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 문화의 양상이 밝혀진다면 한강유역 청동기문화의 몇 가지 의문점을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천에서 발견되는 지석묘들은 현무암과 응회암을 가지고 만든 북방식-탁자식이다. 지석묘는 학곡리, 통현리, 차탄리, 원당리, 은대리, 전곡리, 양원리 등지에서 발견된다.

청동기시대사람들의 경제나 사회생활은 아직도 바로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드러난 자료와 다른 지역의 경우를 종합하면 지석묘의 입지와 유물채집지점의 상태를 통해 당시의 주민들은 분명 논경위주의 경제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두 가지의 다른 입지의 유적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강에 연결되는 충적대지에서 바로 발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평야를 낀 낮은 구릉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다.

(2) ~고려시대의 연천

1) 삼국시대

연천은 한강 이북의 지역이자 한반도의 정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연천 지역의 장악과 삼국의 전성기가 맞물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가장 먼저 연천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던 국가는 백제였다. 고목성으로 불린 연천은 백제의 북쪽 방파제와 같은 구실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3] 이러한 점은 백제의 유적

3) 백제에서 연천을 고목성으로 불렀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할 때, 고목성은 현재의 경기 북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온조왕 22년 조의 "8월에 석두와 고목의 2성을 축조했다."는 기사와 다루왕 4년 조에 "8월에 고목성의 곤우가 말갈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200여명을 목 베었다"고 한 기사, 무녕왕 3년 조에 "9월에 말갈이 마수책을 태우고 고목성으로 진격하므로 왕이 군사 5000을 보내어 이를 격파했다"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마수책은 낙랑 세력이 남쪽의 백제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현재의 포천 일대로 추정되므로 그 인근 지역인 고목성은 현재의 연천일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고구려가 남하하기 이전, 백제의

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연천 지역을 점유하던 당시 백제는 방어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울이나 나루 근처에는 여러 형태의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가령 당포성(미산면 마전리)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삼화리→어우지리→적암리로 남하하는 세력과 전곡리→고릉리→양원리를 거쳐 어유지리 방향 또는 268번 지방도로 축선인 간파리 방향으로 남하하는 북쪽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축조된 수철성(전곡읍 양원리)이 그 한 예로 보인다.

그리고 전곡을 거쳐 지금의 이르는 3번 국도의 중심 축선상 가장 좁은 길목을 지켰던 초성리산성(청산면 초성 1리)은 대전리산성(청산면 대전 1리)과 연계해 볼 때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탄강과 초성리에서 내려오는 신천이 합류하는 부근에 소재한 대전리산성에서는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 입지적 조건이 북쪽을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백제계 회청색 경질 토기편이 수습될 뿐 아니라 '백제장대봉(將臺峰)'으로 불리는 우정리산성(미산면 우정리)은 물론이고, 당포성도 백제가 처음 축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포성은 높지는 않으나 절벽을 이용하게 도강을 방어하는 관방시설로서, 임진강유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성이다. 이렇듯이 백제는 강의 연안에는 일반적으로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후방에는 군사 거점에 해당하는 보다 큰 규모의 산성을 축조하여 상호 지원 가능한 방어 체제를 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연천을 장악한 국가는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부터 연천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하여 결국 4세기 말에 연천 지역을 장악한다. 이후 연천은 예전부터 불리었던 공목달이라는 지명을 이용하여 '공목달현'이라는 현 급 행정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혹은 이곳을 '웅섬산'이라고도 불렀다. 공목달과 웅섬산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의 어원이 '크다' '신성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감'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또 '달'은 '산'의 뜻으로 풀이 되고 있다. 여기서 '곰목달'의 '곰달'도 여기서 기원한 것이기에 '곰'과 관련된 다른 이름인 '웅섬산'으로도 불려지게 된 것이다. 웅섬산은 연천읍 차탄리와 군남면 삼거리 그리고 선곡리의 경계에 솟아 있는 해발 327.8m 의 군자산이 된다.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임진강、한탄강의 취약지구에 성을 축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관방유적은 호로고루(瓠蘆古壘)이다.(장남면 원당 3리) 이 성의 형태는 절벽을 이용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서, 그 둘레는 401m에 지나지 않는다. 호로고루가 소재한 구간을 지나는 임진강을 호로하 혹은 호로탄 등으로 부르고 있다. 호로고루는 신라의 김유신이 당군에 군량을 운송할 때 통과했던 곳일 정도로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또 고구려 기마 군단이 평양 지역에서 남하할 때 장단까지 와서 임진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호로하 쪽을 통과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호로고루는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은대리성과 당포성 역시 이 시기 고구려가 축조한 성들이다. 호로고루、은대리성、당포성은 흔히 연천의 고구려 3대 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고구려의 성들은 돌로 쌓아 만든 성이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된 15~20m 높이의 절벽이 자연 성벽이 되고, 주로 동쪽으로 높고 견고한 벽을 돌로 쌓았다. 이로써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고구려 최남단의 방어선이 되었다.[4] 동시에

북방 영토가 경기북부에서 황해도 남부 일대까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정은 설득력이 매우 높다 둘째, 발음의 유사성이다. 연천 지역은 예로부터 공목달이라 불렸다. 4세기 이후 한강 이북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고구려가 연천 지역을 공목달현으로 부른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공목달과 고목은 고대의 언어 환경 상 발음의 유사성 면에서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므로, 백제의 고목성은 곧 공목달, 즉 현재의 연천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타임머신을 탄 연천, 앞의 책, 38쪽.

상황에 따라서는 고구려 남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5)]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한강 유역으로 진출했으나 결론적으로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의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은 진흥왕 대에 이르러 현실화되었다.[6)] 당시 신라는 연천 지역의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하는 입장이었다. 연천 일원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최일선이었던 만큼 새로운 성을 축조하거나 대대적인 증축과 보축이 단행되었다. 옥녀봉산성(군남면 옥계 2리)은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신라에 의해 축조된 성으로, 초성리 산성은 보축된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천을 장악한 신라는 이후 연천을 교두보로 삼아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통일 직후 신라는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와 대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당 전쟁이다. 막대한 군력을 바탕으로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깬 당나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한강 이북 지역은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격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대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다. 정확하게 표기된 기록이 없어서 그 위치에 대해 여러 이설이 존재했던 매초성은 꾸준한 연구 결과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한 대전리 산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7)] 이처럼 연천은 삼국시대 국가의 국운과도 연관될 만큼, 중요한 국방의 각축장이 되었다. 때문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연천을 종전의 공목달현에서 공성현으로 개칭하고, 철성군(강원도 철원)의 산하로 배속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2) 연천

삼국시대가 국방의 요충지였다면 고려 시대의 연천은 개성의 위성 도시로써 개성과 한강 유역을 잇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천 지역은 고려 초기 995년(성종14)에 본격적으로 관리가 파견되면서 제도적인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연천은 단순히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이는 고려 후기 수도의 천도 후보지로 연천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다. 고려 말 천도 후보지로서 연천이 거론 된 것은, 이곳이 기울어 가는 고려의 깃을 회복시킬 만한 힘을 가진 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 연천의 위상은 경순왕릉과 숭의전을 통해 부각된다. 경순왕릉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무덤이다. 역사적으로 신라의 항복은 고려의 건국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경순왕은 항복 이후 고려의 조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려 왕실의 감시가 미치는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결국 죽어서도 고향 경주로 가지 못하고, 이곳 연천에 묻혔다. 역으로 보면 연천은 고려 건국 초기, 토족 세력의 힘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고려 왕실의 힘이 직접적으로 미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

---

5) 최근의 논의에 따르면 은대리성의 경우 장수왕의 한성 공략과 관련하여 한성에 진출한 고구려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서영일, 「연천 은대리성 축조공법과 성격 고찰」, 『문화사학』 3집, 2009, 39-56쪽.

6) 진흥왕은 553년에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탈취한 후 군사적 거점을 한강 이남에서 이북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이 시기 신라의 북진선은 한강 하류 유역의 파주에서 북한산 일대의 전역과 양주를 거쳐 동북쪽으로 추가령구조곡 이남, 그리고 철령을 넘어 안변에서 황초령과 마운령 이남의 함흥 일대에 이르게 된다. 장창은, 「진흥왕대 신라의 북방진출과 대고구려영역 향방」, 『신라사학보』 24, 2012, 5-50쪽.

7) 이에 대해서는 연천군 주최 학술대회,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대전리 산성 매초성인가』, 2013 /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 산성 유적 발표회」, 『중부고고학회』, 2014, 77-87쪽. 참조.

다.

연천 지역이 고려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특히 숭의전, 더 정확히는 숭의전이 앙암사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숭의전은 고려 태조 왕건을 필두고 고려의 여덟 왕과 조려조 16공신을 제사지내는 사당이다.[8] 물론 숭의전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며, 그 위치가 당시 매우 궁벽했던 마전(麻田), 즉 현재의 연천에 지어진 것은 조선 건국 후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실의 숨결을 간직한 숭의전이 개성과 서울 사이에 위치한 연천에 세워졌다는 것은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를 이곳 연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숭의전의 터전이 된 앙암사는 바로 태조 왕건의 원찰인 바, 고려 왕실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3) 연천

1) 구역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연천은 연천현으로 불리며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연천현의 경계는 동쪽으로 영평에 이르기까지 12리, 서쪽으로 임강에 이르기까지 15리, 남쪽으로 양주에 이르기까지 10리, 북쪽으로 철원에 이르기까지 20리이다. 그리고 15세기 말에는 읍면의 구성이 대체로 현내면, 동면, 남면, 서면, 북면, 상수면의 6개의 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관은 경국대전 외관직 규정에 따라 현감1인 및 훈도 1명이 파견되었고 연천현감은 장단진관병마절제도위를 겸임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18세기)에 이르러 관할영역이 다소 확장되어 동으로 영평 경계까지 20리, 서로 장단, 마전 경계까지 각각 30리, 20리, 남으로 양주 경계까지 15리, 북으로 삭녕 및 철원 경계까지 각각 30리와 15리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

연천은 조선 건국 초기 태조 이성계가 태종의 즉위에 불만을 품고 함경도로 향할 때 들렸다는 징파나루, 태종 이방원과 이양원의 고사에서 유래된 수레여울(차탄천), 세종이 강무한 송절원 등 조선 시대의 왕에 얽힌 사연도 담고 있는 곳이다. 그만큼 연천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충신의 절개가 살아 있는 곳이며, 왕의 강무터로서 조선 왕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연천에 대한 기록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전쟁이다. 역사적 격전지로서의 질곡은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연천 지역에서는 임진강전투, 삭녕전투 등과 같은 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등과 같은 호란이 일어났다. 주요 전투의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 임진왜란 관련 전투

① 임진강전투

1592년(선조25) 5월 17~18일 도원수 김명원 등이 임진강에서 관군을 이끌고, 왜군의 북침을 막으려다 패한 전투이다. 1592년(선조 25) 한강 수비를 맡은 도원수 김명원은 임진강으로 후퇴하였다. 이에 하여 장계(狀啓)를 올려 적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선조는 김명원의 한강 방어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경기·해서 군사를 징발해 임진강을 지킬 것을

---

8) 『연천군지』에는 고려 3왕과 16공신을 제사지내는 곳이라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3왕은 8왕의 오기이다.

9) 최병수, 『이야기 연천』, 2015, 27-29쪽.

명하였다.

한편, 일본군은 고니시(小西行長)는 평양으로, 구로다(黑田長政)는 황해도로, 가토(加藤淸正)는 함경도 방면으로 가기로 하였다. 가토군이 1592년 5월 10일 가장 먼저 서울을 떠나 임진강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물살이 급해 건너지 못하고 며칠을 기다리다가 결국 강변에 소수의 군사만 남겨 두고 파주 쪽으로 철수하였다.

조선 진영에서는 일본군의 전세가 불리하다는 헛된 보고가 계속 날아드는 데다 적이 여러 날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조정에서도 도원수에게 엄중히 질책하며 속히 싸울 것을 명하였다. 조방장 유극량은 강을 건너 싸우자는 여러 장수의 주장에, 적의 유인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나, 군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패배를 예견하면서도 신할을 따라 강을 건넜다. 도원수도 도하작전을 반대했지만 명령계통이 어수선하여 이를 막지 못하였다.[10)]

17일 가토군의 기습을 받아 신할·유극량 등의 장수가 전사했으며, 많은 관군이 돌아오지 못하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임진강 방어전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일본군은 27일 임진강을 건넜다.[11)]

② 삭녕전투

경기감사 심대와 철원에 주둔한 왜군 대장 이토의 부대 사이에서 벌어졌던 싸움으로, 이토가 수병 500명을 거느리고 잠복하고 있던 삭녕 군수 장지성의 부대를 기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심대는 병으로 누워 있었으나 적에 대항하여 싸웠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전세는 불리해져 아군의 전사자가 400명에 이르렀으며 삭녕 감영을 적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심대는 적 한 사람을 죽인 후에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으며, 인천부사 안성군수도 모두 죽었다. 후에 심대의 시체는 조카가 삭녕군 뒷산에 매장하였다. 그러나 적이 이를 알고 매장한 곳을 찾아 그의 머리를 베어 한성으로 이송하여 종각 앞에 걸어 놓았다. 그러나 그 머리는 5~60일 동안이나 생생한 채로 노기를 띄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1791년(정조 15) 삭녕에 표절사를 세워 심대를 비롯하여 윤경원·강수남·양지를 배향하였다.

③ 한탄강에서 효수된 신각

신각(申恪)은 본영흥부사 등을 거쳐 1587년(선조 20) 경상도 방어사로 왜구에 대비했던 인물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월 29일 서울의 수비를 위해 중위대장으로 임명되어 도원수 김명원 휘하에 부원수로서 한강을 사수하다가 5월 2일(3일) 패전하여 유도대장 이양원을 따라 양주로 후퇴했다. 이때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혼, 그리고 인천부사 이시언과 흩어진 병사를 규합하여 북상 중인 적과 양주 해유령(蟹踰領)에서 맞아 싸우게 되었다. 해유령은 현재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고개인데, 신각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은 당시 한성에 들어왔던 적의 일부가 한성근교 및 양주일대에서 약탈행위 정보를 입수하고, 해유령 부근에 잠복하고 있다가 왜군을 공격하였다. 5월 중순에는 왜군이 약탈한 식량과 우마 등을 이끌고 해유령을 넘어 한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 왜적들은 무장도 제대로

---

10) 당시 임진강 방어에는 명령 계통이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는 도원수 김명원과 그 휘하에 부원수 이빈(李薲), 독진관 홍봉상(洪鳳祥), 경기감사 권징(權徵), 조방장 유극량(劉克良), 검찰사 박충간(朴忠侃), 좌위장 이천(李薦), 방어사 신할 등이다. 둘째는 제도도순찰사 한응인(韓應寅)과 부사 이성임(李聖任)이었다. 셋째는 임진강 상류 대탄(大灘 : 지금의 경기도 연천 부근)에 전 유도대장 이양원(李陽元)과 순변사 이일(李鎰), 전 부원수 신각(申恪) 등의 군사가 포진하고 있었다.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진강 전투 참조.

갖추지 않은 채 전투태세가 해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해유령 부근에서 적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였다. 뜻밖의 기습을 받은 왜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였다. 조선군은 적군 70여명을 쓰러뜨리는 큰 전과를 거두었으며, 신각과 이혼의 활약으로 그 동안 위축되었던 조선군 사기를 올리고 왜군에 대한 적개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백성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다. 그후 5월 16일, 해유령전투에서 승리한 신각과 이양원, 순변사 이일, 김우고 등은 대탄(한탄강)을 지키기로 하고 이혼은 철령 방면으로 가서 적이 함경도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강에서 패전하여 임진강으로 도망가 있던 도원사 김명원은 자기 명령을 불복종한 죄로 그를 무고하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5월 18일 선전관을 파견하여 대탄(한탄강) 백사장에서 신각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처형 명령을 내린 뒤 해유령 전투에서의 승전을 접한 선조는 곧 선전관을 파견하여 처형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때가 늦어 신각장군은 효수된 뒤였다.

3) 관련 전투

① 보개산 성령산성 전투

보개산 성령산성은 연천읍 동막리 애미내 뜰을 지나 삼봉동 찬취암 동남쪽에 '성재'로 불리는 해발 510m 높이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 천혜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산성이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각 지리지는 이 산성이 '고성' '성령' 또는 '보개산 고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삼면이 험준한 절벽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우물이 남아 있으며 성 둘레는 4리 정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의 평면구조는 가오리 형과 닮았으며 북쪽이 높고 남서쪽이 완만히 낮아지는 형태이다. 북쪽은 험준한 보개산 여러 봉우리들로 줄지어 솟아 있고 남쪽으로는 추가령 구조곡을 지나는 경원선 철도와 3번 국도가 보이며 전곡읍 은대리 벌판과 통현리 가사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북상하는 적의 세력을 방어하기 쉬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성지이다. 이 곳에서 연천현감 이창조는 적들을 2번씩이나 읍민과 함께 격퇴하였다.

② 유림장의 보부상

유림장은 왕징면 무등리에 소재했던 곳으로 현재 왕징면 사무소 자리가 그 곳이다. 조선 개국 후 구한말까지 이곳에는 큰 장이 형성되어 당시의 마전군에서 지산팔경 중 하나로 꼽혔던 명소이기도 하다. 원래 유림이란 유래는 이 곳에 스무나무가 무성하게 숲을 이룬 곳이라 하여 '스무숲' 즉 유림이라 하였고 임진강 화이트교 위에는 큰 소가 있다 하여 '스무소' 즉 유연이라 하였다. 또는 '스무스' 즉 유림동 '스무소장거리' 유림시, '스무소나루' 유림진 등은 유림장 지명에서 연관되어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다. 수로를 이용한 조운 사업이 발달한 조선시대의 유림장은 서해안에서 임진강으로 올라 온 상선인과 함경도 보부상들의 중심으로 지방경제는 물론 농업생산 유통 교환이 이 곳 유림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보부상들은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얼음을 깨가며 왕궁을 향하여 항진하다가 마전군 당포에 이르러 좌초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당포 성황당에는 보부상 영령의 위패가 모셔지고 매년 정월이면 무속인 의해 자진굿으로 위로하였다고 전한다.

(4) ~ 현대의 연천

1)　　의병 활동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화가 구체화되자, 상실한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국권회복운동이 당대의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국권회복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의병운동 이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항일 의병운동은 연천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방은 경기도 의병운동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연천지역은 동쪽으로는 보개산 등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황해도 금천군으로부터 남북으로 임진강이 흐르며, 중앙부를 관통하는 3번 국도와 경원철도 신설에 따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연천지역에서는 허위, 연기우, 김민수, 강기동, 김진묵, 이은찬, 정용대, 김연성, 황재호, 김귀손, 유포연, 허준, 김광식, 박종환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들이 활약하였다. 연천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게는 3,600여 명에서 많게는 5,93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의병장과 부대별 중복으로 인한 오차를 감안하면 대락 4,350여명으로 헤아릴 수 있다. 이들 의병수는 연천에 인접하고 있는 관내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여 상정한 것으로,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마전, 적성, 장단, 삭령, 철원, 영평, 포천, 파주, 양주 등이었다. 연천지역의 의병활동의 구성과 특징을 종합하면, 먼저 연천지역 의병은 구성면에서 볼 때, 농민을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해산 군인이 가세한 일반 민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도적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상황 면에서 볼 때 전력에서 일본측과 비교가 안 되는 한국 의병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컸다.

연천지역은 의병진의 활약상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도 전적지가 많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는 조사가 미흡함으로써 전적지의 지명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이다.

연천읍- 옥산리 사무래별 일대, 읍내리 관사터, 옥산리 법화동, 동막리 범대동, 옥산리 문바위골, 옥산리 사기촌, 고문리 오봉사

전곡읍- 간파리 쇠마지골, 늘목리

군남면-옥계리 군수맥이, 왕림리 죽대동, 선곡리,

견묘동 개무더미(:1908년 4월 22일 의병진 50명이 황산리에 있던 삭령수비대의 공격을 받았다. 전언에 의하면 전투에서 전사한 적군의 시체를 모아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왜를 개에 비유해서 지어진 지명이라 한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가 없다.)

청산면-백의리, 궁평리, 백의리 능안, 대전리

2) 일제강점기 연천의 생활

① 경원선

관내에 설치된 대표적인 기간시설로 1914년에 설치된 경원선을 꼽을 수 있다. 연천군은 교통로 상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경흥대로의 분기로에 해당하는 연천군은 특히 동북지역을 연결하는데, 거리상으로나 지형적으로 본로인 포천보다 유리한 도로였다. 특히 동북지역의 북어상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는 등 꾸준히 평탄화 과정을 거쳐 본로 보다 통행량이 더 많았던 것이다. 경원선 철로가 제2로의 본로에 해당하는 포천 방향이 아닌 연천 방향으로 확정된 것은 이 같은 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연천, 전곡역의 경우 경원선 부설 이후 1930년대 후반까지 창동, 덕정, 동두천역보다 훨씬 이용 빈도수가 높았다. 이는 현재 철도 이용 현황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그만큼 한수이북지역 중에서 현 연천군 지역이 교통결절지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천군을 관통하는 서울-의정부-동두천-전곡-연천-삭녕을 지나 평양을 연결하는 도로가 2

등 도로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일제의 도로정비와 치도사업에 따라 연천 관내에서도 1911~1914년 사이에 집중적인 도로보수 및 개수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연천 관내에는 많은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삭녕가도, 철원가도, 안주가도, 영평가도, 안협가도 등이었다.

② 연천, 마전, 삭녕의 통합

1914년에 수백 년 동안 '연천, 마전, 삭녕'이라는 3개 구현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지역이 연천이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합쳐졌다. 이후 8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적어도 연천 관내에서 몇 대에 걸쳐 살아온 토박이들에게는 여전히 '연천 사람, 삭녕 사람, 마전 사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1914년 연천군으로 자리 잡은 뒤 몇 개의 면이 인접 군으로 이관되거나 인접 군 몇 개의 면이 들어온 점이 먼저 눈에 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반 이상의 면적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고, 수많은 군사 시설과 비무장지대를 한가로이 뛰노는 동물들의 낙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14년 일제가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늘날 연천군의 골격을 완성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후 소규모의 행정구역 조정을 제외하고는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1960년대 이후 불어 닥친 근대화, 산업화 물결 속에서도 연천군은 벗어나 있었고, 자연히 급격한 인구 유입이나 이동 없이 오늘날에 이른다. 수도권 인근의 시와 군이 일제강점기와 현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는 반면 경기 최북단에 위치한 본군은 90년 전과 오늘날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3) 상품유통

무엇보다도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연천군의 모습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임진강을 통한 수운이 쇠퇴한 이후에는 산으로 빙 둘러싸여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한적한 시골마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전작지대에 해당하는 연천군에서 산출되는 작물로는 당연히 보리, 콩등의 밭작물과 목재와 산나물 등의 임산물로 대변될 수 있다. 이 외에 연천관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양잠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당시 군 전체에서 농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으로 임진강을 통한 상품유통이 매우 활발했다. 1913년 3월 1일 장단군의 고랑포(현 장남면 고랑포리)에서 부두노동자들이 이상완을 회장으로 고랑포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조직된 임금 노동자 조직으로는 초창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연천군 지역 중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고랑포가 크게 주목받았지만, 현황과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고되지는 못했고, 전곡 일대 역시 물류 교역의 중심지라는 점이 거듭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현지답사를 통해 임진강에서 올라온 뱃길과 경원선을 통해 내려온 강원도의 물류가 '전곡' 일대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현대의 연천

1949년과 1950년 군사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와 교량 공사등의 토목공사가 임진강과 한탄강 부근, 그리고 연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한탄교와 신천교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연천역 구내 철로 옆 지면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군수품을

비롯하여 각종 화물 하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토목공사는 1950년 한국전쟁 개전 당시 인민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이동한 지점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인민군이 남하한 이후, 38선 이북의 연천 주민들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개전 얼마 후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폭격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38선 이남 연천지역은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인민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 주민들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였다. 북한의 점령정책이 실시되면서 제반 개혁이 이루어졌고, 마을 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자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선전이 실시되었고, 날마다 회의가 열렸다. 38선 이남의 전곡면 양원리에서는 반공유격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의용군 모집 방해, 유치장 습격, 인민군 기습 공격 등의 유격전을 펼쳤다.
연천에서는 인민군 후퇴장시, 노동당원 등 핵심세력들이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인민군은 후퇴하면서 38선 이남 고랑포 지역 청년 13명을 쇠사슬에 묶어 고랑포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이들이 라디오를 통해 국군이 가까이 진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고 방공호 속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국군환영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연천은 폐허가 된 마을의 재건에 앞장섰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신촌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이는 휴전 후 새로 재건된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연천은 과거의 아픔을 씻고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서, 문화 통합의 기수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연천이다.
마지막으로 연천의 연혁을 간단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

표 1 <연대와 시대에 따른 변천과정>

연대	시대	변천과정
30만년전	구석기 시대	
bc18	백제온조왕	백제건국후 백제영역에 속함
ad396	고구려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진정책으로 고구려 영역에 속함 공목달현으로 불림. 최초의 역사상 기록
ad553	신라 진흥왕 14년	신라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신라의 영역이 됨
ad757	신라 경덕왕 16년	공성현으로 명칭 변경
ad940	고려 태조 23년	군의 명칭을 장주(獐州)로 변경
1018	고려 현종 9년	동주군(東州郡.철원)에 속하게 됨
1069	고려 문종23년	승령(僧嶺),삭령(朔嶺),마전(麻田),적성(積城)현등을 편입함. 연천군이 개성부에 편입되어 경기에 속하게 됨
1310	고려 충선왕 원년	장주(獐州)를 연천(漣川) 또는 연주(漣州)로 개칭
1413.10	조선 태종 13년	연천현감 설치
1906.09	고종 광무 11년	철원군 관인면을 연천군으로 편입
1914.03		마전,적성의 2개면과 삭영군 대부분, 양주군 영근면을 연천군에 편입
1945.11		군정법령 제22호로 적성면, 남면전역과 백학면, 전곡면 일부를 파주군에 편입
1954.10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하여 동년 11월 17일 자로 행정권 수복
1963.01		법률 제1178호로 파주군 적성면 늘목리를 전곡면에, 삼화(三和)

12) 연천군청 홈페이지 참조.

		리를 미산면에,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을 연천군에 각각 편입
1965.04		군조례 제111호로 백학면 원당(元堂)출장소 설치
1979.05		대통령령 제9409호로 연천면을 읍으로 승격
1983.02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관인면 일원을 포천시에, 포천시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궁평리, 백의리를 연천군에 편입
1985.05		군조례 제1001호로 연천군 연천읍 차탄2리를 차탄2,4리로 군남면 삼거리를 삼거1,2로 옥계1리를 옥계1,3리로 남계리를 남계1,2로 각각 분리
1985.09		군조례 제1019호로 연천군 중면 횡산리를 행정리로 수복
1985.10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전곡면을 읍으로 승격
1987.01		대통령령 제12007호로 미산면 석장리를 백학면에 편입
1989.01		대통령령 제12557호로 포천시 관인면 부곡리(釜谷里)를 연천읍에 편입
1989.04		군조례 제2026호에 의거 백학면 원당(元堂)출장소를 장남면으로(長南面)으로 승격하여 현재와 같이 2읍 8개면으로 편성됨
1998.08		군조례 제2418호로 연천군 백학면의 두현리와 통구리를 행정리로 수복

2.3.2 연천의 지리와 생태

(1) 지리

1) 지리적 위치

연천군은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연천읍과 청산면이 포천시와 접하고 있다. 서쪽은 장남면이 파주시와 북쪽은 신서면이 황해도의 금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전곡읍 간파리가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연천군 곳곳을 관통하여 흐르는 대표적인 하천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을 꼽을 수 있다. 함경남도 문천군 풍산면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이천, 황해도 금천을 경유하여 흘러내리는 임진강은 연천군의 중앙부를 횡단하여 동남부에서 한탄강과 합류하여 서남쪽 방향으로 물줄기가 이어지면서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계를 이룬다.

한편,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군의 추가령곡 동쪽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평강과 철원을 남류하고 연천군과 포천시의 경계를 따라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미산면과 전곡읍의 경계에서 임진강으로 흘러든다.

연천군의 중앙부는 추가령지구대이고, 동쪽은 광주산맥의 여맥이 뻗어 고대산, 지방봉 등의 높은 봉우리로 연결되었고, 서북부에는 마식령산맥의 자맥이 군내로 이어져 고왕산 등이 솟아 있다.

중앙의 저지대는 임진강 유역의 평야이며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은 모두 편암층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 강안은 거의 절벽을 이룬다. 서북 지역은 동남북이 모두 임진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한편 구릉지 또한 곳곳에 분포한 까닭에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동부나 북부 지역은 고지대이며, 서남 지역은 평탄한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평탄한 저지대는 3번 국도와 37번 국도의 인접 지역과 왕징면, 백한면, 장남면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고지대는 연천읍 서부 지역인 읍내리와 신서면 내산리 일대, 청산면 초성리,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지역이다.

2) 산과 강

한반도의 북동 내륙지역에 속하는 연천군은 산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 연천평야, 경기평야와 같은 넓고 비옥한 중서 평야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한반도의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중앙부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부터 역사와 문화가 발달하는 좋은 배경이 되었다. 특히 인간 생활이 자연 조건에 크게 좌우되던 국가 성립 이전 시기에도 강과 해안 지역을 따라 사람들이 이동, 교류하며 거주하였다. 그 결과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다수 분포함으로써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과 문화가 발전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연천군의 중요한 산맥과 하천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천의 산

산명	높이(m)	소재지	산명	높이(m)	소재지
천덕산	476	신서면 마전리	군자산	328	연천읍 읍내리
고덕산	832	신서면 신탄리	종자산	643	연천읍 부곡리
지장봉	877	신서면 내산리	고왕산	355	왕징면 고왕리
고대산	832	신서면 대광리	두리산	84	왕징면 노동리
종현산	588	청산면 초성리	옥녀봉	126	군남면 옥계리
마차산	588	전곡읍 간파리	감악산	675	전곡읍 늘목리

표 3 연천의 하천

하천명	지류	발원지	길이
임진강 245km	문산천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턱골(한강산 북서 계곡)	30.0
	강화천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호명산 북서 계곡)	39.5
	차탄천	철원군 철원읍 안양사(금학산 북서 계곡)	38.5
	포천천	포천시 소흘면 무봉리 절골(343고지 남쪽 계곡)	44.0
	영평천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동(공덕산 남쪽 계곡)	41.0
	일동천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양지말(379고지 남쪽 계곡)	36.5
한탄강 140km	한탄천	평강군 현내면 삼원리(장암산 남쪽 계곡)	134.5
	차탄천	철원군 철원면 독서당리(760고지 북쪽 계곡)	38.5
	강화천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산지부락(호명산 북서 계곡)	39.5
	포천천	포천시 소흘면 무봉리 절골(343고지 남쪽 계곡)	44.0

3) 지질

연천군의 지질은 화강편마암이 주로 분포하며, 국지적으로 중생대 쥬라기에 관입한 화강암류와 플라이스토세에 분출한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다. 연천군의 동부 지역은 백악기의 중성화산암과 석영반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임진강 양안과 청산면 일대는 호상편마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연천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현무암인데, 제주도의 현무암과는 성질이 다른 토양 특성을 보인다. 이는 화산 폭발의 강도 차이 등에 따라 현무암과 유사한 조면안산암이 생성되는데, 연천 지역에는 이 두 종류의 화산암류가 국지적 또는 혼합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무암은 염기성 화산암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고 평평암 현무암 대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흑색 또는 암회색의 다공질 구조가 잘 발달된 토심이 깊고 중성 내지 약산성을 갖는 비옥한 토양을 생성한다.
한탄강의 골짜기를 따라 통현, 장탄, 전곡 일대에는 현무암의 용암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탄강과의 합류점 하류인 임진강 골짜기까지 연장된다. 특히, 전곡 일대의 현무암은 제4기 홍적세에 추가령지구대의 구조 열선에서 유동성 흑색현무암이 분출되어 용암 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용암 대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용암 대지를 덮고 있는 흙은 현무암의 풍화토가 아닌 유수에 의한 충적토로 되어 있다. 이 충적토는 협곡이 파이기 이전에 용암 대지의 표면을 덮어 흐를 때 쌓인 것으로 벽돌의 원료로 적합하여 한탄강 연안의 전곡 일대에는 벽돌공장이 많다.
전곡읍 남쪽 약 30만 평에 달하는 대지에 분포하고 있는 전곡리 유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기 구석기 유적으로서, 또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아슐리안계 석기군의 출토 유적으로서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천군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이 유적지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질학、생물학、고고학 등 많은 분야에서도 큰 관심으로 가지고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기후

연천군은 한반도의 중앙 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한반도 남부와 북부 사이의 점이지대적 모습을 보인다. 한서의 차가 심한 편이며 겨울이 길고 봄은 비교적 짧다. 연 강수량은 1,200mm 가량으로 특히 임진강 상류 지역은 한반도에서 금강 유역과 함께 2대 다우 지역이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연천군의 기상개황을 보면 연 평균 기온은 10.6c로 남부 지방인 여수、목포 지역보다는 3~4c 정도, 서울보다는 1c 정도 낮다. 강수량은 1,104mm로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인 1,274mm보다 150mm 가량 적었다.
상대 습도는 대기의 건습 상태를 표시하는 요소로서 본군의 평균 습도는 68.4%로 쾌적한 상태이다. 그러나 연천군의 평균 일조 시간은 1,946시간으로 전국 평균치인 2,200~2,700시간 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는 고해발 산지가 많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월별 기상 요인 중 12월의 연 평균 기온은 0.8c, 최고 기온은 5c로서, 10년 전의 평균치인 -3.2c, 1.6c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 지구 온난화 현상과 높은 상관이 있는 듯하다.

(2) 생태

1) 산림 생태

연천군 일대의 삼림은 우리나라 삼림 식물대로 보아 온대 중부에 해당된다. 연천군 일대는 우리나라 삼림대 중 냉온대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온대림이 한반도의 대부분을 점유하는데, 그 중 온대림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한반도 식생의 대표적 성격을 띄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본군에는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밤나무 등 참나무과 수종이다. 이 외에 느릅나무, 피나무, 찰피나무, 신나무, 당단풍나무, 음나무, 층층나무, 말채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 호랑버들, 거제수나무, 사스레나무, 까치박달, 개암나무, 산뽕나무, 생강나무, 귀룽나무, 산벚나무 등 온대 식생을 대표하는 다양한 수종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숭의전 주변에는 많은 종의 큰 낙엽 활엽수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연천 일대 지난날의 임상을 추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연천군의 산림 면적은 3만 8,574ha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침염수림 면적이 4,533ha, 혼효림이 3,694ha, 활엽수림이 3만 347ha로서 활엽수림이 절대적으로 많은 면적(79%)를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숲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참나무림(낙엽활엽수림): 연천군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참나무류는 신갈나무이다. 특히 고대산, 지장봉, 화인봉, 북대를 잇는 능선의 해발 200~300m 이상의 산지에 발달하고 있다.

② 소나무 단순림: 연천군의 소나무림 분포 위치는 토양이 발달하지 못한 곳, 건조한 입지, 신갈나무림이 파괴된 곳 등으로 대개 능선부에 해당하며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림에 둘러쌓여 매우 협소하게 자리잡고 있다.

③ 버드나무 군락: 버드나무 군락은 하천이나 개울가 또는 계곡이 끝나 평지와 만나는 지점인 완만한 선상지에 형성된다. 한탄강이나 임진강의 경우에는 하안이 단애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로 나타나지 않고 지류의 만곡부 또는 산아래 밭 가장자리에 주로 혀성되어 있다.

④ 잣나무 식재림: 광주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연천군은 포천시, 가평군과 더불어 잣의 산지이다. 최근에 잣나무의 식재가 늘어나 비교적 넓게 잣나무림이 분포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전형적인 숲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⑤ 낙엽송 식재림: 낙엽송은 기후에 대한 분포(내성) 영역이 매우 넓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연천군에서도 매우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⑥ 리기다소나무 식재림: 리기다소나무는 아까시나무, 물오리나무와 함께 사방 조림용 수종으로 1970년대 초반에 많인 식재되었다. 현재는 산록부에 군데 군데 남아 있으며 임간 방목으로 인해 하층 식생이 없는 경우가 간혹 나타난다.

⑦ 밤나무 식재림: 밤나무는 종실 생산을 위하여 과수처럼 재식된 수종으로서 농경지나 민

가에 인접한 야산 혹은 산악의 경우 산록부분에 조성하였다.

⑧ 아까시나무 식재림: 리기다소나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방 조림용으로 식재되었다. 꽃향기가 좋고 고급 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수종이나 뿌리 뻗음이 왕성하여 농경지나 묘지에 피해를 줌으로써 제거되고 있는 수종이다.

⑨ 기타 느티나무 식재림, 은수원 사시나무 식재림, 자작나무 식재림 등이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염원한 숲을 소개하기로 한다. 3번 국도를 타고 신서면 대광리를 지나 철원군 쪽으로 가는 길목에 통일을 염원하는 숲이 있다. 잣나무를 식재할 때 커다랗게 통자와 일 자의 형태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백녹색의 짙은 빛깔을 띠는 잣나무의 수관이 모이고 모여 주위의 낙엽송림 또는 참나무림의 옅은 색깔과 대비를 이루며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2) 식물 자원

연천군은 한국전쟁 후 극도로 임상이 파괴되었으며, 휴전 후 지금까지 일부 민통선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식물에 대한 조사는 1974년에 정영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1980년 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1987년에는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한 경기도 민통선 북방 지역의 자원 조사 과정에서 목본식물과 초본 식물을 구분하여 식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88년 환경청에서 주관한 제1차 자연 생태계 전국 조사에서는 연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후 1992년에는 환경청에서 주관한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의 자연 생태계 조사가 있었는데, 본군에 해당하는 조사는 천덕산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비무장지대 및 인접 지역의 산림 생태계 조사에서 1997년에는 중, 서부 내륙 지역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이때 본군 중에서는 천덕산 및 야월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연천군은 국화과 식물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벼과, 장미과 혹은 콩과의 순이었고, 백합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한국 특산 식물
ㄱ) 매자나무: 우리나라 중부 이북 지방산지의 양지바른 곳에서 주로 자라는 매자나무과의 떨기잎 작은 키나무로 여러 가지 나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 소재로 이용가치가 있다.
ㄴ) 조팝나무: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로 추위에 대단히 강하여 전국에 걸쳐 자란다. 군집 생활을 좋아하며 개화 기간이 10~15일 정도이므로 차폐를 위한 생울타리로 이용하기에 제격이다.
ㄷ) 좁은단풍나무: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하나의 줄기가 자라다가 여러 개의 굵은 가지로 나뉘어 자란다. 한국의 가을 산을 아름답고, 붉게 물들이는 수종으로서 여러 가지 기구재 및 건축재, 조경수로도 이용 가능하다.
ㄹ) 붉은병꽃나무: 전국의 햇볕이 잘 드는 산지에서 자라는 인동과의 나무로,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내한성, 내염성, 내공해성이 모두 강하다. 주택의 정원, 도로변

등에 관상수로서 식재한다.
ㅁ) 병꽃나무: 전국 산야의 계곡과 산록에 자라는 인동과의 나무로, 건조에 견디는 힘은 보통이지만 공해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도시의 조경수로서 이용 가능하다.

②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연천군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중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 야생 식물로 지정된 종은 고란초와 가시오갈피 등 2종, 산림청에서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로 선정한 종은 고란초, 창포 등 9종, CITES에 의하여 수출입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종은 흰제비난 등 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천군 희귀 멸종 위기 식물

과명	국명	비고	출전
고란초과	고란초	호나경부(보호), 산림청	2
천남성과	창포	산림청	1
백합과	말나리	산림청	1,2,3
붓꽃과	꽃창포	산림청	2
난초과	잠자리난	CITES	1
	흰제비난	CITES	3
	타래난초	CITES	1,3
쥐방울덩굴과	쥐방울덩굴	산림청	1,3,4
매자나무과	삼지구엽초	산림청	1,3
돌나물과	낙지다리	산림청	1
제비꽃과	태백제비꽃	산림청	3
두릅나무과	가시오갈피	환경부(보호), 산림청	2

3) 동물 자원

① 포유류: 1998년 7월에 실시한 비무장지대 및 인접 지역의 산림 생태계 조사시 고랑포리에서 5종 6개체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집박쥐의 서식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천읍 옥계리에서 6종 17개체의 서식을 확인하였는바, 이 지역은 야생 동물의 서식환경이 양호하여 번식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연천군의 포유류는 14과 31종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연천의 포유류 동물 자원

과명	서식종수	종명
고슴도치과	2	고슴도치
땃쥐과	1	작은땃쥐, 땃쥐
두더지과	1	두더귀
애기박쥐과	2	멧박쥐, 집박쥐

멧토끼과	1	멧토끼
다람쥐과	2	청설모, 다람쥐
비단털쥐과	4	비단털쥐, 대륙밭쥐, 갈밭쥐, 쇠갈밭쥐
쥐과	6	멧밭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줄쥐, 집쥐, 곰쥐, 생쥐
개과	3	늑대, 여우, 너구리
족제비과	4	족제비, 노란목도리담비, 오소리, 수달
고양이과	1	삵
멧돼지과	1	멧돼지
사슴과	2	고라니, 노루
소과	1	산양
14과	31종	

② 조류: 연천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한국전쟁 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상태로 60년이 지난 지금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군사 지역이 많아 민간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고, 타 지역에 비하면 대규모 공단이 없어 환경오염이 적어 잘 보전된 자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연천군은 조류들에게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해 주는 새들의 낙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연천군에서 조사된 조류는 총 11목 34과 121종이다. 계절별로 보면 4계절 동일 지역에서 서식하는 텃새는 참새류, 박새류를 우점종으로 하는 39종, 오리류, 두루미류가 우점종인 겨울 철새 35종, 백로류, 뻐꾸기류가 우점종인 여름 철새는 41종,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남북으로 이동하는 나그네새는 6종이 관찰 가능하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두루미류, 매류, 수리류 등 총 12종이 있다. 이 중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천연기념물 조류>

지정번호	국명
제202호	두루미
제203호	재두루미
제228호	흑두루미
제243호	독수리
제243호	흰꼬리수리
제323호	붉은배새매
제323호	황조롱이
제323호	참매
제323호	잿빛개구리매
제324호	소쩍새
제324호	칡부엉이

제327호	원앙이

③ 어류: 연천군의 어류상에 관한 조사는 1966년 5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7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의 각 하천에서 서식이 확인된 어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연천군의 각 하천에서 서식이 확인된 어류 목록>

어종명	임진강 본류	한탄강	영평천	차탄천	사미천
뱀장어	0	0	0		0
피라미	0	0	0	0	0
갈겨니	0	0	0	0	0
끄리	0	0	0		0
왜몰개	0	0		0	0
버들치	0	0	0		0
흰줄납줄개		0		0	0
각시붕어					0
납자루	0	0	0		0
묵납자루	0	0	0		0
줄납자루	0	0	0	0	0
납지리	0	0		0	0
큰납지리	0	0	0		
잉어	0	0	0		
붕어	0	0	0	0	0
참중고기	0	0	0	0	0
참붕어	0	0		0	
돌고기	0	0	0		0
가는돌고기	0	0		0	
새미		0			
쉬리	0	0	0	0	0
줄몰개	0			0	0
몰개					0
긴몰개	0	0	0	0	0
누치	0	0	0	0	0
참마자	0	0	0	0	0
어름치	0	0	0		0
모래무지	0	0	0	0	0
두우쟁이	0	0			0
버들매치	0	0			

왜매치	0			0	0
돌마자	0	0	0	0	0
배가사리	0	0	0	0	0
꾸구리	0	0	0		0
돌상어	0	0	0		0
흰수마자	0				0
미꾸리	0	0	0	0	0
미꾸라지	0	0		0	0
새코미꾸리	0	0	0	0	0
점줄종개	0				0

④ 곤충류: 연천군 일대의 곤충류는 총 10목 88과 373종이다. 이 중 딱정벌레목이 23종과 117종으로 가장 많고, 벌목이 17과 106종, 파리목이 16과 52종, 나비목이 16과 43종 등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기할 만한 종들을 우세종, 보통종, 희소종, 증가종, 관상종, 대형종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종별 특성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연천군 희귀 곤충>

종	특성
회색좀나방	한국미기록종
푸른부전나비	우세종
네발나비	우세종・보통종
꼬마길앞잡이	희소종
칠성무당벌레	우세종
무당벌레	우세종
털두꺼비하늘소	증가종・해충
톱하늘소	대형종・보통종
중국청람색잎벌레	관상종・감소종
청줄보라잎벌레	관상종・감소종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우세종
알락수염노린재	우세종
큰밀잠자리	우세종
된장잠자리	우세종

⑤ 연천 은대리의 물거미 서식지: 물거미 서식지는 전곡읍 시가지에서 북쪽으로 약 2.1km 떨어진 경원선 철도와 3번 국도가 만나는 도로변 좌측의 넓은 은대리 벌판에 위치해 있다. 물거미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물에서만 사는 거미로 물거미과에 속하는 절지동물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중부, 유럽 북부 등 여러 나라에 분포하는데, 아시아에서는 1930~1940년대 일본 북해도 지역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그 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국에 걸쳐 습한 논이나 못, 냇가, 늪지에 널리 분포, 서식하여 오다가 1950년 중반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자연 환경 생태계에 대한 조사 과정 중 전곡읍 은대리 693-18번지 일대에서 물거미 서식지를 발견하였고, 1999년 9월 18일 천연기념물 제412호로 지정되었다.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는 환경 생태의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때문에 물거미 서식지의 보호와 생태 관광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13)]

2.3.3 연천의 민속 문화와 문화재

연천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평야 지대에 놓여 있어 교통이 발달했고, 삼국시대로부터 임ㆍ병 양란,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던 무대였다. 때문에 연천은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연천 고유의 지역적 특색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천을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 포용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연천군에서 전래되는 민속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서 연천군이 자랑하는 문화재를 소개하기로 한다.[14)]

(1) 민속 문화

1) 민속놀이

① 진좌굿: “진좌굿은 고랑포(옛 장단면 고랑포)의 독특한 풍습으로 중고랑포 석벽 위에 지진신, 즉 수호신을 받드는 사당이 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부군당이라 하였다. 평소 악역이 유행할 때와 재앙이 있을 때 여기에 모여서 무병식재, 다행다복을 비는 것이다. 항례로 3년마다 제를 지내는데, 그해 봄 2월 초에 길일을 택하여 4일간 행한다. 이것을 일명 고창굿이라 한다. 항례제를 지내는 해에는 제법 먼 지방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제사 비용은 그 해의 흉풍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700~800원(1932년 당시 황소 한 마리가 30원 이었음)을 웃도는 돈을 거두어 썼다고 한다. 이때 이 돈을 고랑포에 거주하는 집집마다 거출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특히 큰 상점 등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높이 20~30척의 홍,백, 황, 녹의 대치(깃발) 수십 개를 세워 봄바람에 휘날리게 함으로써 장관을 이루었다.[15)]

② 울어리 남녀(藍與)행차: ‘울어리’라는 것은 산에서 나무숲을 쳐 나가며 땔나무 하는 것을 일컫는데, 울어리소리는 이때 불렀던 노래였다. 다시 말해, 그해 농사지은 벼를 베기 전인 음력 8~9월에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준비할 때 부르던 노래인 것이다. 울어리를 할 때에는 20~30명의 인원이 모여서 두세 패로 나뉘어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고, 마을로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남녀행차와 싸움놀이가 시작된다.

---

13) 이에 대해서는 유영한ㆍ이훈복, 「물거미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습지의 식생학적 특성과 보전 및 생태관광화 방안」, 『한국습지학회지』, 11권, 2009, 99-106쪽 참조.
14) 이하의 내용은 (『연천군지』(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1)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15) 진좌굿은 신앙의 한 체계라 볼 수도 있으나, 『연천군지』에서는 연천군의 중요한 민속 놀이로 구분해 놓고 있어 이를 따라 민속 놀이에 포함시켰다.

울어리와 남녀행차, 싸움놀이는 8.15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면, 미산면, 신서면 등의 지역에서 전승되었다. 한국전쟁과 산업화, 도시화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이재순을 비롯한 미산면 유촌리 원로들의 노력으로 1980년대 초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아미산 울어리'라는 이름으로 재현되었다. 그리고 같은 명칭으로 1989년 9월 22일에 연천군 향토유적 제 10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아미산은 마을의 공동노동조직이 땔감을 하러 다니는 여러 산 중에서 연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이름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울어리놀이는, 해마다 추수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겨우살이에 대비한 땔나무를 하고 석양이 들 무렵에 잡목으로 가마를 만들어 연장자(좌상)를 태우고 놀면서 마을로 돌아와, 농악과 농요에 맞춰 마당놀이를 벌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화평 단합을 다지며 풍년을 감사하는 농민들의 놀이이다. 하지만 울어리놀이는 완전히 놀이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 공동노동 조직의 생업 활동에 근간을 둔 노동 활동에 놀이가 결합된 형식이고 노래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③ 기타 민속놀이 - 아래의 표로 대신함.

표 9 <연천의 민속놀이 1>

연번	명칭	시기	주체자	비고
1	윷놀이	정월	일반 남자	놀이법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과 같다.
2	널뛰기	정월	젊은 여자	놀이법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과 같다.
3	달맞이	정월 보름	일반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4	가락지 찾기	정월	여자 어린이	놀이법 설명
5	화전놀이	봄	여자	놀이법 설명
6	부군제	3월	성인 여자	놀이법 설명
7	공기	봄부터 가을	소년· 소녀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8	비석치기	봄부터 가을	소년	놀이법 설명
9	농악(농상기)	봄· 여름	농민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10	씨름	단오·백중·추석	남자	놀이법은 다른 경기 지방과 같다.
11	그네	4월 초파일부터 단오	여자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12	천렵	여름	남자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13	복놀이	삼복	남자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14	호미씻이	백중	농민	놀이법은 양주 지방과 같다.
15	종경도놀이	겨울	상류층	놀이법 설명
16	팽이치기	겨울	남자 어린이	놀이법은 다른 경기 지방과 같다.
17	연날리기	겨울, 특히 정월	남자 어린이	놀이법은 다른 경기 지방과 같다.
18	썰매타기	겨울	어린이	놀이법은 다른 경기 지방과 같다.

19	바둑	수시	상류층 남자	놀이법 설명
20	장기	수시	일반 남자	놀이법 설명
21	활쏘기	수시	남자	놀이법 설명
22	숨바꼭질	수시	어린이	놀이법 설명
23	고누	수시	어린이	놀이법 설명

표 10 <연천의 민속놀이 2>

번호	놀이 명칭	번호	놀이 명칭	번호	놀이 명칭
1	가마타기	24	바람개비돌리기	47	팽이치기
2	공기놀이	25	반지놀이	48	포수놀이
3	고무줄놀이	26	방아깨비놀이	49	풀싸움
4	구슬치기	27	불싸움놀이	50	풍뎅이돌리기
5	군사놀이	28	비석치기	51	고누놀이
6	그림자놀이	29	사방치기	52	마작
7	기마전	30	소꿉놀이	53	골패
8	기차놀이	31	손가락감추기	54	투전
9	깡통치기	32	수건돌리기	55	화투
10	널뛰기	33	숨바꼭질	56	낫치기
11	눈싸움	34	신발뺏기	57	돈치기
12	다리세기	35	실뜨기	58	엿치기
13	달걀굴리기	36	십자가놀이	59	종경도놀이
14	닭싸움	37	쎄쎄쎄놀이	60	장기
15	당굴놀이	38	앉은뱅이놀이	61	바둑
16	도둑놈잡기	39	얼음물망초놀이	62	그네뛰기
17	동대문놀이	40	여우놀이	63	비녀돌리기
18	두꺼비집찾기	41	자치기	64	두레놀이
19	딱지치기	42	접시돌리기	65	공치기
20	땅뺏기	43	제기차기	66	지신밟기
21	말뚝박기	44	줄넘기	67	윷놀이
22	먹금놀이	45	씨름	68	기세배놀이
23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46	팔씨름	계	68종

2) 세시풍속

① 개요: 경기도의 세시풍속은 지역적으로 한강을 경계로 경기 북부지역은 이북지역의 세시풍속과 유사성이 있고, 경기 남부지역은 이남지역의 세시풍속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명절 중 설 명절을 가장 크게 쇤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명절이며 또한 외지로 나갔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보름 무렵까지 가장 많은 행사와 놀이가 행해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설 다음에는 추석명절을 크게 쇠지만 단오는 크게 쇠지 않는다. 이 무렵이 한창 바쁜 모내기 때라 여자들의 그네 풍속이 있는 정도이다. 흔히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로 알려진 씨름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단오에 거의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집단놀이 가운데 줄다리기는 주로 경기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성행하고, 반면 횃불싸움과 석전은 경기북부지방에서 성하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축제라 할 수

있는'놀이'(난장놀이)는 모내기 전에 하고, 씨름은 김매기가 끝난 뒤에 한다. 놀이는 종합적인 축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농악을 치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세시풍속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중부지역의 특성을 띠는 동시에 경기 북부지역은 중부 이북지역의 특성을, 경기 남부지역은 중부 이남지역의 특성이 지님으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제

연천군 각 지역에서 전해지는 연중 세시 풍속을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6)]

표 11 <연천의 세시 풍속>

월	시기	명칭	내용
1월	설	차례와 성묘	동이 틀 무렵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이 지역에선'떡국차례'라 하여 떡국을 반드시 차례상에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떡국에는 만두를 빚어 넣는다고 한다. 떡국을 끓이는 순서는 먼저 만두를 끓이다가 떡국을 넣는다고 한다. 집에서 차례를 지낸 다음 산소에 음식을 차려서 간다. 음식으로는 떡국, 삼색과실, 두부탕 등을 올린다. 이때 쓰이는 나물은 고사리, 녹두나물 등이다.
		세배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께 먼저 세배를 드리고 나면 마을에서 단체로 웃어른들께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은 “너 건강하고 공부 잘해라”라고 덕담을 해주기도 한다.
	정초	복조리 달기	복조리를 사놓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문턱에다 걸어놓는다. 쌀을 일어서 쌀이 쌓이면 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월보름 전에만 사기만 하면 된다. 마을로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한 집안에 1개나 2개를 사는 집도 있다.
2월	2월 1일	나이떡 먹기	2월 1일에는 온 식구들의 나이대로 송편을 만들어 각자 나이수대로 떡을 먹는다. 이것은 그해 무병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했었다고 한다.
		콩 볶아먹기	2월 1일에는 콩을 볶아 먹는데, 콩은 주로 검정콩으로 볶는다. 그 이유는 일본놈들 쫓겨낸다고 콩을 볶아 먹었다고 한다.
	월중	개구리알 먹기	남정네들은 논두렁에 나가서 개구리 알도 잡아먹는다.
		좀생이별 보기	좀생이별을 보고 점을 친다. 좀생이별이 달보다 앞서면 풍년이 들고, 나란히 가면 중간정도라 한다.
		장 담그기	2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말날에는 메주로 간장을 담근다. 이때 부정한 사람은 출입을 막고 왼새끼를 꼬아 고추와 숯 등을 꿰어 다니는 풍속이 있다. 장에는 고추, 깨, 숯 등을 넣는다.
3월	삼짇날	제비 돌아오는 날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여 이날 처음 보는 나비의 색깔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한다. 흰나비를

16) 도표의 내용은 『경기도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지식사전에서 재인용)의 내용을 재정리 한 것이다.

			보면 부모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한식·청명	성묘·사초	한식에는 성묘를 가서 객토를 하고, 풀을 뽑는다.
		봄갈이	농가에서는 봄갈이를 시작한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고 한다.
	월중	꽃놀이	부녀자들끼리 꽃놀이를 가는 것은 아니고 봄에 산나물을 캐러 다니면서 꽃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4월	초파일	그네매기	초파일에는 단오에 뛸 그네를 맨다. 그네는 마을의 큰 정자나무에 매어놓는다.
		절에 가기	초파일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절에 가서 연등을 단다.
		치성드리기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은 이날 초와 음식 등을 가지고 절을 올린다고 한다.
5월	단오	놀이	여자들은 그네를 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한다. 연천군에서 소를 걸고 씨름대회를 하기도 한다.
		창포물로 머리감기	부녀자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는데 아침에 창포를 삶아서 물을 낸다.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다고 한다.
		벌초	1년에 벌초를 2번 한다고 하는데, 단오날과 7월에 한다.
		취자떡	산에서 취자를 뜯어다가 인절미를 해먹는다.
		상추 이슬로 분바르기	상추잎에 있는 이슬을 아침에 받아서, 분에 버무려서 얼굴에 바른다.
6월	유두	떡 해먹기	하얀 백설기를 해먹는다.
	월중	복날	복날 음식으로는 닭이나 개를 잡아먹기도 한다. 개를 잡기 위해서는 계곡으로 간다. 초복, 중복, 말복을 다 챙겨 먹는다. 그리고 복날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머리가 안 빈다고 한다.
		물놀이	인근 한탄강이나 임진강으로 물놀이를 가서 물고기도 잡아서 탕을 끓여먹기도 한다.
		장마 대비	비가 오기 전에 집도 고치고, 논에 나가서 농수로를 보수한다. 집안에는 배수로를 해놓는다.
7월	칠석	고사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 까치가 다리 놓느라고 머리가 다 빠진다고 한다. 이날에 일부 가정집에서는 떡을 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차려 놓는다.
	월중	호미씻이와 두레	일군들이 하루 쉬면서 먹고 논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도 준다. 농상기의 좌상은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한다. 두레가 매우 컸고 한국전쟁 전까지 이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어린 사람들은 심부름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세벌매기를 한다. 모내기 할 때도 두레는 다 참여한다. 장구도 치면서 한다.
		벌초	7월 19일이나 20일쯤에 벌초를 한다.
		물놀이	더운 여름이 되면 인근에 있는 개울에 가서 물놀이를 한다. 이때는 물고기를 잡아서 탕도 끓여 먹는다.

8월	추석	차례	송편을 해먹고 토란국은 없다. 탕에는 두부를 넣어 끓이며 제사 지낼 때와 같다.
		성묘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러 간다. 이때는 반드시 송편을 상에 올린다.
		달맞이	달이 밝게 뜨면 풍년이고, 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흉년이 든다. 남쪽으로 기울어지면 남쪽이 흉년이 든다. 집에서 달맞이를 한다.“ 달님 절 받으십시오”하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기도 한다.
		놀이	남자들은 윳놀이하고 여자들은 널뛰기를 한다.
	월중	반보기	추석이 끝나면 여자들은 친정에 간다. 여기서는 반보기라 하지는 않고, 친정가는 것이라고 한다.
9월	중양절	제비 돌아가는 날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한다. 이날은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산신제	9월 9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화주를 뽑아서 제물 장만을 맡긴다. 제물은 일반 제사와 같으나, 제상에 소를 잡아 올리는 것이 다르다.
10월	월중	산제	산신을 모시며, 화주를 뽑아 제물을 준비하도록 한다. 제물은 대부분 일반 제사와 같고, 돼지나 혹은 소를 잡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일은 10월달에 날을 잡아서 한다.
		상달고사	농사지어놓고 햇곡식을 받아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낼 때는 대들보와 터주가리, 마루, 조왕, 광 등 여러 군데에 지낸다. 터주가리에 제일 먼저 놓는데, 이유는 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차리는 음식으로는 시루떡, 술 등을 놓는다. 성주는 종이 창호지를 걸어놓고 옆에 실타래를 놓으며 북어를 놓기도 한다. 성주 신체는 종이를 접어서 늘어뜨려 놓는다.
		시제	시제는 중순 안으로 지내며 미리 날이 잡혀 있다. 지금은 주로 일요일에 날을 잡아서 한다.
		안택고사	추수를 한 다음 타작을 끝내고 햇곡식으로 만든 시루떡으로 성주를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기원 후에는 이웃집끼리 나누어 먹기도 하고, 외양간에다 시루떡을 놓기도 한다.
		김장	10월이 가기 전에 김장을 다 한다. 주로 배추김치와 총각김치를 해 먹는다.
11월	동지	팥죽 쑤기	팥죽을 끓여먹고, 옹심이(옹스레미)를 해 넣어 먹고 고사는 지내지 않는다. 애동지에는 팥죽을 끓이지 않고 노동지와 중동지에 해 먹는다. 애동지는 ‘애들이 일찍 죽는다’고 하여 팥죽을 끓이지 않는 것이다.
12월	섣달그믐	묵은세배	집안청소를 하고, 오래오래 살라고 마을의 노인분들께 묵은세배를 한다. 그리고 정초에도 세배를 한다.

		세찬	세밑에 여러 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어른들께 준다. 음식을 대신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물로는 담배나 육고기 등이 있다.
	월중	사냥	별도의 사냥은 하지 않고 사이나(꿩을 잡는 약)를 놓아서 꿩을 잡는다. 과거에는 덫을 이용해서 토끼도 잡았다고 한다.

4) 신앙

연천의 신앙은 험난한 역사적 부침 속에서도 그 전승의 끈을 놓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다. 이들 전승 신앙들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보호·보존이 시급하다.[17)]

① 연천군 마을 신앙의 전승 현황

표 12 <연천의 마을신앙>

지명	제의명칭	제의시기	제당명칭	제당형태	제당위치	전승여부	비고
연천읍 차탄 2리	군자산 산신제	음력4월	산신당	당집신목	군자산 중턱	현전	무당굿
연천읍 차탄 4리	산신제	음력10월		당집	햇골 마을	20년 전 단절	
전곡읍 늘목리	산신제	음력 3월	비뜰대왕당/우물당/상당	굿당	감악산 곰채골	현전	무당굿
전곡읍 간파리 (송산골)	산신제	음력 3월			송산골	현전	
전곡읍 간파리 (간패골)	산신제	음력 3월		돌무덤	간패골	10년 전 단절	
청산면 궁평리 (청송)	장승제	음력정월 13일	장승고개	장승	청송마을 옛 길목 장승고개	현전	마을제
청산면 대전리	종현산산신제	8월 2,3일	산신당		종현산	현전	
백학면 백령리	산신제	8월		제당터	마을 뒷산 중턱	6년 전 단절	
백학면 노곡 2리	산신제	봄		제당터	마을 앞산 아래	현전	
백학면 학곡리 (들말)	산신제	음력10월(4-5년)			산봉우리	현전	무당굿
신서면 나산리	산신제	음력9월 9일			보개산	현전	

17) ②궁평리 장승제 ~ ⑤ 군자산 산신제까지는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보고서』上(국립민속박물관, 2007.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지식에서 재인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② 궁평리 장승제: 궁평리 마을공동제의는 장승제 또는 장승고사라고 하며 매년 정월 대보름 오전 10~11시 사이에 진행된다. 궁평리 장승제는 1994년 연천문화원의 지역 문화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연천문화원의 지원에 힘입어 마을 부녀회에서 적극 호응하고, 노인회와 청년회 조직인 청송회의 의견이 모아져 6·25전쟁 이전에 장승이 있던 장소에서 제를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즉 궁평리 장승제는 1994년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했던 연천문화원의 권고와 잦은 화재의 발생 같은 마을의 궂은일을 막기 위한 주민의 의사가 합쳐서 이루어진 문화행사인 셈이다.
장승제를 지내는 곳은 신답리에서 장평리로 이어지는 장승배기로 불리는 고개 입구이다. 1994년 당시에는 나무장승을 구입하여 고개 왼편에 단을 조성하여 왼쪽에 천하대장군, 오른쪽에 지하여장군을 세웠다. 이후 나무장승이 비바람에 썩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 동네 유학계(상여계)의 기금으로 돌장승을 구입하여 다시 세웠다. 2004년 돌장승은 현재의 자리로 옮겨서 세웠는데 높이 180센티미터, 둘레 93센티미터이며 제단은 가로 2.5미터, 세로 3미터이다.
동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노인회원 중 신망이 높고 점잖으며 그날의 일진을 가려 생기복덕이 있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관은 선출된 날부터 금기를 지킨다. 동제에 소용되는 비용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마을자치기구인 청송회에서 마련한다. 제물은 청송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부녀회원들이 연천 장에서 제수를 사서 복지관에서 준비한다. 제물을 일반 제사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과거에는 당, 숙주나물, 고사리, 육적, 두부전 같은 다양한 제물을 사용했으나 요즘은 간소하게 차리는 편이다. 대개 제사에 꼭 필요한 삼색과실과 포, 떡 1시루가 차려지며 북어와 실 꾸러미, 팥이 놓인다. 팥은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북어와 실 꾸러미, 팥이 놓이는 것은 다른 지역의 마을고사와 다른 점이다. 제주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주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동제가 끝나면 음식을 복지관으로 옮겨 부녀회원이 청송회의 지원을 받아 준비한 음식으로 노인들을 대접한다.
궁평리 장승제 제일은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요일로 잡기도 한다. 제일의 선택은 노인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청송회에서 결정하여 노인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일 당일에 청송회에서 장승 앞 제당으로 제물을 옮긴 후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이때 풍물패가 장승 주위에서 부정을 물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뒤 제관이 도착하면 제를 올리기 시작한다. 제관이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먼저 술잔을 제단 주위에 뿌려 고수레를 한다. 이어 제관이 분향하고 술잔을 올린 후 재배한다. 제관과 노인회장이 엎드려 절을 하는 상태에서 유림회장이 축문을 읽는다. 그 후 제관이 절을 2번 하고 다시 술잔을 올린다. 이때는 제당에 모인 주민 전체가 절을 올린다.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장승제에서 잔을 올릴 수 있으며, 제가 끝나면 제상에 놓였던 북어를 실 꾸러미를 이용하여 장승 허리에 매달아 놓는다. 이는 마을에 들어오는 악귀를 막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제관이 술을 제단 주위에 뿌려 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장승제에 모인 주민들이 밤과 대추를 안주로 음복한다. 풍물패는 제단 앞에 모여 절을 하고 풍물을 잡으며 제단을 3바퀴 돌다가 다시 장승 앞에서 흥을 돋운다. 이후 복지관 주변의 집을 찾아다니며 축원을 해준다. 장승제가 끝나면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벌어진다. 경로잔치가 끝나면 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윷놀이가 벌어진다. 이때 부녀회와 청년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한다.

③ 신답리 산제사: 신답리의 동제사는 산제사 또는 산치성이라 하며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옛날부터 전해온다고 하며 일제강점기에도 동제를 지냈다고 한다. 신답리에서는 10여 년 전까지 산제사 이외에 3년마다 인근 큰 무당이나 박수를 불러 400~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대동굿을 크게 했다. 무당이 사망하고 시대가 변모하여 현재는 산제사만 간단하게 올리게 되었다. 신답리 산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복술가이다. 신답리 산제사는 마을의 오래된 전통으로 기독교를 믿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마을 주민들에게 거의 거부감이 없다. 주민들은 마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산제사 지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제당은 마을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 길 옆 소나무 숲에 있다. 당목은 특별히 없고 숲 전체가 제당의 구실을 한다. 숲 가운데 둘레 4미터, 높이 3미터 정도의 터줏가리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터줏가리는 매년 정월 열나흗날 묵은 이엉을 갈아주고 자시(子時) 무렵에 제를 올린다. 동제사의 준비는 먼저 산제사 전인 정월 열흘 무렵에 마을회의를 열어 산제사 절차를 논의한다. 이장은 산제사에 대한 절차를 논의한 다음, 산제사를 주관할 상하주와 중하주의 선정을 마을 원로에게 의뢰한다. 이때 뽑힌 상하주는 산제사에 쓰일 제수를 마련하고 중하주는 산제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준비를 맡는다. 이들은 산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부정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금기를 지킨다.

신답리의 산제사에 꼭 쓰이는 제물은 쇠간인데, 이는 관습으로 써 왔다고 한다. 상하주는 산제사 사흘 전에 작은 옹기항아리에 술을 담아 제단 터줏가리 옆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하루 전에는 연천장에 나가 부인과 함께 제수거리를 마련한다. 제수는 사과, 배, 감, 대추, 밤 같은 오색실과와 떡을 준비한다. 10여 년 전까지 3년 마다 큰 규모의 동제를 지낼 때는 통돼지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제사의 규모가 간소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제일 당일에 상하주와 중하주의 부인이 제물을 제당으로 옮긴다. 여자들은 제물을 옮기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고 산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일절 제당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 산제사를 지낼 시간이 가까워오면 상하주가 땅에 묻은 제주 항아리를 꺼내 제주를 준비한다. 걸러진 제주는 작은 주전자에 담아 제상 옆에 둔다. 10시 무렵, 상차림이 시작되며 상하주와 젊은이들이 교자상에 창호지를 깔고 진설한다. 축원을 할 마을 대표 원로을 제당으로 모셔 오면서 산제사가 시작된다. 신답리의 산제사는 정월 열나흗날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지내는 것이 관례이다. 상하주와 중하주가 상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떡시루에 씌운 종이를 벗긴다. 중하주가 잔을 3잔 올리고 절을 3번 한다. 그 후 대표 원로가 축문을 읽고 상하주와 중하주가 절을 3번 한다. 이후 원로가 경을 읊고 이때 중하주와 제관이 산제사를 위해 추렴을 해 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습자지로 소지종이를 마련한다. 원로가 제상 앞에 앉고 그 옆에서 이장이 한 명씩 이름과 간지를 일러준다. 원로는 이장이 불러주는 주민들에게 한 해의 무병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옆에서 제관들이 축원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소지종이를 태운다. 소지종이를 태우는 동안 이장과 마을 주민이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축원을 하며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이후 주민에 대한 축원이 끝나고, 제주를 터줏가리 주위에 뿌리고 음식을 조금씩 떼어 바가지에 담아 원로가 경을 읊으며 당 주위에 뿌린다. 그 뒤 상을 거두고 음식을 마을회관으로 옮겨 노인들에게 드린다.

④ 전곡읍 늘목리 산신제: 이 마을에서는 흔히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제당에 가는 것을 '노구메 드리러 간다'고 하거나 '산치성 드린다'고 한다. 제의는 음력 3월 7일 혹은 14일 등 7과 연결된 날로 '꽃피고 날 좋은 때'로 잡는다. 다만 이 날에 좋지 않은 일이 겹치게 되면 제일을 미루어 다른 좋은날로 잡아 제를 올린다.
현재 산신제를 올리는 곳은 감악산(하늘아래 첫 동네) 7부 능선에 자리 잡은 '곰채골 산신당'이다. 산의 완만한 경사가 끝나고 감악산의 험한 산줄기가 시작되는 골짜기로 이곳에서부터 계곡이 시작된다. 원래 곰채골 산신당은 감악산 정상에 있었던 것인데, 그 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마을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아 30년 전 (1970년대)에 이 곳 마을 이장인 채수호가 주동이 되어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재 곰채골에 자리 잡고 있는 제당에는 특별한 신체가 없으나, 감악산 정상에 제당이 있었을 때는 남서낭, 여서낭으로 불리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30년 전에 군인들이 이 느티나무로 밥을 해 먹고 눈과 팔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는 일화가 있다. 지금의 곰채골 산신당은 수직으로 선 바위가 연하여 병풍처럼 둘러 있는 곳으로 '우물당'이라 불리는 곳 이 외에는 바위가 모두 신체로 상징되어 있다. 감악산 정상에 있었던 당과 같이 비뜰대왕당, 우물당, 상당 등 3개의 제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속인들이 영험을 얻거나 신 내림을 받기 위해 안치한 여러 가지 신상과 인형, 오색천, 양초, 각종 제물들이 신당 주변을 꾸미고 있다. 감악산신령이 영험하다고 하여 산신제 외에도 내림굿이나 기타 굿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⑤ 연천읍 차탄2리 군자산 산신제: 군자산은 해발 327.8m로 연천읍 차탄리와 군남면 삼거리, 선곡리의 경계에 위치하며, 보개산 여맥에 있는 산이다. 연천읍에서 진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갖가지 형태의 산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 제의라기보다는 무당이 중심이 되는 무당굿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군자산 산신제'로 불리며 매년 음력 4월 20일에 행해지고 있다. 굿의 주무는 30대 중반에 내림굿을 한 서맹임 무녀로 1980년대 중반 전 당할머니의 현몽으로 군자산 중턱에 자리 잡고 제의를 행하고 있다.
당은 군자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드럼통으로 쪼개어 만든 한 평 남짓한 주실과 맛배형으로 스레이트 이중 지붕을 덧씌우고 사방이 트인 당집이 있다. 당집 왼쪽에는 위하는 나무, 즉 신목(서낭목)을 산체로 삼아 당할머니(군자산신할머니)를 좌정시키고 오색 천을 감아 두었다. 당 내부에는 흰 실타래를 걸쳐 놓은 바윗돌을 심체로 미륵장군을 모시고 있다. 산신제의 주무인 서보살의 꿈에 현몽하여 땅에서 꺼낸 돌을 미륵장군으로 모신 것이다. 당에는 '옥수'라고 부르는 샘물이 있다. 서보살의 집에는 현재 당할머니와 그녀를 보좌하는 구슬애기, 쌀애기씨 등의 화상을 모시고 있다. 모두 신탁을 받아 그린 것으로 그녀의 집 안방에 개인 굿단을 꾸미고 함께 걸어두었다.
연천 지역의 마을 신앙은 타 지역에 비해 산신 신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연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 신앙은 이러한 경기 지역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산신제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마을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8개 마을 중 1곳만 제외하고 모두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이다. 산신제는 마을 가까이에서 마을을 감싸주는 산의 신을 위하여 제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민족의 산신숭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 의식이다. 더구나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연천 지역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천지역의 마을 신앙은 다른 경기지역 마을 신앙보다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것

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휴전선 접경 구역이 군사 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제당 등의 신성처가 있는 산정 등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묶이고, 북한 지역이었던 수복 지구는 대부분 유이민에 의해 마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민속 신앙이 일찍 사라졌고 현전하는 마을의 경우도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5) 민요

첫째, 민요권에 있어서 '하나'권의 '허나기로고나' 지대에 속한다. 전국의 모심는 소리 중에 경기도는 '하나'류에 속하며, 하나 류는 남부 경기의 '여기도 하나' 형, 중부 경기도의 열소리, 서북부 경기도의 '허나기로고나'형 및 혼합형으로 나뉜다. 허나기로고나 형은 황해도 연백평야가 본고장이라고 가창자들 간에 일컬어진다. 경기도에서는 본군 전 읍면과 서북부 포천시, 파주시 일부지역, 양주군 일부, 김포군 일부, 강화군 일부 지역에서 수집된다.

둘째, 논은 일반적으로 두 번을 매되 애벌을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훔친다. 세벌을 매기도 하지만 피사리 겸해서 대충 손으로 훔친다. 논맴소리에는 파연형의 논김 양산도와 방아소리류, 방아타령, 에넬넬 상사도야, 몬돌소리, 우야훨훨 및 던지류가 있다. 그 밖에 일반 양산도나 개성 난봉가 곡을 원용하여 부르는 예도 있다.

셋째, 헤이리소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헤이리소리는 '서산나무꾼소리'라고도 일컫는 경쾌하고 흥겨운 곡이다. 이웃한 파주시와 양주군 및 고양시에서 불리우는데, 연천군에서는 녹음할 수 없었다.

넷째, 풀나무 깎는 소리가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울어리 놀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풍속이 있다는 사실이다. 풀나무를 깎고 산을 내려 올 때는 나무를 얽어매서 만든 남녀(걸채)에 일꾼 중의 연장자를 태우고 남녀소리를 한다. 품앗이한 집까지 와서는 닭장으로 가서 닭을 비틀어 잡아 잔칫상에 올리는 한편, 마당을 돌며 노는 풍속이 미산면과 중면 및 황해도 해주 출신의 가창자들로부터 확인된다. 미산면에서는 마당노리를 할 때 동계타령을 부르기도 한다.

여섯째, 저리소 모는 지대에 속한다. 소 2마리로 밭갈이를 하며 부르는 '저리소 모는 소리'는 강원도가 가장 발달되었지만, 본군과 파주시의 적성면, 장단군 및 동부 경기도의 강원도 영향권에서도 발견된다.

일곱째, 매우 드문 '돌꼇 돌리는 노래'가 가창되었다.

여덟째, 집터 다짐 소리로는 경기도 소리인 지경류만 가창된다.

아홉째, 다리헤는놀이 동요로는 '한알대 두알대'류가 나온다. 애기 어루는 소리엔 '불아'류가 있다. 드문 소리에 속하는 굼베타령과 손가락놀이를 하면서 하는 소리도 수집되었다. '마누라'와 '자란 자식은 밥달라고', 가창자가 '옛'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이름한 '옛 흥타령'과 '옛 청춘가'도 수집되었다. 연천 토민들이 즐겨 불렀던 흥민요로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한강수타령, 박연폭포 등이 있다.

열 번째, 상부소리의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군의 행상소리로는 일반적으로 어거리넘차류(두마디 소리)와 잦은 소리류가 있다. 잦은소리에는 한마디 소리("오호 오호")인 경우와 받음소리로만 양켠이 교대로 가창(짝소리)하기도 한다.

열 한번째, 민용 종별에 있어서 본군 출신자의 보유 민요는 강을 소재로 한 노래들을 찾기 어려웠다. 타작소리 등 수확요가 발견되지 않으며 모찌는 소리는 원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열 두번째, 음조직을 보면, 황해도가 원산인 허나기로고나는 서도소리적인 창법의 영향을

받아, 경기도의 솔선법에 비해 미선법 계열(도선법 포함)이 우세를 보이며 기음 종지보다는 가음의 4도 윗음 종지가 지배적이다.

6) 무가

연천의 무속 양상은 마을민의 대동단결을 모색하고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굿과 가족 성원들의 명복을 기원하거나 병환을 퇴치하고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집안굿이 성행했었다. 이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마을굿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내용이 최소화되거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마을굿과는 달리 집안굿은 아직도 활기를 띠고 있는 편이다. 그중에서도 오늘날까지 지방색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굿으로는 호사굿과 수왕굿을 들 수 있다.

연천굿의 짜임새는 열두 거리 굿으로 되어 있다. 굿을 하는 중간 중간에 무관 서기를 곁들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야 최소 3일은 걸렸으나, 요즈음은 당일 굿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천굿에서는 크게 치는 굿거리로는 부정거리, 칠성거리, 별상거리, 장군거리, 걸립거리 등이며, 그 중에서도 별상거리를 제일 중요하게 친다. 이 지역의 무당들이 별상신의 영험력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굿을 하기 전에 마당에서 행하는 행추물림과 불신을 놀리는 부살거리이다.

연천굿은 분명히 지역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춤, 소리, 장단, 짜임새 등을 보면 황해도 굿과 서울굿을 버무려 놓은 듯 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천 무당들은 연천의 굿을 얼치기 굿, 걸치기 굿, 또는 튀굿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연천굿의 대표적인 춤은 노랑춤(놀랑춤 또는 노장춤), 왼쪽으로 도는 맴돌이(연풍대), 그리고 막춤이다.

연천군 일대에는 많은 만신들이 무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지역에서 옛 문서를 가지고 옛날식의 연천굿을 하고 있는 무당은 거의 없어지고, 서울식으로 굿을 하는 무당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본군 내에 옛 문서를 가지고 있는 무당은 강께만신 장롱희(1923년 생, 여)와 백석리 만신 김봉순(1919년생, 여)이 있다.그 다음 세대로서 미량엄마(연천읍 거주), 전곡 거추의 구호주택무당(오락실무당, 1928년생, 여), 의정부 만신(백석리 만신의 신딸, 1931년 생, 여)과 연천에서 무업을 하다가 근래에 동두천으로 이주한 장박수(1926년생) 등이 있다.

(2) 문화재

1) 연천의 지정문화재 현황

연천군의 지정문화재는 전체 23건에 달한다. 그 중 국가 지정문화재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포함하여 숭의전, 경순왕릉, 물거미 서식지 등 4건이다. 도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2건과 기념물 5건을 합하여 7건이며, 군 지정은 향토유적 9건과 무형문화재 2건 등 모두 11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자료 4건이 있다. 연천군의 지정문화재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8)]

---

18) 이하의 내용은 온라인 문화재청(http://www.cha.go.kr)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표 13 <연천군의 지정문화재 현황>

구분	종목	문화재명
사적	223호	연천 숭의전지
	244호	연천 경순왕릉
	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467호	연천 호로고루
	468호	연천 당포성
	469호	연천 은대리성
천연기념물	412호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경기도 문화재	131호	오봉사지부도
	138호	연천심원사지부도군
경기도 기념물	51호	정발장군묘
	110호	박진장군묘
	146호	연천삼곶리돌무지무덤
	158호	연천학곡리고인돌
	184호	미수허목묘역
	208호	연천차탄리고인돌
	209호	연천양원리고인돌
	210호	연천신답리고분
	212호	연천학곡리적석총
	213호	연천심원사지
경기도 문화재 자료	52호	연천 통현리 지석묘
	137호	평정공 윤호 신도비
경기도 등록 문화재	45호	연천역 급수탑
	408호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도표에서 보듯 연천에는 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어 문화 관광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는 2.3.2 연천의 지질과 생태에서 다룬 바 있다. 또한 신답리 고분군과 통현리 지석묘의 경우 3.3 현지조사 자료에서 각각 신답리와 통현리 편에서 살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문화재

① 연천 숭의전지(미산면 숭의전로 382-27):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숭의전이 있던 자리이다. 태조 이성계는 1397년에 고려 태조 왕건의 전각을 세웠고 정종 원년(1399)에는 태조 외에 고려의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충경왕), 충렬왕, 공민왕의 제사를 지냈다. 그후 세종 5년(1423), 문종 2년(1452)에 고쳐지었다. 문종 때는 전대의 왕조를 예우하여 '숭의전'이라 이름 짓고, 고려왕조 4왕인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시고 고려의 충신 15명을 함께 제사지내게 하였다. 건물의 관리도

고려왕조의 후손에게 맡겼는데 이것은 조선왕조가 고려 유민을 무마하여 왕족의 불평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가 이를 계승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전각이 소실되었다. 완강하게 조선을 거부하였던, 고려시대의 왕씨 문중들이 갖가지 설움을 억누르면서 옛 고려왕조를 사모한 충절이 깃들인 곳이다.

② 경순왕릉(장남면 고랑포리 산18-2번지): 신라 56대 마지막왕인 경순왕(재위 927~935)의 무덤이다. 927년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놀다 견훤의 습격을 받아 시해된 후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전쟁으로 인해 백성이 많은 피해를 입자 군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935년 평화적으로 신라를 고려에 넘겨주고 왕위를 물러난 신라 마지막 왕이다. 무덤의 높이는 약 3m, 지름 7m의 둥글게 흙을 쌓아올린 원형 봉토무덤으로 판석을 이용해 둘레돌을 돌렸다. 고려시대 왕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담장인 곡장이 둘려져 있어 고려 왕실에서 왕의 예로서 무덤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에 있다.

③ 전곡리 선사유적(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우리나라 구석기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은, 1978년 4월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 왔던 당시 동두천 주둔 미군 병사인 그렉보웬(BoWen,G. 고고학 전공)이 지표에서 4점의 석기를 우연히 채집하여 서울대학교 고의 김원룡 교수에게 알림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구석기 유적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유적은 전곡시가지 남쪽, 한탄강이 감싸고도는 현무암지대 위에 분포하고 있는데 경기변성암류인 편마암과 화강암이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되어 지질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이 암반층 위에는 신생대 4기 철원·평강에서 60만년 전후와 30만년 전후에 각각 분출하여 굳은 용암이 전곡 현무암층을 이루며 구석기문화층이 있는 적색점토 퇴적층과 사질층의 암반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시된 여러 차례의 학술발굴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알려진 전곡리 유적의 상대편년은 중국 뤄촨뢰스층의 적색토대와 연결되는 약 18~21만년 전 사이의 형성연대와, 퇴적층의 발열형광법에 의하여 얻어진 약 4만5천 년 내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들은 1970년대 말까지 이러한 석기의 존재 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구석기 문화를 2분 하던 뫼비우스의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로 세계구석기학계의 고인류의 문화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구석기 공작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반도 내에서는 빈약한 전기 구석기 공작 이해에 풍부하고도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부홍적세 동안 고인류의 서식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전곡리 유적 조사를 계기로 한탄강, 임진강 유역에 대한 4기 지질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적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이 제고됨으로써 구석기연구의 방법론 발달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19)]

④ 호로고루(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호로고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효종 7년(1656)

19) 전곡리 선사유적은 발굴 당시의 상황과 발굴의 의의가 보다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연천군지』(연천군지증보편찬위원회 편, 2001)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에 편찬된『동국여지도』이며 이 책에는 호로고루가 삼국시대의 유적임이 명시되어 있고 최초의 학술조사 기록은 1919년에 발간된『조선고적조사보고』이다. 이 보고서에는 도면과 함께 사진을 싣고 있으며 삼국시대 성으로서의 중요성이 기술되어 있다. 그 후 1991년부터 2003년 사이 본격적인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의 형태는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접한 현무암 천연절벽의 수직단애 위에 있는 삼각형의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이다. 성벽의 전체둘레는 성의 가장자리를 따라 재었을 때, 약 400여m이고, 그 중 남벽은 161.9m, 북벽은 146m이며, 동벽은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93m이고 성내부는 전체적으로 해발 22m, 성벽 최정상부는 30m 정도이다. 성벽 중 가장 높은 동벽 정상부와 서쪽 끝부분에는 장대(將臺)가 설치되었으며, 성으로 진입하는 문지는 동벽 남쪽을 제외하고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호로고루는 연천당포성, 연천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⑤ 당포성(미산면 동이리 788):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당포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으나 허목의『기언별집(記言別集)』에 “마전 앞의 언덕 강벽 위에 옛 진루가 있었는데 그 위에 총사(叢祠)가 있고, 그 앞의 나루를 당포라고 한다. 큰 우물이 흘러 진로가 소통된다.”라고 당포성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그 후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추측된다.
당포성은 현재 전곡읍의 서북쪽 임진강 북안과 그 지류에 형성된 천연 절벽을 이용하여 축조한 평지성이다. 서쪽 부분이 뾰족한 모양인 삼각형 형태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가로막아 쌓은 동쪽 성벽은 매우 높게 구축되어 있으며 단애지대를 따라 구축된 남 · 북 성벽은 낮게 축조되었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변에 위치한 은대리성이나 호로고루와 매우 흡사하며 특히 축조방식은 호로고루와 매우 밀접하다. 서쪽 끝에서 동벽까지의 길이가 200m이며, 동벽의 길이는 50m, 전체둘레는 약 450m정도이다. 현재 잔존 성벽은 동벽 6m, 단면 기저부 39m정도이며 성내부로의 출입 때문에 동벽의 남단은 성벽이 일부 파괴되어 출입로가 만들어졌고, 북단의 경우에는 참호 건설로 인하여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천당포성은 연천호로고루, 연천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⑥ 은대리성(전곡읍 은대리 577): 연천은대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1995년도에 발간된『연천군사료집』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고구려 토기 일부가 발견되는 등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성으로 추측된다.
은대리성은 한탄강 장진천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삼각형의 하안단구 위에 축조된 성으로 한탄강과 합류하는 곳이 삼각형의 꼭짓점을 이루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지는 형태이다. 남벽과 북벽은 각각 단애를 활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지만 동벽은 동쪽에 형성된 개활지를 가로질러 축조되었다.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성은 현재 길이 약 60m정도 동벽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벽은 한탄강에 접하여 50~60m정도의 수

직단애에 축조되었고 북벽도 15~20m정도의 단애가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에 축조되었다.
외성의 전체 규모는 동서 400m, 남북 130m, 총길이 1,005m 정도이고, 현재 동벽에는 남쪽과 북쪽에서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내성의 총길이는 230m이며 외성과 유사한 삼각형의 평면형태로 축조되었고 내부 시설물로는 문지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치성 2개소가 확인되었다.
은대리성은 호로고루, 당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⑦ 오봉사지 부도(연천읍 고문리 산73-2번지): 부도는 승려의 무덤을 상징하여 그 유골이나 사리를 모셔두는 곳으로, 이 부도는 오봉사터에 자리잡고 있다. 오봉사는 신라 때 창건한 사찰로, 대규모를 이루었으나 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현재는 건물에 쓰였던 돌, 부도, 탑비만이 남아 절터를 지키고 있다.
부도는 직사각형의 바닥돌 위에 종모양을 한 탑신과 머리장식을 올렸다. 높이 2.5m, 둘레 4m로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크며, 응회석(凝灰石:화산 분출 때 나온 재나 모래가 엉겨 생겨난 암석)으로 만들었다. 바닥돌은 윗면에 1단의 받침을 두어 탑신을 올렸다. 탑신은 연꽃을 새겨 장식하였다. 꽃봉오리 모양을 한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탑신과 한 돌로 조각한 것으로, 이곳에도 연꽃무늬를 새겼다.
부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조각수법과 조형방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⑧ 심원사지 부도군(신서면 동내로970번길 32-268):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개산 심원사 터에는 모두 12기에 이르는 부도와 3기의 비가 자리하고 있다. 일제 때 발간된『심원사지(深源寺誌)』에 의하면, 1925년 심원사 동쪽에 있던 비와 부도 전부를 지금의 터로 옮겼다고 하나, 한국전쟁을 겪으며 파손 또는 밀반출되어 현재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곳에 있는 비와 부도의 주인공들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하던 제월당·취운당·풍담당·호연당·청하당·청심당 등 휴정의 법맥을 이은 승려들이다.
부도들은 8각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종모양도 섞여 있다. 8각을 한 부도들은 모두 지붕돌 윗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오른쪽 비 옆에 있는 종모양의 부도는 상태가 좋은 편이고, 기타 다른 몇 개의 부도들은 부재들이 서로 섞여 원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
3기의 비 중 부도밭 내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제월당 경헌대사비이다. 옆면에 안상(眼象)을 새긴 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운 후 구름과 용을 조각한 4각 지붕돌을 올렸다. 조선 인조 14년(1636) 8월에 세운 것으로, 현재 비문이 심하게 닳아 있다. 가장 왼쪽에 자리한 비는 취운당 대사비이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받침돌 삼아 그 위로 비몸을 세웠는데, 비몸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다. 효종 3년(1652) 8월에 세운 것으로, 앞면에 총탄의 흔적으로 일부가 파손되긴 하였으나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⑨ 정발 장군 묘(미산면 백석리 산34번지): 조선 중기의 무신 백운(白雲) 정발(1553~1592) 장군의 묘이다. 선조 12년(1579)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그 후 계속 벼슬에 올라 군비를 정비하고 병사를 훈련시키는데 힘썼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 침입한 왜군을 맞아 용감히 싸웠으나 성이 함락되고 장군도 전사하였다. 장군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으나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투구와 갑옷을 물고 와서 그것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며, 죽은 후에 좌찬성의 벼슬에 올랐다.
봉분은 하나이며 부인 풍천 임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돌로 만든 장명등(長明燈)이 있고, 좌우에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망주석(望柱石)과 무인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다. 송시열이 글을 지은 묘비가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없어졌고 1982년에 새로 만든 묘비가 봉분 우측에 세워져 있다.

⑩ 박진 장군 묘(백학면 두일리 산149-2번지):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과의 전투에서 큰 업적을 세운 의열공 박진(?～1597) 장군의 묘이다.
선조 22년(1589) 심수경의 천거로 등용되어 선전관을 거쳐, 선조 25년(1592) 밀양부사가 되었다. 이해 4월 왜적이 침입하여 부산·동래 등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싸우다 포위되자 밀양부를 소각하고 후퇴하였다. 이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나머지 병사를 모으고, 별장 권응수를 파견하여 영천의 의병을 지휘하게 하여 영천성을 탈환하였다. 이어서 안강에서 16개읍의 병력을 모아 경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한 달 뒤에 군사를 재정비하여 경주성을 다시 공략하여 성을 탈환하였다. 선조 26년(1593) 독포사가 되어 밀양·울산 등의 싸움에서 이겼고, 경상우도·전라도·황해도 등의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뒤에 참판에 이르렀다.
묘역은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 묘 앞에는 묘비를 받치는 사각형의 기대만이 남아 있으며, 그 앞으로 상석과 근래에 설치한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이 있다. 묘의 오른쪽에는 1987년에 후손이 건립한 묘비가 세워져 있다.

⑪ 삼곶리 돌무지 무덤(중면 삼곶리 421번지): 임진강변의 발달한 계단식 충적지대에 있는 대형 돌무지무덤(적석총)으로 발굴조사 전에는 '방파제' 또는 '애기무덤'으로 전해왔다.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땅을 편평하게 정리한 다음 그 위에 한두 겹의 자갈돌을 깔아 무덤터를 마련하였다. 동·서 2개의 무덤은 덧붙여지어진 쌍분으로 평면형태가 표주박형에 가깝다. 무덤 북쪽에는 제단 시설로 생각되는 무덤 지역이 있다. 덧널(곽) 안에서는 사람뼈 조각, 쇠로 만든 화살촉, 구슬들이 나왔고 그 주변에서 토기조각과 숫돌들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무덤의 양식이나 유물로 보아 이 무덤은 백제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은 고대 무덤양식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백제의 영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⑫ 학곡리 고인돌 무덤(백학면 노아로 236-6):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이 주변에는 여러 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많은 수가 파괴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은 편이다. 덮개돌의 길이가 2.7m이고 받침돌은 약 2m쯤 되는데 4개의 받침돌 중 현재는 2

개만 남아 있다.
덮개돌 윗면에는 8개 정도의 알구멍<성혈(性穴)>이 파여 있는데,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풍년을 빌거나 자식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학곡리의 사람들은 마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서 동네굿을 벌이는데, 이와 같이 고인돌은 민간신앙과도 연결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⑬ 미수 허목묘역(왕징면 강서리): 미수허목묘역은 민통선 내에 있는데 묘역은 안월천을 건너는 강서 5교를 지나 북쪽으로 300m 정도 직진하면 좌측의 능선 해발 100m에 위치한다. 선조인 허자의 묘와 약 10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미수허목묘는 동남향한 나지막한 구릉 상에 6기의 묘 가운데 제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위에는 부인 전주이씨의 묘가 있다.
허목(許穆)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서예가이다. 허목의 자는 문보(文父), 화보(和甫)이며, 호는 미수, 본관은 양천이다. 1595년 연천현감 허교의 아들로 출생하여 1615년(광해군 7년) 정언웅에게서 글을 배우고, 1617년 부(父)가 거창현감에 임명되자 부친을 따라가서 문위(文緯)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다. 1624년(인조2년) 광주의 우천에 살면서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고전팔분체(古篆八分體)를 완성하였다. 이는 독특한 전서체로 우리나라 서예사에 있어 혁명적인 업적으로 평가되며 후기 추사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1657년 정계생활을 시작, 1674년(현종 15년)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삼공에 올랐다. 1678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인 연천으로 돌아와 저서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남명 조식의 제자인 정구를 스승으로 삼아 제자백가와 경서의 연구에 전심, 특히 예학과 고학에 일가견을 이루었으며 그림, 글씨, 문장에 모두 능하였다. 효종 사후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 송시열과의 예송논쟁으로 유명하며, 사후에 문정이란 시호를 받았다.

⑭ 평정공윤호신도비(미산면 아미리): 평정공 윤호(1424~1496)의 신도비는 도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남서향하여 위치한다. 신도비는 조각 기법이 탁월하여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건립 당시 비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 전쟁 중에 전소되어 4개의 주춧돌만 남아 있다. 신도비의 비좌는 백색 화강암으로 전후 9엽, 좌우 4엽씩 복련문이 있다. 비신의 전면에만 비문이 있는데, 한국전쟁 때 입은 수많은 탄흔으로 판독은 불가능하다. 이수는 검게 산화되어 있으나 운문속에 입을 벌려 혀를 널름거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매서운 눈, 턱 밑의 수염과 발톱이 세 개인 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신도비 아래에는 하마비가 있다.

⑮ 연천역 급수탑(연천읍 차탄2리): 이 시설물은 경원선을 운행하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급수탑으로, 현재 상자형과 원통형 2기가 남아 있다. 상자형 급수탑은 콘크리트조로 기단, 벽체부, 지붕부 3단으로 입면을 형성하였으며, 아치형 출입구를 두었고, 외관에 줄눈을 그려 조적조인 것처럼 구성하였다. 원통형 급수탑에는 급수관 3개와 기계장치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탑 외부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다. 1950년대 디젤기관차가 등장하여 제 기능을 다하고 사라졌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증기기관차 관련 철도 시설물로 가치가 높다.

3) 문화재

지정 문화재는 아니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연천의 문화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0]

① 군자산성(연천읍 읍내리): 군자산은 연천현의 진산으로 그 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으면서 동서교통을 차단하고 있다. 동쪽에는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넓은 평야 지역이 차탄천변에 조선되어 있고, 서쪽은 임진강변에 넓은 퇴적지가 있다.

군자산성은 주봉인 군자산의 9부 능선을 따라 돌아가며 쌓은 테뫼식의 석춘산성이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성벽은 정상부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표주박형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장이었고 수복 후에는 군부대에서 진지 및 도로를 개설하면서 심하게 파손되어 현재 완형으로 남아있는 성벽은 찾아 볼 수 없다. 성의 동벽은 경사가 급한 자연 절벽을 이용하여 정상부에만 축조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3면의 성벽은 능선의 굴곡을 따라 많은 양의 자연석을 운반하여 견고하게 축성했던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있다. 특히 성을 일주하기 위해 개설된 군사용 도로에서 10m 아래의 능선을 따라 쌓은 서벽에서는 6~8m 가량의 붕괴된 성 돌이 성의 남벽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정되는 성의 전체 둘레는 약 600정도 이고, 서벽의 석축은 200m가량확인 되었으며 동고서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정상부를 올라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군부대 막사 주위의 평탄면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는 것을 보아 이 부근 일대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전까지 정상부에 있었다는 성황당과 큰 우물은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해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수습되는 유물은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와편, 토기와 자기편 등이 있으나, 신라 계통의 선조문이 타날 된 와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회백색 연질, 회청색 경질토기 편들도 건물지 주위에서 채집되고 있다. 또한 고려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구연부가 깨진 상감청자 접시편, 격자문이 타날 된 경질토기편, 조선시대 백자편 등도 소량 수습되었다.

군자산성은 출토유물과 축조형태로 보아 6세기경 임진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신라에 의해 3번 국도와 중면의 임진강을 따라 남하하는 북쪽 세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더 이상 관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성황당, 기우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② 늘목리보루(전곡읍 늘목1리):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감악산 늘목동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감악산 북쪽 능선의 봉우리 정상 약(410m)에 있는 봉수지로, 일명 '봉화터'라고도 불려지고 곳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연천군 남부 전역과 파주시 적성면의 일부가 한눈에 펼쳐진다.

현재 이곳은 둘레 25m 정도의 석축단이 구축되어 있다. 동서의 폭은 640cm이고, 남북의 폭은 570cm정도이며 높이는 140cm이다. 동남벽은 자연 암반 위에 100*30cm, 60cm*13cm, 20*12cm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수직에 가깝게 180cm높이를 조밀하지 않게 10단을 쌓았다. 남아 있는 석축변의 길이는 5m이다. 북벽은 같은 양식으로 6단을 쌓

20) 이하의 내용은『연천군지』상(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01)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아 올렸고 높이 1m 길이 5m가 남아 있으나 윗부분은 무너진 상태이다. 정상부의 남쪽에는 직경 2m, 깊이 1m 정도의 함몰부가 있다.
현재 유적 주변에서는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 유적은 봉수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앙 유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③ 통현점: 연천읍 통현리 통재 부근에 있었던 점막이다. 고종 대에 제작된 연천현 지도에 표기된 점막으로서 가사평을 통과하여 차탄천을 건너 연천으로 들어가기 전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꼭 필요한 휴식처였을 것이다. 의정부 쪽에서 대탄을 건너면 가사평이 나온다.
가사평은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 있는 평야 지대로, 하상퇴적 점토층으로 이루어져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에는 인마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고 미끄러워 통현리까지 20리 벌판길을 통과하게 되면 기운이 다 빠지고 탈진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는 이 가사평의 유래에 대하여 “가사평은 현 남쪽 십리 지점에 있는데 봄과 여름에는 진흙으로 인해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이다. 예전에 어떤 중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자 입고 있던 가사를 벗어버리고 갔다 하여 ’가사평‘으로 부른 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④ 징파도: 현재 왕징면 북삼리와 군남면 삼거리를 이어주는 북삼교 가설 전에 있던 임진강의 큰 나루터이다. 정약용의 <대동수경> 권8에 의하면 “이 곳의 강물은 강바닥의 자갈이 훤하게 비칠 정도로 물 빛깔이 맑다 하여 징파강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사>오행지에 의하면 우왕 11년(1385) 징파강에 누렇게 흐린 물이 3일 동안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 고려 멸망의 징조를 미리 예견하는 일도 있었다 한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함경도를 연결해 주는 대로가 이 나루로 연결되었고, 북삼리 마을에는 둔밭이 있었다 하여 ‘둔밭나루’로도 불리워지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시욱진은 북강 삭녕로에 있으며, 옛날에는 ‘징파도’라 하였다. 서쪽으로는 장경석벽이 보이고, 동남쪽은 석저협구로 되어 있고, 암벽 위에는 도영암이 있고 그 아래에는 장군탄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웅연석애로 되어 있는데 석문이서를 보면 강은 석린 석묵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징파도는 마전군 동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삭녕군 삭녕도 아래에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의 <연천군읍지>에서는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횡강에서 웅연으로 흐르며, 이 도는 마전 양주에 이르러 대탄에 합류된다. 도감포와 징파도에는 고려시대 동북대로의 진이 있었다. ‘승(丞)’이라고 이르는 것이 역시 진부위전이다”라고 하였다.

⑤ 고량진: 가운데 고랑포와 윗 고랑포 사이에 있었던 임진강 나루터로 파주시 적성면 징좌리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옛 문헌에는 ‘고랑도(鞏浪渡)’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임진강 일대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의 하나이며, 또한 서해안에서 조류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조기, 새우젓, 소금배들이 장단의 대표적 특산물이었던 장단배태, 땔감, 곡물 등을 교역하였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 지역 농특산물의 집하장 역할을 하여 상권 형성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고랑포 나루터에는 한국전쟁의 참화로 인하여 예전의 번성했던 자취는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무성하게 우거진 갈대숲만이 옛 나루의 명성을 대신하고 있다.

⑥ 화이트교(왕징면 무등리): 무등리과 군남면 진상리를 연결해 주는 임진강의 다리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곡읍을 탈환하고 개성 방향으로 진격하던 유엔군이 이곳 임진강에 당도해 보니, 인력과 장비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도하 작전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당시 미군 공병대대에 있던 화이트(White)소령이 급조 형태의 나무다리를 놓아 '화이트교'라 칭한 것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당시의 다리 형태는 통나무 교각에 나무판자를 깐 좁은 교폭이었으나, 1970년 지금의 잠수교 형태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하였다. 이 다리는 여름 우기 때 임진강이 크게 범람하면 북한 측에서 다리를 유실시킬 목적으로 큰 통나무 등을 떠내려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리 교각 앞에 철조 구조물을 세웠고, 다리가 물속에 잠길 경우에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하여 난간을 세우지 않았다. 최근에 이 다리 남쪽에 큰 다리인 임진교가 새로 건립되었다.

2.2.4 연천의 인물

(1) 중기 이전의 인물

1) (1357~140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백보(伯父), 호는 통정(通亭)이다. 정당문학 군보(君寶)의 손자이며, 문하찬성사 시(蓍)의 아들이다. 허목(許穆)의 외손자이다. 그의 가문은 원래 진주의 토성 사족이었으나 일찍이 상경종사 하여 연천지역에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였다. 권근(權近)의 문인으로 1376년(우왕2)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균좨주를 거쳐 밀직사의 제학, 첨서사사를 역임하였다. 외교 관계로 명에 자주 오갔는데 1388년 창왕(昌王) 즉위 시에는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와 함께 명을 다녀오기도 했다. 창왕을 폐할 때 공이 있어 1389년 공양왕 즉위 시에는 추충협보공신이 되었고, 세자사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이어 판밀직사사에 이조판서를 겸임하였다. 이때 불교를 배척하고, 한양 천도를 중지하게 하는 데 앞장섰다. 이어 교주, 강릉도도관찰출척사로 나갔다가 다시 정당문학 겸 사헌부대사헌이 되었다. 정몽주의 편에서 조준, 정도전 등을 탄핵하였는데 1392년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살해당하자 정치적 입장이 어렵게 되었던 관계로 이성계 파의 누밖에 나서 진양에 유배되었다. 공양왕이 폐위될 때 동생 회계가 회빈문 밖에서 참형을 당했지만 연좌되는 고비는 넘겼다. 조선 태조가 인망이 있다 하여 상중에 있는 그를 계림윤에 임명했고, 1298년(태조 7)에 동북면도순문사가 되었다. 천성이 궁달에 연연연하지 않고 희로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으며, 문장이 단려하였다. 문집으로 [통정집(通亭集)]이 있으며, 허목이 그를 위해 지은 <강정당유사(姜政當遺事)>가 있다.

2) 김양남(생몰년미상)

고려의 충신으로 전곡읍 고릉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강릉, 호는 일노정(逸老亭)이다. 고려 말 공조판서를 역임한 추(錐)의 아들이다.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고 특히 함께 등과한 이방원과 교우가 두터웠다. 그려가 망하자 전곡읍 은대 3리 반곡(현 음터)에 숨어 지내며 매일같이 한탄강 건너에 있는 산에 올라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을 향해 통곡하며 재배하였다. 후일 이러한 이유로 이 산을 국사봉이라 칭했다. 집 근처에 학소정(鶴巢亭)을 짓고 산수와 더불어 평생을 고려 신하로서 고결한 절의를 지키다 일생을 마쳤다. 태종의 그의 인품에 감동되어 지평을 제수

하는 등 여러 번의 부름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현재 고려 말 5충신을 모시는 의정부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되어 있다.

3) (생몰년 미상)

고려 말 충신으로 백학면 학곡리 미역골에 묘가 있다. 본관은 원주, 자는 문숙(文叔), 호는 휴헌(休軒)이다. 초휘(初諱)가 집(諿)이었는데, 공민왕이 훈(訓)자로 개명할 것을 명하여 그대로 고쳤다고 한다. 원천부원군 충의 증손이고, 판도판서 인의 차자이다.

성품이 곧고 교우에 법도가 있어 정몽주가 존경하였다고 한다. 공민왕 마년에 문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상호군이 되었고, 장흥부사에 임명되어 많은 치적을 올렸다. 이어 이방원과 같이 문과에 합격하여 우문관태학사, 문하시랑동평장사에 올랐다. 그러나 고려가 기울어짐을 보고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에 힘쓰던 중, 정몽주의 선죽교 피살 소식을 듣고 쓰고 있던 관을 찢어 버린 후 만수산 두문동으로 들어가 한 달간 지냈다. 그 후 지금의 학곡리 미역골로 이사하여 생업에 힘쓰며 날마다 개성이 바라보이는 산에 올라 거문고로 망국의 한을 달랬다. 후일 이러한 이유로 이산을 국사봉(國師峰)이라 불렀다. 태종이 옛 의리를 생각하여 이조판서로 등용코자 여러 차례 불렀으나, 신병을 빙자하여 응하지 않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켜 길재, 이승인, 이집, 원천석, 김자수 등과 대등하게 평가되고 있다. 많은 저서가 있었으나, 아들 인숭(仁崇)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 불태워 없앤 것으로 전해 온다.

4) 이양소(1367~?)

고려 말 충신으로 중면 적거리 신포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여건(汝建), 호는 금은(琴隱)이다.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사예 등을 역임했다. 젊어서 이방원(李芳遠)과 교분이 두터워 함께 곡산의 청룡사에서 공부도 했고, 성균관에서도 같이 수학했다. 조선 건국되자 연천에 낙향하여 현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숨어 지냈다. 태조가 여러 번 기용하려 했으나 두 왕조에서 벼슬할 수 없다 하며 거절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태종이 연천으로 거둥할 때 그가 와서 배알하여 몹시 기뻐했다고 한다. 이에 태종이 술을 권하면서 “추우반청인반취(秋雨半晴人半醉)”라고 시구를 짓자, 그가 대구를 맞추기를 “모운초권월초생(暮雲初捲月初生)”이라 하였다 한다. 태종이 옛날 공부하던 때를 생각하여 그를 황해도 곡산군수에 임명했는데, 소를 타고 부임한 뒤 사흘 만에 사직하고 다시 은둔하였다고 한다. 태종이 저택을 하사하여 기거토록 하였으나 거처하지 않고 스스로 숲속에 초가집을 지어 ‘안분당(安分堂)’이라 이름짓고 죽을 때까지 고려조에 대한 예를 다하였다. 임종 때에 스스로 명정(銘旌)에 ‘고려진사양소지구(高麗進士陽昭之柩)’라 쓰고 죽었다 한다. 이양소의 부음을 전해들은 태종은 ‘이 사람은 살아서는 그 마음을 굽이지 않았고, 죽어서는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하여 시호를 청화(淸華)로 내려주었으며 중면 적거리에 장사지내도록 하였다. 이양소는 고려조의 신하로서 끝까지 절개를 지켜 후세 사람들이 전곡읍 은대리에 은거했던 김양남과 조견, 남을진, 원천석 등과 함께 5처사로 부르던 인물 중의 1인이다.

5) 신호(생몰년 미상)

고려 말의 문신으로 미산면 유촌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집현전한림(集賢殿翰林) 혼의 아들이다. 1354년(공민왕 3)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사·우문관대제학을 역임하였으나, 1360년 조부인 집현전학사 군평(君平)이 관직에서 물러날 때 같이 사퇴하였다.

우왕이 즉위한 뒤에 집현전 한림 겸 직학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공양왕이 옹립된 후 1390(공양왕 2) 평소 교유가 두터웠던 정몽주의 권유로 조정에 나가 왕명을 출납하는 지신사가 되었으나, 2년 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역성혁명에 비분을 느껴 평산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로 생을 마쳤다. 태조가 즉위 초에 전리판서에 임명했으나 거절했다. 시호는 사간(思簡)이다.

6)　(생몰년 미상)

고려 왕족으로 본관은 개성이며 본명은 왕우지이다. 고려 현종의 원손(遠孫)으로 왕휴(王休)의 후취인 오씨의 소생 왕미(王美)의 아들이다. 고려가 망한 뒤 조선 왕조의 핍박을 피해 공주 왕촌(지금의 충남 공주시 상왕동 중동골(추정)에 성을 제씨로 바꾸고 숨어 살았다. 태조는 즉위 초(1392년)에 전왕조에 대한 예우를 천명하여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의 앙암사에 고려 태조의 동상을 모시고 고려조 8대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1451년(문종 원년)에는 건물을 수리하고 고려 16공신을 함께 배향토록 하였다. 이때 비로소 숭의전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문종은 교지를 내려 고려조의 제사를 받들 후손을 찾아 궁궐로 예우하여 들이도록 하였으나 모두 성을 바꾸고 숨어 살았기에 쉬이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 공주에서 숨어 살던 왕우지가 고려 왕족의 후손임이 알려지게 되자, 그를 도성으로 불러드려 왕순례로 개명하게 하고 이듬해인 1452년(단종 원년) 7월에 숭의전(崇義殿) 초대 부사(副使)에 책봉하여 고려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숭의전의 전감(殿監) 또는 참봉을 역임하였다. 미산면 아미리 잠두봉 아래에 묘가 있다.

7) 임계중(1481~154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연천읍 동막리 부물현에 묘가 있다. 본관은 곡성(谷城),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절당(晩節堂)이다. 중랑장 복룡(伏龍)의 증손이며, 교수 효원(孝源)의 아들이다.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과 교유하였다. 1507년(중종 2) 사마시에 김정국과 함께 합격하고, 1514년 문과명경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2월 『대학(大學)』을 강론하고 당시 효가 없음을 한탄, 반드시 3년상을 지켜야 한다고 왕에게 주장하였다. 이어 승문원의 저작을 시작으로 정자·박사·전적·병조·호조좌랑·지평·정언·헌납·교리·전한 등의 청요직을 거쳐 성균관 사성을 역임하였으며, 고양·양양·연안의 군수로 재임 시에는 많은 치적을 쌓았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 등 일파가 처벌되자 고향인 연천의 동막리로 내려와 뒤에 사액서원인 연천 임장서원 건립의 모태가 되는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주자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2)　중기 이후의 인물

1) 정발(1553~1592)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고(子固), 호는 백운(白雲). 판윤 지례(之櫐)의 고손으로, 할아버지는 돈녕부도정 세현(世賢)이고, 아버지는 군수 명선(明善)이며, 어머니는 관찰사 남숙(南淑)의 딸이다.

1579년(선조 1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곧바로 해남현감·거제현령이 되었다. 이어 비변사의 낭관이 되었으며, 위원군수·훈련원부정이 되었다. 1592년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품계에 올라 부산진첨절제사가 되어 방비에 힘썼다. 이 해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부

산에 상륙한 왜병을 맞아 분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그도 전사하였다. 이 때 첩 애향(愛香)은 자결하였고, 노(奴) 용월(龍月)도 전사하였다. 부산진 전투 후 장군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애마가 물고 온 갑옷과 투구로 고향인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에 의관장하였다. 부산진 전투 시 왜군에 종군한 네덜란드 선교사 프로이스는 '고려인들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귀히 여겨 거의 전사할 때까지 싸웠고 포로가 된 자는 소수였다.(중략) 마지막에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육탄전이 되었는데 정발장군도 총탄에 쓰러져 부산진성은 함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동래의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2)　(1560~1597)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백학면 두일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명보(明甫)이다. 병조판서에 추증된 인수(麟壽)의 장남이다. 24세에 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비변사에서 근무하다 심수경(沈守慶)의 천거로 1589년(선조 22)에 선전관이 되었다가, 1592년 고향인 밀양의 부사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력을 이끌고 작원에 진을 치고 적을 맞아 싸웠으나 패하였고, 밀양부의 중요 시설을 불태우고 후퇴하였다. 이후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나머지 군사를 수습하고 군사를 나누어 소규모의 전투를 수행하여 적의 예봉을 꺾었다. 8월 영천의 백성들이 정세아(鄭世雅), 조희익(曺希益) 등을 중심으로 의병을 결성하여 영천성의 왜병을 공격하려 하자 별장 권응수(權應銖)를 파견, 그들을 지휘하게 하여 성을 탈환하였다. 다시 안강에서 여러 장수들과 회동하고 열읍의 병력을 집결시켜 경주성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왜적 복병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한달 뒤 군사를 재정비하고 박의장(朴毅長)의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등을 실전에서 사용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편 결과 많은 수의 적병을 죽이고 경주성을 탈환하였다. 이 전과로 인해 왜적은 경주성을 근거지로 계획하였던 경상좌도 공략의 기본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좌도의 수십 개 읍이 왜적의 노략질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전공으로 선조로부터 양가죽으로 된 옷을 하사 받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선조가 그의 장재(將材)를 사랑하여 행재소(行在所)로 불러 올려 부원수로 임명하고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게 하려 했으나, 대신들이 영남 회복의 공과 지역 민심을 고려하여 불러 올려선 안된다고 반대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을 아는 몇 사람 안 되는 무장 중의 한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1593년에는 독포사(督捕使)로 울산·밀양 등지에서 공을 세우고 1594년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를 거쳤으며, 1596년에는 황주목사 겸 황해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참판의 벼슬까지 올랐다. 1597년 3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후일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지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의열(毅烈)이다

3) 허목(1595~1682)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대학자로 영남학파의 적통을 이어받은 근기 남인 학문의 연수이다. 본관은 양천, 자는 화보(化甫), 호는 미수(眉叟) 또는 대령노인이다. 별제 강(橿)의 손자이며, 서경덕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박지화의 문인인 현감 교의 아들이다. 그리고 찬성자에게는 증손이 되며, 영의정 이원익에게는 손서가 된다. 증조모는 양녕대군의 증손 증파수 종암의 딸이고 조모는 강희맹의 현속 강복의 딸이며, 어머니는 임제의 딸이다.

정언옹에게서 글을 배우다가 1617년(광해군9) 아버지가 거창현감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가서 문위를 사사하였는데, 그의 소개로 종형인 허우와 함께 정구를 찾아가 스승으로 섬겼고

이때 장현광의 문하에서도 배웠다. 1624년(인조 2) 공주의 자봉산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 쓰기에 전념하였는데 이때 전서에 일가를 이루었다. 1626년 박지계가 인조의 생부를 높이는 원종추숭론(元宗追崇論)을 주장하자, 당시 동학의 재임으로서 박지계가 임금에 영합하여 예(禮)를 혼란시킨다고 유벌을 가하였다. 이에 인조가 분노하여 그에게 정거의 벌을 내렸다. 후일 정거는 해제되었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자봉산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을 당하여 영동으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강릉, 원주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으며, 1638년 의령의 모의촌에서 살게 되었다. 1641년 사천으로 옮겼다가, 창원, 철원 등지를 전전하였다. 1646년 마침내 고향인 연천으로 환거하였다. 1650년(효종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릉참봉에 제수되어 벼슬길에 나섰으나 한달만에 사임하였다. 이듬해 내시교관, 조지서별좌, 공조좌랑을 역임하였고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치 않았다. 1657년 공조정랑에 이어 사헌부지평을 제수 받았으나 군덕과 정폐를 논하는 상소를 올리고 사임을 청하였다. 이에 사복시 주부로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9년 사헌부장령이 되어 군덕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송시열(宋時烈)이 주도하는 북벌 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는 <옥궤명>을 지어 바쳤다. 효종의 국상을 당해 상례를 논하는 상소를 올리고 장악원정에 제수되었으나 부임치 않았다.

1660년(현종 1)에는 경연에서 진강하였고, 다시 사헌부장령이 되어서는 효종의 국상에서 인조의 계비인 조새비의 복상 기간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상소를 올려 기해예송의 신호탄을 올렸다. 효종의 국상 당시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들은《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장자와 중자의 구별 없이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서인이 실제로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것은 의례의 주소에 체이부정, 즉 맏아들에 대한 복인 자최3년이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복제 논쟁으로 정국이 소란스러워지자 왕은 그를 삼척부사로 임명하여 외직으로 보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예론을 이론적으로 정비하였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당시까지 살아있던 조대비의 복상 기간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당시 서인 중심의 조정은 대공인 9개월 복을 정했는데, 이는《경국대전》의 맏며느리는 기년복, 중자의 처는 대공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효종을 중자로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 유생 도신징의 상소로 다시 기해복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신왕인 숙종은 분노하여 기해복제를 잘못이라 판정하고 대공복을 기년복으로 고치고 서인을 실각시켰다.

남인의 집권에 따라 대사헌을 제수 받았으나 사직소를 올렸고, 병이 나자 숙종은 어의를 보내어 병구완을 하였다. 1675년(숙종1)에 그는 이조참판, 비국당상과 귀후서제조를 거쳐 자헌대부가 되었고 의정부우참찬 겸 성균관좨주로 특진하였다.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었으니 과거를 거치지 않고 삼공의 지위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이해 덕원에 유배중인 송시열의 처벌 문제로 온건론을 주장하는 영의정 허적에 맞서 가혹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여 허정의 탁남에 대립, 청남의 영수가 되었다.

정책적 입장으로는 체부, 오가작통법, 지패법, 축성 등을 반대하였고, 차자를 올려 시폐를 논했다. 1676년 사임을 청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대비의 병환으로 예궐하였다. 특명으로 기로소당상이 되었는데, 과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기로소에 든 것은 특별한 경우였다. 이듬해 비변사를 폐지하고 북벌 준비를 위한 체부의 설치와 재정 보전책으로 호포법을 주장하는 윤후의 주장에 맞서 그 폐해를 논하며 반대하였다. 이듬해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인 연천에 돌아왔다.

1679년 허적의 전횡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사관을 보내

출사를 종용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했다. 그림과 문장에도 능했으며, 글씨도 좋았는데 특히 전서는 동방의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사후 6년이 지난 1688년 복관되고, 숙종은 예장의 명령을 내리고 승지를 보내 치제하였으며, 자손을 서용하도록 하고 문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마전의 미강서원, 나주의 미천서원, 창원의 희원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4)　　(1596~1637)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충신으로 연천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원로(元老), 호는 나재(懶齋)이다. 그의 가문은 인조 이후의 정치적 위세를 떨쳤던 대표적 가문들 중 하나였다. 1619년(광해군 11) 알성문과에 장원하였으나 시골에 은거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 후에 등용되어 1625년(인조 3) 홍문관 부수찬이 되고, 1627년 직강을 거쳐, 홍문관 교리·이조좌랑·좌부승지 등을 역임했다. 1633년 우승지가 되고, 1635년 대사간·부제학을 거쳐 1636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이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자모산성(慈母山城)을 지켰는데, 적병이 지름길로 이미 평양을 지났으며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근왕병 2,000명을 지휘하여 적병을 추격하였다. 김화(金化)에 이르러 적의 대병을 만났는데, 시자에게 노모와 결별하는 편지를 주어 보내고, 휘하 장병과 더불어 죽음을 결심하고 싸워 적병 수백 명을 죽인 뒤 전사하였다. 이때 선봉 유림(柳琳)과 이일원(李一元)이 끝까지 싸워 적을 물리쳤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자호란 때 승리한 전투는 이 싸움과 김준룡(金俊龍)의 광교 전투뿐이라고 했다. 훗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다시 좌의정에 증직되었다. 김화 사람들이 그가 순절한 터에 충렬사를 세웠는데 1652년(효종 3) 의열이라 사액되었으며, 이외에 여주의 기천서원, 평양의 충정서원, 자산의 의열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5) 남순하(1694~1776)

전곡읍 간파리(干坡里) 212번지에는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된 화려한 단청의 효자문이 있다. 이 효자문의 주인공 남순하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에 열중하여 인근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연로한 아버지가 병환중에 고사리국이 먹고 싶다고 하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눈 속을 헤매면서 고사리를 찾아다니다가 마침 지금의 전곡읍 간파리와 동두천시의 경계에 있는 마차 산의 양지바른 바위 밑에 탐스럽게 자란 고사리를 꺾어다가 국을 끓여 드려 병을 낫게 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부모님의 옷을 자신이 먼저 입어 자기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여 입혀 드리고, 겨울에도 아버지가 잉어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강에 나가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봉양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셨다. 결국 나라에서까지 이 사실을 알고 영조가 그가 사는 마을에 정려문을 세우도록 명하여 효자문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남순하는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3)　· 현대 인물

1) 연기우(? ~ 1914)

구한말의 의병장이다. 출생에 대해서는 연천출생설과 삭녕 출생설, 양주 출생설 등 확실치

않다.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 부교(副校)로서 근무 중이던 1907년 8월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자 비분 강개하여 부하를 이끌고 무장봉기를 감행하였다.
1909년 13도창의대장 이인영(李麟榮)의 휘하에 합류, 대대장으로 서울 진격을 하다가 패하고 양주(楊州)에서 창의 한북(韓北)대장이 되어 다시 의병을 이끌고 연천(漣川)·이천(利川)·안협(安峽) 등에서 역전하였다. 군율이 엄하고 민폐가 없어 백성의 환영을 받았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봉기 후 일제와 격렬한 전투를 벌이면서 강화도를 빠져나와 임진강 유역과 연천 보개산을 근거지로 삼아 장단 마전, 삭령, 연천, 철원, 포천, 영평, 토산 등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를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독립부대로는 많은 경우 300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무기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청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탄탄한 조직을 갖추었다.
그의 의거 활동은 구한말 애국지사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었으며, 당시 신문에도 자주 언급되었다.[21)]

2)　　(1902~1951)

일제 강점기 시인으로 연천 출신이다. 본관은 경주, 호는 월파(月坡)이다. 아버지는 기환(基煥)이고 어머니는 나주 정씨이다. 시조 시인 오남(午男)이 여동생이다. 1917년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하였다가 3·1운동에 가담하고는 낙향하였다. 그 후 보성고보로 전학하여 1921년 일본 릿쿄대학 영문과를 나와 보성고보에서 교편은 잡다가 곧 이화여전 교수가 되었다. 1935년 <물고기 하나>, <망향>등 식민시대 지식인의 울분을 담은 서정시를 발표 하였다.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제의 탄압으로 영문학 강의가 폐강되자 1943년 교수직을 사임하고는 종로에서 장안학원을 경영하기도 했다.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강원도지사를 지내고, 1945년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다. 1948년 도미하여 보스턴대학에서 연구하고 1년 만에 귀국하였다.
최초의 문단 활동은 1926년부터였으나 호평을 받지 못하다가 1935년 창간된 《시원》에 <나>, <마음의 조각> 등 몇 편의 시를 발표한 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우수적, 자연친화적, 동양적인 체념이 엿보이는 관조적인 경향을 띤다. 1939년 시집 <망향> 역시 일제의 탄압에 대한 체념 및 소극적은 대응과 자연에의 도피 내지 귀의의 성향을 보인다. 대표 시로는 <남으로 창을 내겠소>가 있다. 또 고, 대표작으로는 <노래 잃은 뻐꾹새>, <어미소>, <향수>등을 꼽을 수 있다.

3) 함석헌(1901~1989)

사회운동가. 전곡읍 간파리 마차산 자락에 묘가 있다. 1901년 3월 평북 용천군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6년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후 1919년 1.1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후 오산학교, 동경고등사범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후진양성에 몰두하였다. 1938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오산학교 교사직을 사직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40년 계우회 사건, 1942년 성서 조선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뤘으며,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신의주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1970년 4월 원간 <씨올의 소리>를 창간하고, 1974년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대표위원을 맡는 등 사상가, 사회운동가로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다. 1979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21) 안유택, 연천 독립운동가 열전, 연천문화 13호 참조.

된 바 있다. 1984년 '남강문화재단'을 설비하였다. <뜻으로 본 한국역사>, <수평선을 넘어>, <새시대의 전망>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2.3.5 연천의 관광 자원

연천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수많은 역사 유적, 휴전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관광 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실제로 연천 군민의 노력으로 편리하고 의미있는 문화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개발 중이다. 이 장에서는 연천이 자랑하는 관광 자원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22)]

(1) ·지질 관광

1) 관광지

달린 한탄강 오토캠핑장이라고도 불린다. 가평 자라섬 오토캠핑장,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과 함께 3대 오토캠핑장으로 꼽힌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교와 사랑교 사이의 강변 1.5㎞에 펼쳐져 있는 한탄강관광지는 1977년 3월에 관광지로 공식 지정되었다. 그 후 1996년, 1999년, 2000년도에 한탄강이 범람하여 관광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2005년부터 시작된 선사유적지 정비 및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시금 친환경적 가족문화.휴양 관광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북한 지역의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홍적세 중기 무렵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주상절리와 폭포가 곳곳에 발달해 있어 제주도와 같은 화산섬으로 여행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화산지대의 특성을 둘러 볼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이다. 아름다운 한탄강을 배경으로 조성된 한탄강관광지는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을 갖춘 야영시설(캐빈하우스.캐라반 42대, 자동차야영장 86면)과 물놀이장, 축구장, 어린이 캐릭터원, 어린이 교통랜드 등 다양한 시설로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도권 북부지역의 최대 수변관광지로써 매해 수많은 관광객의 즐거운 휴양지가 되고 있다.

2) 고대산 캠핑리조트

연천의 명단 고대산 자락에 위치한 청정자연 휴양림을 함께할 수 있는 캠핑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못할 추억과 힐링, 낭만을 꿈꿀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캐라반, 글램핑, 오토캠핑, 콘도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베이스볼 파크로 국내 최고시설의 사회인 야구장 5개 구장과 100여명의 숙박이 가능한 클럽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 고대산 캠핑리조트에서는 캠핑, 야구, 등산, 트래킹, 레져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는 최고의 사람사랑 캠핑 시설을 체험할 수 있다

3) 재인폭포

재인폭포는 연천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중 하나로 한탄강 지형이 빚은 절경이다. 연천7경중 으뜸가는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하얀 물살과 그 아래 에메랄드빛으로 펼쳐진 소(沼)는 보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연천을 굽이쳐 돌아가는 한탄강은 약 27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지형으로

22) 이하의 내용은 온라인 연천문화관광(http://tour.iyc21.net)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중 재인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제주도 천지연폭포와 비견되곤 한다.
재인폭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가장 먼저 여행자를 맞는 것은 새로 만든 전망대다. 일명 스카이워크(sky-walk) 형태로, 투명한 유리바닥 위에 서서 발아래 펼쳐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인공 구조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장마 때 물이 불어 폭포 진입이 통제되던 때를 생각하면 노약자들도 멀리서나마 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신비로우면서도 아찔하게 느껴지는 협곡을 조망하기에도 그만이다. 27m 높이의 전망대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면 Y자 형태의 협곡이 이어진다. 계단을 내려서면서부터 폭포가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장관에 시선을 빼앗겨 발을 헛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현무암을 뚫고 자라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협곡 끝에 신비로운 자태의 재인폭포가 자리했다. 높이 약 18m의 폭포수가 너비 30m, 길이 100m의 소위로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하는데, 하얀 물줄기와 에메랄드빛 소가 빚어내는 색의 조화가 거대한 동굴처럼 파인 현무암 주상절리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재인폭포는 원래 평지였던 곳이 갑자기 움푹 내려앉으며 지장봉에서 흘러내리던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게 되었다. 폭포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중이다. 폭포의 물살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를 조금씩 침식시켜 나갔고, 폭포도 조금씩 뒤로 물러앉게 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강변에서 350m 정도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재인폭포에는 고문리 마을의 유래가 된 재인과 그 부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3장 연천군 현지조사자료 고문리 편 참조)

4) 주상절리

연천 동이리(임진강) 주상절리는 미산면 동이리 67-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도감포)에서부터 북쪽으로 임진강을 거슬러 수킬로미터에 걸쳐 아름다운 수직의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 홍적세 중기 무렵 철원 북쪽에서 분출한 용암은 철원-연천 일대에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는데 화산활동이 끝난 후 용암대지가 강의 침식을 받게 되자 강을 따라 기하학적인 형태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5) 임진강 유원지

임진강(臨津江)은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강이다. 함경남도 덕원군 두류산에서 시작하여 남서 방향으로 254km를 흘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한강과 합류하는데, 연천군으로 들어서는 곳은 북한지역인 중면 여척리로 중면 횡산리와 왕징면 강내리에서 태극 모양을 그리며 멋지게 굽어 흐른다.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 이르러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임진강의 명칭은 파주군 파평면 율곡리의 '임진나루'에서 기원하며 경기도의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에 걸쳐 흐르기 때문에 부분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임진강의 안쪽은 수직절벽으로 형성되어 징파나루, 고랑포나루, 임진나루 등의 몇 몇 나루를 제외하고는 건너기 어렵다.
임진강은 남북을 이어 흐르기 때문에 분단의 아픔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데, 강 주변에 형성된 많은 문화유적지,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1월에 철거된 임진강 화이트교에서는 지난 86년 5월, 62.1cm짜리 대물 쏘가리가 낚인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4월 곡우를 전후해서 누치가리터로서 유명하다.

임진강은 서울에서 가까워 개인 플레이어들이 즐겨 찾는데, 7-8월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루어낚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장마철이 지나고 수심이 안정되면 루어낚시 뿐만 아니라 견지, 대낚시, 소라잡기 재미도 솔솔하다.

6) 계곡

동막골(내산리)은 약 571,211㎡의 드넓은 면적의 계곡으로 맑은 물이 깊은 계곡을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고 계곡 주변에는 기암괴석과 자연림이 어우러져 자연의 신비함을 더해준다. 대부분 지역의 수심이 낮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거의 없으며 가족단위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견지 재미가 솔솔하다.

7) 역고드름

연천 역고드름은 경원선 철길의 폐 터널에 위치해 있다. 이 터널은 원래 북한의 원산까지 연결된 경원선 철도 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45년 철길이 끊어지면서 버려지게 되었다. 터널 내에 역고드름이 자란다는 사실은 2005년 마을 주민들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다. 길이 100m, 폭 10m의 터널 바닥에는 역고드름 수백개가 솟아올라 있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며, 12월 중순부터 자라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볼 수 있다.

<생성원인>

고드름은 겨울철 처마 끝에서 아래로 자라는 모습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역고드름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왔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역고드름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원인은 터널 지붕에서 떨어진 물이 지면에 얼어 있는 얼음 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위로 커가는 것이며 두 번째 원인은 지면의 얼음 표면의 미세한 물분자가 지하에 있는 물 분자를 솟아오르게 하여 고드름이 자란다는 것이다. 지상은 대기의 찬 공기로 인해 얼음이 얼었지만 지하는 상대적으로 따뜻해 물이 얼지 않는다. 지상과 지하의 온도 차이에 의해 지하의 물은 더 많은 물 분자를 가지고 있게 되며 지상의 얼음과 상대적인 열 분자 에너지 차이로 인해 지하의 물 분자가 지상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천 역고드름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역고드름 생성원인이 모두 확인되며 위에서 자라는 고드름과 땅에서 솟아나는 고드름이 어우러진 광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역고드름의 모습

(2) 관광

연천의 역사 유적 관광 자원은 대부분 지정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설명은 2.3.3 연천의 민속 문화와 문화재 편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전곡리 유적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이다. 현재는 약 35만평의 대지에 선사유적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구석기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유적공원의 중심부는 자유롭게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곳곳에 선사시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포토존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원 탐방로를 통해 전곡선사박물관, 선사체험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과 체험, 공원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북부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이라 할 수 있다.

<선사체험마을>

선사체험마을은 인류 문화가 처음 태동하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를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곡리유적만의 체험프로그램이다. 구석기체험존, 구석기바비큐체험, 연천으로 떠나는 선사체험여행, 구석기활쏘기, 구석기고고학아카데미, 구석기 만들기 체험 등 6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석기축제>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개최된다. 주먹도끼로 직접 고기를 잘라 불에 구워 먹는 구석기 바비큐 체험과 5개국 13개 박물관에서 참가해 각 나라의 선사유물을 전시하고 해외 전문가가 직접 시연과 체험을 지도하는 세계 구석기체험마을은 다른 축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곡리 구석기축제만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2)

전곡리 선사유적공원 내에 위치한 대규모 선사박물관이다. 1978년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켰던 연천 전곡리유적에 건립된 세계적인 규모의 선사박물관이다. 원시 생명체의 신비로운 곡선을 모티브로 건립된 전곡 선사박물관은 실물 비례의 다양한 구석기시대 조형물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쉽고 즐겁게 선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형 박물관이다.

상설전시실 주요코너에서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바닥에 표시된 시간의 선(점선)을 따라 전시실에 들어서면 전곡의 주먹도끼,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 사바나의 최초인류, 최초의 아시아 이주인, 추가령지구대 고인류의 터전, 전곡의 지층, 선사시대의 문화와 믿음(동굴벽화), 극지로 가는 구석기인, 고고학 체험센터, 몰핑스테이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중 몰핑스테이션은 RFID카드를 이용해 각 진화 단계별 인류들과 자신의 모습을 합성시켜 자신이 선사시대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천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다

3) 숭의전

고려4왕(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고려조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과 가을 제향을 올리는 고려의 실질적인 종묘이다. 숭의전은 태조 원년에 개성의 고려 종묘에서 고려 태조의 동상을 이곳 마전의 앙암사로 옮겨 제사 지내게 한 데서 유래하는데, 그 오랜 역사에 비추어 숭의전 외삼문 앞에는 5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숭의전을 굽어보고 있다. 추계 대제가 열리는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 전후로 숭의전 고려문화제가 개최되니 찬란했던 고려의 문화를 둘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숭의전 생생문화재>

숭의전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 중 유일하게 “고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참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숭의전 고려문화제>

숭의전 고려문화제는 10월 첫째주 일요일 숭의전 추계대제에 맞추어 개막된다. 고려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축제이니 만큼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고려의 종묘제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4) 연천 경순왕릉

경순왕릉은 경주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에 있는 신라의 유일한 왕릉이다. 신라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후삼국의 분열 시 고려 태조 왕건에 평화롭게 나라를 넘기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아 개성의 유화궁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으나 죽어서도 고향인 경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성거산 중턱에 묻히게 되었다.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과 10월 3일, 봄과 가을로 대제가 봉행된다.

5) 연천 고구려 3대성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의 영향이 가장 길고 집중적이었던 곳이다. 그만큼 고구려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흔적이 남겨져 있는데, 연천을 대표하는 고구려 유적인 연천 고구려 3대성(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은 국내 유일의 고구려 강안평지성들로 강대했던 고구려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성의 좌우로 높이 20m에 달하는 높은 절벽이 형성되어 있고 강을 건너야만 공격이 가능한 천혜의 방어 요새이다.
특히 임진강은 고구려가 한강지역을 잃게 되는 6세기 중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후반까지 약 120여년간 고구려의 남쪽 국경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로부터 이곳을 방어하기 위한 고구려의 국경방어기지가 강을 따라 길게 구축되었으며 연천의 고구려 3대성은 국경방어선을 관장하던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천 호로고루>
연천 호로고루는 임진강 장단석벽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관찰할 수 있는 고랑포 주상절리 적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임진강은 갈수기에 걸어서도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가장 단거리의 육상교통로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고구려는 호로고루에 임진강 국경방어선을 관장하는 국경방어사령부를 두었다.

<연천 당포성>
연천 당포성은 양주방면에서 직접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우회하는 길목인 당개나루의 요충지를 통제하는 고구려의 방어성곽이다. 성의 양쪽이 높은 수직 절벽이기 때문에 평지로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한 동쪽에만 인공성벽을 쌓아 견고한 방어 성곽을 구축한 고구려의 경제적인 축성법을 관찰할 수 있다.

<연천 은대리성>
연천 은대리성은 규모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구려 성곽 유적이다. 성의 둘레가 약 1km 달하며 외성과 내성의 이중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탄강과 차탄천이 만나면서 형성된 여울목의 요충지를 통제하는 방어진지로 고구려 남진 시기에 후방의 거점기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6) 고인돌 공원
연천 고인돌공원은 원상태의 보존이 어려운 연천지역의 고인돌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04년 이곳에 이전·복원하여 고인돌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통현리 일대는 연천지역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천지역 18곳에서 확인된 30기의 고인돌 중 이 일대에만 8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16기의 고인돌이 이전되어 있으며, 그 중 2기(통현리 고인돌 2호 및 3호)는 발견 당시의 위치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다. 16기 중 2기는 북방식이고 나머지는 남방식이다.
이들 고인돌은 연천지역 청동기시대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관광

1) 열쇠전망대

열쇠전망대는 육군 열쇠부대(육군 제5사단)가 북녘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안보교육과 망향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1998년 4월 11일 건립하였다. 열쇠전망대는 자칫 안보불감증에 빠지기 쉬운 전후 세대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살려 주고 실향민들이 망향의 한을 달랠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관광 코스이다. 전망대에서는 DMZ 철책선과 최전방 초소인 GP 등이 한눈에 들어오며, 내부 전시실에는 북한의 생활용품과 대남 전투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 북한의 실제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전시실에는 철조망으로 형상화된 통일 염원 소원 엽서 나무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해 준다.

2)

천하무적 태풍부대에서 1991년 12월 3일 건립한 것으로, 서울에서 약 65km, 평양에서 약 140km 떨어진 중면 비끼산의 가장 높은 수리봉에 위치한다. 처음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2km 지점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설정되었으나, 1968년 북한이 휴전선 가까이 철책을 설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78년에 부분적으로 철책을 설치하였다. 시계가 좋은 날에는 망원경 없이도 밭일하는 북한주민을 볼 수 있다.

태풍전망대는 휴전선까지 800m, 북한 초소까지는 1,600m의 거리에 떨어져 위치하고 155마일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유명하다. 태풍전망대에는 국군 장병들이 종교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교회·성당·성모상·법당·종각 등이 있고 북녘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의 망향비와 한국전쟁의 전적비, 6·25참전 소년전차병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전시관에는 이곳으로부터 2km 떨어진 임진강 필승 교에서 수습한 북한의 생활필수품과 일용품, 그리고 휴전 이후 수십 회에 걸쳐 침투한 무장 간첩들이 이용한 침투 장비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3) 승전 OP

승전전망대는 적의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 운영되는 최전방관측소이다. 과거 북한군이 침투한 '1.21 침투로'가 있는 장소로서 북측 군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육안으로 북한군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군사시설을 볼 수 있고, 망원경을 통해서 넓은 개활지인 연천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육군 제25보병사단은 관람객들에게 보급로를 통한 도보답사, 1.21침투로, 승전전망대 관람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4) 1·21 침투로

고랑포에서 서남쪽으로 3.5km지점에 위치한 1.21무장공비침투로는 1968년 1월 17일 23시 북한군 제 124군 소속 김신조 외 30명이 남방 한계선을 넘어 침투한 곳이다. 북한은 당시 김신조 외 30명의 무장공비를 1968년 1월 21일 서울로 잠입시켜 대통령 관저(청와대) 폭파와 요인 암살 및 주요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8년 1월 19일 21시경 파주시 법원리에 거주하는 나무꾼이 신고하여 군·경 합동으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1968년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개되어 사상자 29명, 도주 1명, 체포 1명(김신조)의 전과가 있었으나 우리 군·경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현재 1.21 무장공비 침투로에는 그 당시 이 곳에 주둔한 미군 제 2사단 방책선 경계 부대에서 설치한 경계 철책과 철조망을 뚫고 침투한 무장공비의 모형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

다. 관할 군부대에서는 1999년 10월 1일자로 민통선 북방 지역 출입 통제를 일부 완화하여 사전신청에 의한 견학이 가능하다.

5) OP

상승OP는 적의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 운용되는 최전방 관측소로 경계임무는 비룡부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4시간 빈틈없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소의 망원경으로 전방의 북한 초소들과 철책선들 그리고 지금은 비무장지대로 변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넓은 연천평야도 볼 수 있다.

관측소에서 비옥한 토지였을 연천 평야가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로 변해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면 분단의 세월과 아픔을 새삼 느끼게 된다. 관측소 주변 비무장지대에는 독수리, 참매, 노루, 산양 등 일반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망원경으로 북쪽을 관측하면 북측 초소 군인들의 얼굴과 움직임도 볼 수 있고, 시간대별로 북측의 대남 방송을 들을 수 있어 그야말로 최전방 관측소라 할 수 있다. 실제 1호 땅굴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여 개방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관측소인 상승OP에 실제 크기의 모형을 만들었다. 제 1호 땅굴은 1974년 11월 15일 발견된 남침용 땅굴로 선임하사 구정섭이 지휘하는 육군 수색조가 임무 수행 중에, 땅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이 여겨 그 곳을 파던 중 북한 초소로부터 갑작스런 사격을 받았다.

이에 우리 군도 응사하면서 조사를 계속 한 결과 땅굴이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남침용 제1호 땅굴이다. 이 땅굴은 서울로부터 52km, 개성으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지표에서 2.5m ~ 4.5m 깊이이며 철근이 세 가닥 들어간 조립식 콘크리트를 사다리꼴로 엮어 튼튼하게 만들었다. 땅굴을 판 목적은 남침 1시간 내에 1개 연대 규모를 침투시키고 남파 간첩의 비밀 통로로 이용하여 요인의 납북을 돕는 통로 및 우리 군의 기밀을 탐지해 내기 위한 것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남북이 서로 비방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고자 다정하게 손을 잡던 시기여서 우리 국민의 충격은 몹시 컸으며, 동시에 북한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6) 구) 경원선 철도 중단점(신탄리역)

한국전쟁 이전에 서울과 원산을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기차는 이젠 신탄리역에서 회차한다. 신탄리역에서 옛 철원역을 지나 휴전선 너머 평강 사이에는 철길이 없어진 상태이다. 북한에서는 평강-세포-고산-통지원-원산 등을 지나 고원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을 '강원선'으로 바꿔 부른지 오래다. 현재 신탄리역 근처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경원선 철도의 남쪽 중단점을 알리는 푯말이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

2005년 현재, 본군을 관통하는 경원선의 철도역수는 총 7개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설치된 역은 전곡역, 연천역으로 1912년 7월 2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다음이 대광리역으로 1912년 10월 2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3년 7월 10일 신탄리역이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54년 7월 1일에는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들 4개 역은 경원선이 개통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역이며, 일제시기 동안에는 이들 4개 역만이 운영되었다.

그 후 초성리역이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수복된 이후인 1956년 10월 1일 신망리역에 을종위탁 발매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조성되어 관광인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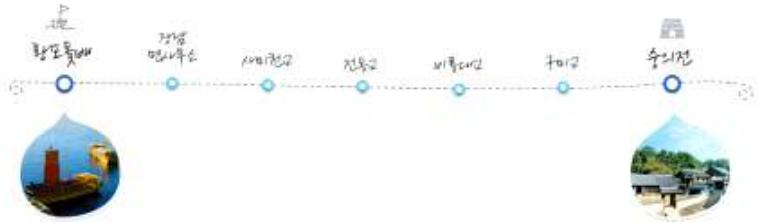
몰리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975년 6월 28일 한탄강역이 개설되어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7)　　참전비

연천읍 상1리 미래고개에 있는 6·25전적비, 이 비는 6·25때 한국전선에서 중공군과 가장 큰 격전을 했던 연천지구 율동리전투(1951.04.22.~04.23)에서 승전한 필리핀군의 전공과 125명의 전몰영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1966.04.22일 연천군민이 건립한 필리핀 참전비이다.

(4)　　· 트래킹

1) 고랑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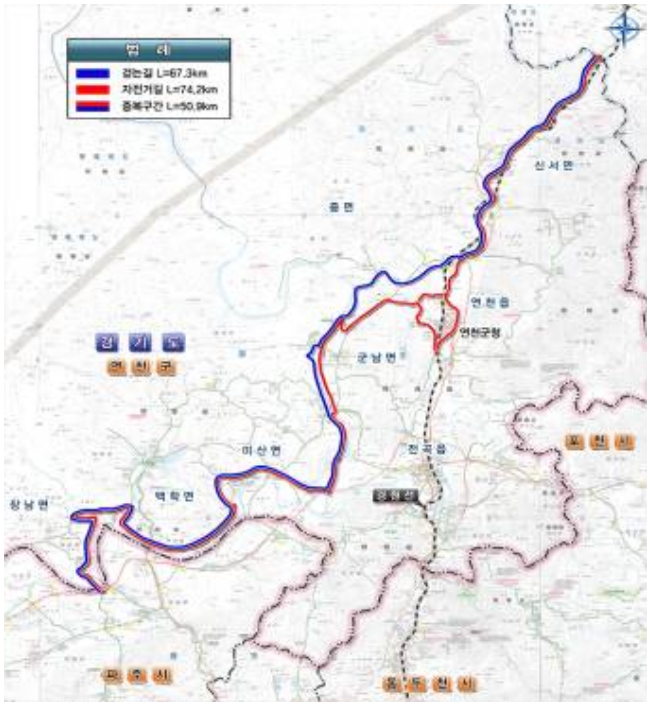


2) 임진절벽길

3) 통일이음길

4)

- 연천군 대광리(철원군계) ~ 장남면(장남교) 74.2km
- 대광리 - 현가리 - 연천읍- 우정리 - 동이리 - 아미리 - 비룡대교 - 장남교



5) 차탄천 트래킹

가령구조곡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차탄천은 철원 금학산 독서당리 계곡에서 발원하여 총연장 36.8km를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전곡에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차탄천 용암협곡 주상절리 트래킹 코스는 연천읍에서 전곡읍까지 약 9.5km에 이르는 구간으로 깨끗한 물과 함께 용암 협곡의 주상절리를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차탄천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선캠브리안기의 화강편마암에서부터 백악기의 습곡운동, 신생대 초기의 하천 운동으로 퇴적된 자갈퇴적층(백의리층), 신생대 말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주상절리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강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용암대지의 평원, 곡류, 주상절리, 판상절리, 용암댐, V자 협곡, 폭포, 수직단애, 백의리층 등 지구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이곳들은 모두 트래킹코스를 따라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질탐방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차탄천의 절경>

① 주상절리 : 지상으로 분출된 뜨거운 마그마는 대기의 찬 공기와 만나며 급격하게 식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수축작용으로 암석의 표면에 사각형이나 육각형의 가는 금이 생기게 되는데 오랜 기간 바람과 물에 의해 침식을 받게 되면 이 금을 따라 사각이나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 나가 수직의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만들어진다.

② 용소 : 차탄천에 형성된 깊고 넓은 물웅덩이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일대는 협곡이 매우 복잡하게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차탄천을 역류한 용암이 이곳에 이르러 지형의 영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 주상절리의 모양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③부정합층 : 부정합층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탄생한 암석이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모습을 말한다. 차탄천에서는 기반암인 선캠브리안기의 변성암과 신생대 초기의 하천 퇴적층인 백의리층, 백의리층 상부의 현무암층이 시간순서로 포개져 부정합을 이루고 있다

6) 트래킹

로하스파크에서 옥계마을을 지나 평화누리길 3코스를 따라 걷다보면 청화산과 망곡산을 지나가는 숲길 트래킹 코스가 나온다. 구간의 거리는 약 4.5km정도이며 야산의 소로길을 이용하는데 특히 망곡산에는 사색의 오솔길이라는 자그마한 소로길과 체육공원 정상의 팔각정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일상의 상념에서 벗어나기에 부담이 없는 코스이다.
망곡산은 구한말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가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 관내 유림과 향민들이 이산에 올라와 궁궐이 있는 서울 쪽을 바라보며 시들어만 가는 국운을 애태워하며 통곡하였다하여 망곡산(望哭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한 청화산은 고려말의 충신인 이양소 선생이 매일 개성을 향해 예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러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선태종이 청화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2.3.6 연천의 설화와 지명유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연천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설화들이 존재한다. 또한 마을이나 산하의 지명들도 대부분 역사적 유래가 있는 것들이 많다. 연천에 존재하는 설화와 지명의 유래 중에서 한탄강 권역에 속하는 마을의 설화와 지명 유래는 3.3 현지조사 자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그 외에 연천에서 전해오는 설화와 지명 유래를 항목별로 살펴본다.[23)]

23) 이하의 내용은 『연천군지』 상(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7~419쪽)와 온라인 연천문화관광(http://tour.iyc21.net) 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기타 참고문헌은 해당 내용에 따로 표기한다.

(1) 설화

1) 설화

연천을 빛낸 위인·명사들은 살아서는 역사적 족적을 뚜렷이 남겼고, 죽어서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전설을 남겨 놓았다. 이들 위인·명사들은 이미 2.3.4 연천의 인물 편에서 소개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그 일화·전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① 허목과 관련된 설화: 왕징면 강서리(江西里) 산48번지에는 서예가·의술가로 유명했던 미수(眉?) 허목의 묘가 있다. 이 지역에는 허목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전해 온다.
지금의 징파(澄波)나루를 민간에서는 '미수나루'라고 부른다고 한다. 허목이 나들이를 하려면 당시에는 반드시 이 나루를 건너야 했으므로, 나루에 당도하여 술막에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공에게 "미수 왔다!"라고 고함을 질러 배로 강을 건넜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선생과 가장 무서운 정적으로 지목되었던 우암 송시열이 노경에 불치의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라 명재경각(命在頃刻)인 때에, 최후의 기대감에서 아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를 살리고 싶거든 미수에게 가서 내 병의 증세를 말하고 약의 화제를 지어 달라고 하여 그대로 약을 지어오거라." 하니, 아들은 "아버지, 그것은 절대로 아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 가서 화제를 지어달라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거절하니, 송시열이 "너는 아비가 시키는 대로하라. 이제는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의 화제를 써서 죽는다면 그것이야 내 명이 다한 것일 뿐이니라." 하고 엄히 꾸짖어 빨리 다녀올 것을 재촉하였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허목을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화제를 받아 와서 보니, 과연 독극물인 비상이 들어 있었다. 송시열의 아들은 또 아버지께 말하기를, "이 화제대로 약을 지어 드시면, 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시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이 화제의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라면서 간절히 간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은 여전히 "아무 말을 말고 그 화제대로 약을 빨리 지어 오라." 고 호령을 하였다. 아들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더니, 과연 그 약을 먹고 금방 쾌차하였다는 것이다.
송시열 아들이 후에 허목을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그 화제에 극약인 비상을 넣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허목이 대답하기를, "자네가 증상을 말하면서 대감께서 어린 손자 아이의 오줌을 드셨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어르신네의 병환은 바로 그 요독(尿毒) 때문이었으니,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허목과 송시열의 정치적 적대 관계를 초월한 깊은 인도주의적 생명관과 인간적 신뢰감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 전설처럼 전하여 오고 있다.

② 기황후: 연천읍 상리(上里) 재궁동에는 원 순제(元順帝)의 후비 '기황후의 묘'라는 오래된 묘가 있다. 그런데 묘에 묻힌 사람이 정말 기황후라면 '기황후능'이라고 일컬어져야 옳은데, 왜 일반인처럼 '묘'라고 불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출신으로 원의 황후가 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 땅에 매장하였다는 설과, 기황후가 생시에 자기는 죽은 뒤에 꼭 고려 땅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하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두

설 모두 고려 땅 중에서도 하필 연천의 이 곳이냐에 관한 의문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시에 몇 차례의 도굴을 당하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로서, 이것이 기황후의 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설일 수밖에 없다.
어찌 되었든 이 전설은, 656년(효종 7)에 편찬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에 "속전 원순제 기황후묘(俗傳元順帝奇皇后墓)"라고 하면서 돌로 된 문·무관상과 돌로 조각한 양 같은 석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에 의하여 아무렇게나 넘어져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후부터의 전설인 듯하다.

③ 정발(鄭撥) 장군과 애마: 임진왜란이 나던 해에 부산첨절제사로 부임하였다가 전쟁을 맞게 된 정발 장군은 병력과 무기의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항전하다가 전사하였다. 나라에서는 뒤에 장군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충장'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런데 정발이 전사한 후 그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모두들 안타까워하던 중에, 장군이 사랑하던 말이 그의 갑옷과 투구를 물고 와서, 그 의복과 투구를 가지고 의관장으로 장례를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24)]

2) 관련된 설화

호랑이 전설은 전국 어디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연천의 경우는 전승되는 호랑이 관련 설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인간을 도와주는 호랑에서부터 희화화되는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다양한 편이다. 10여 편에 이르는 호랑이 관련 설화 중에서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것을 선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호랑이의 봉변: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하루는 그 할머니의 집에 호랑이가 왔다. 할머니가 대접을 잘하여 주었더니, "요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고 하고는 호랑이가 돌아갔다. 할머니는 다음 날 호랑이가 올 것을 알고는, 세숫물에 고추 가루를 넣고 화롯불에는 밤을 묻어 놓고 방석에는 바늘을 꽂아 놓고, 호랑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호랑이가 왔다. 세수를 하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춧가루 푼 물에 세수를 한 호랑이는 눈이 따가 와 견딜 수가 없었다. 얼른 수건으로 눈을 닦고 방석에 앉았는데, 방석에 꽂혀 있던 바늘들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찔렀다. 호랑이가 놀라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려는 순간에, 화로에서는 할머니가 미리 묻어 두었던 밤알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튀기 시작하였다.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호랑이는 다시는 할머니의 집에 얼씬거리지 아니하였다.

② 호랑이 할머니: 옛날 어느 곳에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 새댁은 날이 갈수록 친정에 가고 싶었으나 길이 멀어서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댁이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나서니 어디서인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새댁에게 등에 타라고 하였다. 새댁이 호랑이의 등에 타자, 호랑이는 순식간에 친정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

24) 이 이야기는 연천군에 전해지는 이목(3.3.8 대전리 현지조사 자료 참조)이나 철원군에 전해지는 김응하 장군 전설과 매우 흡사하다. 물론 장군이 적진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애마가 의복이나 머리 등 장군의 표시를 물고 고향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같은 한탄강 권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세 설화의 친연성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 호랑이를 죽이려 하자 호랑이는 다시 새댁을 태워 시댁으로 왔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그 새댁을 '호랑이 할머니'로 불렀다고 한다.

③ 호랑이 덕으로 급제한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입신출세를 바라고 과거를 여러 번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을 하였다. 그러나 선비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는 자기 굴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선비는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하여 호랑이 굴로 가서 호랑이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먹이가 동이 났다. 이에 호랑이는 자주 밖으로 나가 고기를 구하여 왔다. 선비는 호랑이가 고기를 구하러 나간 틈을 타서 고기를 썰어 먹고는 하였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안 호랑이는 어디론가 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해 과거 시험에 '썰어서 씹었다'라는 시제가 나와서, 그 선비는 글을 잘 지어 급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④ 토끼에게 혼줄 난 호랑이: 호랑이 마을에 살면서 호랑이에게 여러 번 혼이 난 토끼가 있었다. 하루는 그 토끼가 길에서 또 호랑이를 만났다. 토끼는 호랑이를 골려 줄 생각으로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호랑이님, 배고프세요? 맛있게 잘 익힌 고기를 드릴까요?" 하며, 불에 달군 차돌을 던져 주었다. 돌을 고기인 줄 알고 받아먹은 호랑이는 혀에 화상을 입은 채 굴 속에 들어앉아 토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호랑이 굴 앞으로 토끼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호랑이에게 나무 밑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참새들을 잔뜩 몰아넣어 주겠다고 하였다. 참새들을 몰아넣어 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그렇게 하고 있자니 귓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는 참새들이 날아오는 소리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볼기짝이 달아오르고 온몸이 후끈후끈하였다. 호랑이가 눈을 떠보니 주위는 온통 불바다였다.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호랑이는 부랴부랴 불 속에서 뛰쳐나왔지만 여기저기 털이 타고 데이고 상처투성이였다. 토끼는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다.

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포수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총을 매우 잘 쏘는 포수가 있었다. 하루는 깊은 산 속으로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이 포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자기 손으로 잡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를 찾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이산 저 산으로 호랑이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아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인 젊은 여인을 만났다. 아들은 목이 마르던 참이라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실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여인의 행색을 보아 하니, 여인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으나 호랑이가 분명하였다. 아들이 얼른 총을 꺼내 여인을 쏘니 여인은 그 자리에 쓰러져 한 마리의 호랑이로 변하였다. 아들이 다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겨 한참을 가자니까 한 젊은 사나이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얼핏 보니 사나이의 뒤쪽에 기다란 꼬리가 보였다. 아들은 이번에도 잽싸게 총을 겨눠 그 사나이를 쏘니 사나이 역시 호랑이로 변하여 쓰러졌다. 다시 길을 떠난 아들이 얼마만큼 갔을 때였다. 저만큼 무엇인가 집채만 한 것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몇백년은 족히 묵은 듯 한 커다란 호랑이였다. 아들이 총을 겨눠 쏘아보았으나 워낙에 큰 호랑이였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총알을 다 쓴 포수의 아들은 호랑이에게 잡혀 삼켜지고 말았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온 포수 아들이 호랑이 뱃속을 두루 구경하는데, 호랑이가 이제까지 잡아먹은 사람들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

었고 아버지의 총도 있었다. 재미를 느낀 포수 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실신을 한 채 쓰러져 있는 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그 처녀는 나라님의 외동딸인 공주님이었다. 공주 역시 그 호랑이에게 삼켜졌던 것이다. 공주가 정신을 차린 후 둘은 호랑이의 뱃속에서 도망칠 방법을 같이 궁리하였다. 마침 공주가 작은 은장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들 포수는 공주의 은장도를 가지고 호랑이의 뱃속을 도려내기 시작하여 마침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뜻하지 않게 공주까지 구한 포수의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공주와 결혼하여 잘 살았다고 한다.

⑥ 자작고개: 자작고개는 연천읍 와초리 회옥골에서 중면 합수리의 무조례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르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전하여 오고 있다.
옛날에는 이 고개에 나무가 울창하여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험하지도 아니한 고개에 호랑이가 살고 있으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심코 이 고개에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없어지니까 마침 밥솥에서 밥이 다 되어 잦아들 듯 하기도 하고, 모래밭에 물이 스며들어 없어지는 듯 한다는 뜻에서 '자작고개'라고 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는 소리가 변하여 '자작고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 관련된 설화

군자산은 연천의 여타 산들에 비해 그리 높지는 않으나 연천 읍을 아우르는 위치로 인해 예로부터 연천의 진산으로 불려왔다. 현재에도 군자산에서 산신제가 성대하게 거행되는 까닭이다. 연천의 진산답게 군자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전하던 전설이 다수 전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군자산의 붕어: 군자산은 지금의 연천읍 차탄(車灘) 2리와 읍내리(邑內里)에 걸쳐 자리잡고 있는 해발 328m의 산이다. 옛날에는 이 산꼭대기에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에는 하얀 붕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영험하기로 유명하였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이 우물에 와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기우제를 지냈고, 우물의 물을 떠내면 금방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렸다고 전한다.

② 군자산과 게: 옛날 군자산에는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할멈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산신할멈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게라는 놈이 산신할멈의 음부를 깨물었다. 산신할멈은 크게 노하여 부적을 써서는 연천에 있는 모든 게를 없애 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연천에는 게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한다.

③ 군자산의 우물: 군자산은 연천읍 서북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이 군남면과 연천읍의 경계를 이루고 멀리 임진강을 굽어보고 있다. 산의 모양은 예부터 웅대한 곰의 형상으로 비유되어 고구려에서는 "공목달현 웅섬산(孔目達縣熊閃山)"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는 '당산(堂山)'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당산을 중심으로 연천의 문화는 발전되어 왔다. 이 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이 산의 꼭대기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깊이를 재보려고 그 우물에 명주꾸리를 계속 풀어 넣었더니, 실끈이 임진강으로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산의 정기는 임진강과 이어져 더욱 영험하게 믿어져 왔다. 옛

사람들은 이 산 위의 우물가에 제당을 짓고 매년 길일을 택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빚어 하늘에 소망을 기원하거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는바, 이 날을 온 고을의 축제일로 삼아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결속을 다졌다. 그 후로 이 같은 제사 의식은 조금씩 간소화되기는 하였으나, 8·15 해방 후까지도 산 위에는 신당(神堂)이 있었고 마을사람들에 의하여 봄·가을로 제사가 올려져 액운을 막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4) 설화

① 연주성 설화: '연주'는 고려 왕조 때 지금의 군남면 옥계리(玉溪里) 일대를 '연주읍'이라고 불렀던 데서 연유된다. 후삼국시대에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태봉국(泰封國)을 건설하였던 궁예왕(弓裔王) 때에는, 옥계리 일대가 밀물 때면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이어서 철원 지방에 주요 물자를 공급하는 수로로 이용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여 도읍을 개성으로 옮기자 바닷물이 빠져 육지가 되었다고 한다. 고려는 연주읍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남면 옥계리와 중면 삼곶리 경계에 있는 옥녀봉 정상에 길이 2㎞에 달하는 성을 쌓았다고 한다. 이 성을 처음 쌓을 때, 어느 장수가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 밑에 돌을 모아 놓게 한 후 하룻밤 사이에 돌을 산 위까지 옮겨 쌓았다고 한다.

② 남산골 박초시: 남산은 지금의 군남면 삼거리(三巨里) 쥐산 서쪽에 있는 높이 247m의 작은 산을 이르는데, 옛날에 이 남산골에 샌님 박 초시가 살고 있었다. 너무도 가난하여 살수가 없으므로 남부여대(男負女戴)하여 남쪽으로 이사를 가다가 박리라는 곳의 주막에서 머물러 자게 되었는데, 마침 만삭이던 부인이 그날 밤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워낙 가난하여 미역국도 끓여 줄 수가 없었다. 이것을 안 그 곳의 홍 생원이라는 자가 미역을 사오고 돈 천 냥을 주며, "한양에 가서 편히 사시오." 라고 도와주었다. 세월이 흘러 서울에서 살고 있던 박 초시의 딸이 자라서 국모 간택에 들게 되어 박 초시는 부원군이 되어 잘 살고 있었다. 홍 생원은 늘 짚신을 팔아 천 냥만 되면, 서울로 와서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홍 생원이 술에 취하여 부원군이 된 박 초시 집 문전에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다. 문 앞에 쓰러진 사람이 홍 생원임을 알아차린 박 부원군은 상감께 아뢰어 전라병사로 임명되게 하여 은혜를 갚았다고 한다.

③ 고왕산 전설: 고왕산은 지금의 왕징면 고왕리(高旺里)와 고잔상·하리(高棧上·下里)에 걸쳐 있는 높이 355m의 산봉을 이르는데, 고양산(高陽山)·봉화산(烽火山)·말무덤산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지금까지도 전해 오고 있다. 이 산 맨 꼭대기에는 천자(天子)가 나올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산주(山主) 몰래 묘를 훔쳐서 쓰는 일이 흔하였다. 그러나 정당하게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투장(偸葬)하는 예가 있으면, 바로 가뭄이 들고 주변 마을에 불상사가 일어나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④ 들근터(붉은 터): 들근터는 백학면 노곡리의 생기리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이른다. 이 곳의 흙빛이 붉어서 '붉은 터'라고 일러지다가 와음(訛音)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들근터'라고 일러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옛날에는 이곳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선들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귀양을 오면, 이곳으로 많이 들 내려와서 노닐다가 귀양살이가 풀리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곤 하였다는 것이다.

⑤ 가마소 전설: 가마소는 왕징면 고잔하리에 속한 천나다리 위에 있는 큰 소(沼)를 이르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에는 이 소 위에 집채만 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소에는 메기가 많이 살았다. 이 곳에서 힘이 센 어린 장사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장성한 뒤에 반역자가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를 즉시 죽여 버렸다. 그런데 그 아기 장수와 같이 태어나서 뒤에 아기장수를 태우고 다닐, 하늘에서 내려준 용마가 이 소를 빙빙 돌며 주인을 찾다가 주인이 없으매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2) 지명유래

1) 인물·사건과 관련된 지명유래

① 태종、이양소와 관련된 지명 유래: 고려의 진사 이양소는 조선의 3대 임금이 된 이방원과 함께 공부하며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이다. 그래서 그와 태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및 지명 유래담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들어가 산수를 즐기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양소의 충절과 은일처사적 생애가 중국 진의 처사 도연명과 흡사하다고 보고 후세인들이 그가 은거 하던 곳을 '도당골'이라고 불러 온 것이 이제까지 이르렀다는 지명 연기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또 이양소가 고려의 서울 송도를 향하여 매일 산에 올라 망궐례를 올리던 산을 조선 태종이 '백이지청풍희이지화산: 중국 은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한 충신 백이숙제의 깨끗한 충절과, 송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화산에 들어가 숨어 살았던 진단의 처소)'이라는 말에서 '청(淸)'과 '화(華)'를 따다가 '청화산'이라고 불러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연천읍내를 끼고 도는 차탄천을 우리말 이름으로 '수레여울'이라고 하게 된 지명 연기 설화도, 조선 태종이 이양소를 만나고자 어가를 타고 왔다가 수레가 이곳 여울에 빠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전곡읍 은대 4리의 '어수물'이라는 마을의 이름도, 태종이 이양소를 만나러 친행할 때에 이곳에 이르러 목이 말라 이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뒤부터 임금님께서 드신 우물이라는 뜻으로 '어수정'이라고 부른 것이 지금은 '어수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우물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또 군남면 왕림리에는 '정자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명 연기 설화도 이양소와 관련이 있다. 태종이 이양소를 만나고자 연천읍 현가리로 친행하였을 때 마침 이양소가 왕림리의 장진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가를 돌려 왕림리의 이 곳에서 쉬면서 그를 기다렸다고 하여, 뒤에 사람들이 임금님이 쉬던 곳을 기념하고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어 정자터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나무는 없고 이름만 전하고 있다. 이곳 마을 이름도 태종이 친히 오시던 곳이라는 뜻으로 '왕림리(王臨里)'라고 한 것이, 지금은 그 연유도 모르는 채 '왕림리(旺林里)'로 표기되고 있다고 한다.

② 망곡산(望哭山)의 유래: 지금의 연천읍 체육공원 서쪽에 있는 작은 산봉을 망곡산이라

한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와 1928년 순종이 붕어하였을 때에 연천읍민들이 이 산에 모여서 남쪽의 서울을 향하여 서럽게 곡을 하던 곳이라 해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③ 개무더미의 유래: 지금의 군남면 선곡리 뱀바리 동쪽에 있는 선곡리의 중심 마을을 '개무더미'라고 부른다. 전설에 따르면, 임진왜란이라고도 하고 병자호란이라고도 하는 전란 당시, 이 마을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전사한 적군의 시체를 이곳에 모아 큰 도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일본을 천하게 부르거나, 만주족을 낮추어 부를 때면,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일컬었기 때문에 왜인 또는 호인들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개무덤'이라고 불렀다. 이후 마을 이름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소리가 변하여 '개무더미'로 바뀌어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④ 손맞이비냥산의 유래: 신서면 도신 3리 원앞산 남쪽 연천읍 와초리와의 경계에 있는 손맞이비냥산에는 조선 광해군시대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김응구의 묘가 있다. 이 산소에는 다음과 같은 지명 연기 설화가 지금까지 전하여 오고 있다.
김응구가 82세의 천수를 다하고 영서(永逝)하매, 아들 삼형제가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모신 뒤 그 묘 옆에 묘막을 짓고 여묘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이 묘 옆 큰길은 함경도로 들어가는 길이어서 사람들과 우마와 수레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시끄럽고 어수선하여 도무지 지하에 계시는 선친의 혼령까지도 편안히 쉬지 못할 것 같았다. 삼형제는 의논 끝에, "우리들이 짚신과 행전이라도 만들어서 이 길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저쪽 길로 돌아갈 것을 청하여 아버지의 혼령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여 보자." 하여, 아들들은 짚신을 삼고 부인들은 행전을 만들게 하여, 짚신과 행전을 무료로 행인들에게 나누어주며 강원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맥이 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이 삼형제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이 곳의 이름을 '손맞이벼루(빈앙애賓迎崖)'라고 불러왔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잘못 발음되어 '손맞이비냥산(빈연애賓延崖)'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함경도로 들어가는 옛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므로 옛날 고개라는 뜻으로 '고현(古峴)'이라고 불려져 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 고갯길이 확 트인 3번 국도가 되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

2) 연천군의 지명 유래

현재 전해지는 연천군의 지명 중에서 이야기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래담을 선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불견이 고개의 유래: 불견이 고개는 일명 '불현령(佛見嶺)'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신서면 도신리(道新里) 사기막골과 내산리(內山里) 법화골 사이에 있는 고개를 이른다. 이 고개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심원사대종불사기(深源寺大鐘佛事記)」에 기록되어 전해 오고 있다. 고려 제7대 왕 목종(穆宗) 때 연천군의 보개산에 있는 심원사라는 절에서 큰 종을 조성하는 불사를 하게 되었다. 많은 공덕승(功德僧)과 화주승(化主僧)들은 온 나라 안 각처의 단월가(檀越家)를 찾아다니면서 보시(布施)를 걷고 있었다. 각 고을 부녀자들은 쌀이나 돈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마솥이나 주발, 놋대접과 부러진 놋젓가락, 창이 난 놋숟갈 등을 있는 대로 찾아서 정성껏 보시를 하였다. 이 때에 보개산 대광리에는 이덕기(李德基)라는

장님과 박춘식(朴春植)이라는 앉은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다정한 벗이어서 친하게 지냈다. 이덕기는 어려서 열병을 앓다가 열이 과하여 장님이 되었고, 박춘식은 홍역을 앓다가 소아마비로 다리가 오그라들어서 앉은뱅이가 되어 버렸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즐겁게 놀다가도 어느 사이인가 자신들도 모르게 신세한탄을 하곤 하였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는 이런 몸을 받았을까?" 한 사람이 탄식하면, 다른 한 사람이 또 받아서 "남에게 못할 짓을 전생에 많이 하였기 때문이겠지. 금생에 받는 일을 보면, 전생의 업을 짐작할 수가 있고, 금생에 하는 행동을 보면, 내생의 업을 짐작할 수가 있다지 아니하던가?"라고 한탄을 주고받다가는, "우리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지경이 되었을 걸세. 그러니 금생에는 좋은 일이나 많이 하세." 라고 착한 일을 많이 하자고 서로 위로하면서 약속을 하고는 하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남에게 못된 짓을 전혀 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될 착한 일만을 가려서 봉사하여 마을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덕문대사라는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덕기와 박춘식에게, "여보시오, 시주님네! 적선 공덕 많이 하시오. 한 물건을 시주하면 만 물건이 생기는 일, 부처님의 가호로 모든 재앙 소멸하고, 현생에서 복을 받아 수명장수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려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이덕기가 "스님, 우리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도 부처님께 정성을 바치고 시주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스님은 "있구 말구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내 자식처럼 대하시므로, 병든 자식 둔 부모가 그 병신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게 정말입니까?" 박춘식이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아니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리고 어리석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공을 이루지 못할 뿐이니, 부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덕기는 눈이 번쩍 뜨여 밝은 세상을 보는 것 같고, 박춘식은 다리가 곧장 펴져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여 돈도 없고 쌀도 없고 또 보시할 만한 쇠붙이도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한 끝에 "자네나 내가 전생에 죄를 짓고 불구가 된 것도 원통하지만, 박복 중생이라 오늘날 시주할 물건 하나 없으니 슬프지 않은가? 이렇게 앉아서 궁상을 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화주스님과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시주를 걷도록 하자!" 라고 이덕기가 말하니, 걸을 수가 없는 박춘식은 "자네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덕기는 "그야 좋은 방법이 있지. 두 몸이 한 몸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자네는 걸음을 걷지 못하여도 눈이 성하고 나는 보지 못하여도 다리가 성하니, 내가 자네를 업고 자네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니면서 저 화주승처럼 문전걸립(門前乞粒)을 하면, 보시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였다. 박춘식은 제 머리를 두드리면서 "정말 그렇구나! 난 참 미련도 하다."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갔다. 이렇게 걸립하여 3년 만에 전국 방방곡곡 논길 밭길을 헤매며 모은 재화를 화주승인 덕문대사께 바치니, 덕 문대사가 감격하여 그들을 감싸안고 격려하여 주었다.

심원사의 대종은 마침내 조성되었고, 절은 중수가 완료되어 모년 모월 모일 중수회향재(重修回向齋)와 대종 준공식을 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 이덕기와 박춘식도 이 소식을 듣고, 심원사를 찾아가서 축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연천을 거쳐서 가면, 계곡을 끼고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은 평탄하나 건너야 할 냇물이 많아서 이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하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광리에서 바로 험준한 고개를 넘어 질러가기로 하였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니 고개는 가파르고, 장님 이덕기는 앉은뱅이 박춘식을 등에 업고

가려니 힘이 더욱 들어서, 몸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이고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나서 가슴이 터질 듯이 숨이 찼다. 그러나 이덕기는 덕문대사가 일러준 대로 “나무불[南無佛].나무법[南無法].나무승[南無僧].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南無大慈大悲觀世音菩薩]”을 수없이 외우면서 간신히 그 산마루에 올랐다.
이덕기의 등에 업혀 있던 박춘식이 갑자기 “저기 부처님이 보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덕기의 등에서 내려 급히 달려가기라도 할 듯이 몸부림을 쳤다. 그 순간 박춘식의 다리는 저도 모르게 뻗어지면서 설 수가 있었다. 한편 장님인 이덕기는 박춘식의 부처님이 보인다는 외침에 놀라 저도 모르게“어디? 어디? 부처님이 어디 있어?”하면서 눈을 떠 보려고 눈에 힘을 주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눈가죽이 찢어지면서 눈이 뜨이게 되었다. 두 사람은 뭉게뭉게 연꽃송이처럼 피어나는 오색 구름 속에 감싸여 있는 부처님이 그들이 사는 마을 쪽을 큰 빛을 뿜어 비치는 황홀경을 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부처님께 절하며 감사하는 중에 날이 저물고 밤이 지나 새 날이 되어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울었다.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큰 고개를 ‘부처님을 뵈온 고개’라는 뜻으로 ‘불현령’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이 큰 빛으로 비쳐 준 마을을 ‘대광리(大光里)’라고 불러서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② 벙바위의 유래: 한자로 ‘휴류암(鵂鶹巖)’이라고 적는 벙바위는 왕징면 징파나루 남쪽의 임진강 옆에 있는 큰 바위를 이른다. 옛날에는 부엉이가 많이 살고 있어서 ‘부엉바위’라고 불려지다가 말소리가 축약되면서 지금의 벙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또 이 바위의 모양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여 고양이바위라는 말의 사투리인 ‘괭이바위’라고 일러지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전하여 오고 있다.
풍수지리에 밝은 한 도승이 있었다. 하루는 이 곳을 지나가다가 임진강 옆에 있는 이 바위를 자세히 보니, 고양이 형국을 하고 있고 임진강 건너편에 있는 산이 마치 쥐가 쭈구리고 앉아 있는 듯한 형국임을 알았다. 마침 이 산에는 이씨의 조상 묘가 있었다. 도승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고양이 앞의 쥐는 기를 쳐지 못하는 법이니 이씨 집안에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집안의 형세조차도 점점 기울어져 가는 지경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사실 여부를 알아보았더니, 그의 추측대로 그 마을 이씨네 집안은 과연 쇠미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도승은 그 이씨 집안을 찾아가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한 가지 좋은 묘방을 일러 주었다. 그 내용은 고양이의 눈에 해당하는 벙바위 윗부분을 거적으로 가려주라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고양이의 기세에 눌려 있던 쥐산의 기운이 피어나서 이씨 가문이 금시 발복하게 될 것이니, 11년 동안만 매년 새 거적을 덮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도승의 설명을 들은 이씨 집안에서는 그 도승의 지시대로 고양이바위의 눈 부분을 거적으로 씌우니, 3년 안에 무과에 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는 포도대장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에 오른 이 대장은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성격도 포악해져서, 사람을 의자처럼 깔고 앉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알고 죽이며 잔학한 것을 잘하니, 주변 사람들이 노여워하며 원한이 쌓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출세할 수 있도록 비방을 알려 준 도승까지도 원망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게다가 이 대장은 그 도승이 가르쳐 준 비밀 방법마저도 3년 이후에는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거적이 다 헐어 원래 모습대로 되었다. 그러자 이 대장의 오만방자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우연히 들어가게 되어 극형을 받게 되니,

이씨 가문의 형세는 다시 몰락일로를 가게 되었다. 이씨 가문에서는 화가 나서 그 고양이 바위 때문에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다고 흥분하여 선영의 앞에 있는 벙바위를 깨부수니, 깨어진 바위에서 피가 솟아나오고 천둥번개가 쳐서 그 일족까지도 모두가 참회를 당하고 멸문하는 화를 입었다고 한다. 지금도 바위에는 그 때의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어서 바위 빛이 붉다고 한다.

③ 쇠고개 지명 유래: 지금의 왕징면 북삼리 안터에서 강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쇠고개라고 한다. 이 고개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여 오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기와집에 홀로 된 아버지와 과년한 딸이 같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실성을 하여 자기 딸을 보고,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라고 졸랐다. 그 딸은 실성한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제 청을 한 가지만 들어 주시면, 그 서원을 들어드리지요."라고 조건을 달았다. 실성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당신의 청은 무엇이오?"라고 묻자, 딸은 "저 고개 위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와 같은 모양을 하고 이 고개를 내려오면, 아버지의 청을 들어드리지요."하였다. 실성한 아버지는 즉시 이 고개로 올라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처럼, "음매! 음매!"하면서 내려왔다. 실성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은 자결하여 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쇠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④ 부릉고개와 아마니고개의 유래: 전곡읍 양원리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경계에 있는 고개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예전에 양원리에 어떤 과부가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과부는 살기도 어렵고 남자 생각도 나서, 이 고개를 넘고 고릉리 쪽에 있는 서방고개를 넘어 밤나들이 다니면서 몰래 남자를 사귀었다. 이 사실을 안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말리기 위하여 기와마을 뒤에 고개에 올라가 어머니를 불렀다고 한다.
그 후 그 고개를 '부른고개'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말소리가 바뀌어 '부릉고개'가 되었다 또한 그 어머니가 넘어 다니던 고개는 '어머니고개'라고 불렀는데, 역시 오늘에 이르러는 말소리가 바뀌어 '아마니고개'라고 불려진다는 것이다.

⑤ 선녀바위의 유래: 선녀바위는 청산면 초성리의 법수동 동쪽 산 중턱에 외로이 서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는데, 바위의 높이는 약 20m쯤 되며, 겉모양은 큰 반다지 같은 궤짝을 한 쪽 밑 부분을 쳐들리게 비스듬히 세워 놓은 듯하다. 바위주변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울창한 수목이 경치를 아름답게 하여 주고 있다.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설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옛날에는 이 바위 주변의 경관이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아름다워서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자주 이 바위 위에 내려와서 노닐다가 가고는 하였다. 하루는 한 선녀가 혼자서 이 바위에 내려와 따뜻한 봄볕을 쬐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 때 마침 그 근처 마을의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아름다운 선녀를 발견하고는 한눈에 반하였다. 나무꾼은 선녀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는 일념을 품고 단숨에 이 바위 위로 올라가려 하였다. 그러나 바위가 있는 곳까지는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고 길도 없는 곳이라 미끄러지고 고생하면서도 올라가려 했으나, 바위 위까지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평소에 힘이 세기로 소문난 나무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끼로 그 바위를 찍어서 발 디딤을 하여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무꾼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바위 밑 부분부터 찍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위 위에서 바느질을 하던 선녀는 자기가 앉아 있는 바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

고는 그만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나무꾼이 천신만고 그 바위 위를 올라가 보니, 선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상심한 나무꾼은 실성하여 미친 듯이 날뛰다가는 집으로 내려왔다. 나무꾼은 그 뒤로부터 마음에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그 후 이 근처 마을 사람들이 나무꾼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바위를 '선녀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이어져 온다는 것이다.

⑥ 종자산의 지명 유래: 종자산은 연천읍 부곡리의 두태봉 동쪽에 있어서 포천시 관인면 중 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높이 643m의 산을 가리킨다. 이 산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이 산의 맨 꼭대기가 종지만큼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뒤에 이 산을 지금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25)]

⑦ 열묘 가시꽃봉: 열묘 각시꽃봉'은 지금의 백학면 백령리(百嶺里)와 두일리(斗日里)의 경계에 있는 제법 높은 산봉우리를 가리킨다. 이 산에서 보면 동쪽으로는 두일리 자연 부락인 높은골[高村洞]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백령리 자연 부락인 꽃메마을[花山洞]이 보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에는 이 곳이 고구려 땅이었다. 그 때에는 지금의 고촌동에 원님이 머무르며 고을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 당시 이 곳에 원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원님의 부인이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원님은 화가 나서 자기 부인을 처형하여 꽃봉산 높은 고갯마루턱에 매장한 후 또 다시 이런 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당을 시켜 자리걷이굿까지 하였다. 무당은 "저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에 꽃과 같은 바위가 솟아 있는데, 이 꽃바위를 흙으로 덮어 버려야 후일에 이 같은 우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원님은 그 무당의 말을 듣고 많은 인부를 동원하여 흙으로 이 꽃바위를 완전히 덮어 버렸다. 그리고 원님은 몇 달이 지난 뒤에 재혼을 하여 태평세월을 보내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서쪽 마을 화산동에는 알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되었고, 가축들도 공연히 폐사하는 등 마을 전체에 질병과 연고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 마을에서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였다. 무당은 "이 마을 동쪽편 산에 있는 꽃바위를 누가 흙으로 덮어서 산신님이 대노하여 이 마을에 우환이 들끓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꽃바위를 잘 보이게 흙을 파서 들어내 놓으라." 고 비방까지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들은 화산동 사람들은 총동원되어 꽃바위를 원래대로 파헤쳐 놓았다. 그후 화산동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동쪽 마을 고촌동 원님 댁에는 재혼한 부인이 또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기 시작하였다. 원님이 둘째 부인을 또 처형하여 꽃봉 능선에 매장하고 꽃봉에 가보니 꽃바위가 모두 파헤쳐져 있었다. 그래서 원님은 주민을 동원하여 다시 꽃바위를 흙으로 덮어버렸다.
그 후 몇 개월 안 가서 서쪽 마을 화산동 주민들이 화를 당하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을 앓았다. 그래서 꽃바위에 가 보았더니 모두 흙으로 덮여 있었다. 화산동 사람들도 다시 총동원되어 밤중에 꽃바위에 덮여 있는 흙을 모두 파헤쳤다. 이렇게 경쟁하기를 10여 차례나 반복하는 동안 원님의 부인도 10명이나 처형되어 이 꽃바위 봉우리 능

25) 포천과 연천에 걸쳐 있는 종자산은 매우 다양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3.2.5 포천시 중리 현지조사 자료 참조.

선에 묻혔다. 현재까지 원님 부인들의 분묘만 10기가 즐비하게 고총(古塚)으로 남아 있어서 후세 사람들이 '열묘 각시꽃봉'이라 호칭하였고 꽃바위는 오늘날에도 흙으로 반쯤 덮여 있다고 한다.

2.3.7 연천과 6·25전 전쟁

(1) 준비

한국전쟁 직전 연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38선에 가까운 지역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수송체계 확립을 위해 교량을 신설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벌였으며, 38선 부근의 주민을 소개시민 것이다.[26]

1) 4사단의 연천 배치

인민군은 개전에 대비하여 전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1948년 2월 창설된 인민군은 1950년 봄 4개 사단이 증편되어 모두 13개 사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력 증강에는 1950년 봄 중국 인민해방국 소속 한인 병사들의 북한 귀환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전차· 자주포· 항공기 등 무기 반입도 급증하였으며, 군사훈련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연천 지역은 전쟁 나기 몇 해 전부터 방공호를 파는 공사가 실시되었다.

개전이 임박한 1950년 5월 38선 이북에 인민군이 전진 배치되었으며, 연천 지역에도 인민군이 계속 증강되었다. 이 때 연천에 배치된 부대는 인민군 4사단이었으며, 6월 23일까지 부대 배치가 완료되었다. 연천면 상리초등학교에도 인민군이 진주하였는데, 군인들은 주민들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리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총살시킨다고 농담하였다 한다.

인민군 4사단은 1950년 봄 신의주에서 제4독립혼성여단이 중국인민해방군 166사단 소속 한인병력 1개 연대를 지원 받아 증편된 부대이다. 이 4사단은 6월 25일 인민군 남침 당시 주공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입성한 조선인민군의 최정예부대이다.

2) 토목공사와 주민소개

군사 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와 교량 공사 등의 토목공사는 1949년과 1950년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38선 부근의 도로와 교량 수리는 1950년 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임진강과 한탄강 부근, 그리고 연천 등지에서 토목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천에는 한탄교가 신설되었는데, 이 공사는 1949년 3월에 시작되어 1950년 6월 1일 완성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천군 관인면의 신천에도 신천교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연천역 구내 철로 옆 지면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군수품을 비롯하여 각종 화물 하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1950년 한국전쟁 개전 당시 인민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이동한 지점들이다.

한편 1950년 2월과 3월 사이에 38선 북방 3~4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개령이 내

---

26) 이하의 내용은『연천군지』상 408-417쪽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려졌다. 소개는 내무성 보안국 소속 38경비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소개 명령은 38선 부근 1만 8,000 가구, 6만 5,000 명의 주민에게 내려졌다. 이는 인민군의 38선 전진 배치를 앞두고, 병력 이동 비밀을 유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3월 18일 오후에는 백학면과 군남면의 주민 200명이 강제로 트럭에 태워져 연천면으로 보내졌다가, 다음날 오후에 다시 원산으로 보내졌다. 이보다 늦은 4월 17· 18일에도 전곡면의 여러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이들 역시 트럭에 태워져 연천면을 거쳐 원산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노동단원과 그의 가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기에 소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1950년 6월 25일 13만 5,000여 명의 병력에 T-34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남침하였다. 인민군의 공격 목표는 서울 장악이었다. 그래서 공격에 투입된 인민군 2개 군단의 작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인민군 1군단은 연천· 운천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주공격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였고,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공격 축선에는 조공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2군단 역시 춘천-가평-서울로 이어지는 공격 축선에 병력을 투입하였다. 연천에 배치된 인민군 4사단과 운천에 배치된 3사단이 한국전쟁 개전 당시 인민군 주공격 축선에 배치된 인민군 최정예 부대였다.
인민군 4사단은 6월 25일 전차연대와 협공하여 38선을 돌파하고 동두천으로 남하하였다. 인민군 4사단 공격 축선에는 국군 7사단 1연대가 동두천 정면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 38선에 배치된 병력은 2대대였고, 나머지 연대 주력은 의정부에서 훈련 중이었다. 인민군 4사단은 전차 2대 대대가 증강된 16연대를 38선 북방의 전곡에서 38선 남방의 청산면 초성리와 동두천 방향으로 공격토록 하였고, 18연대를 서쪽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에서 동두천 봉암리로 이어지는 축선에 조공으로 투입하였다.
작전을 개시한 인민군 16연대는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곧 바로 국군 7사단 1연대 2대대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초성리를 점령한 후 계속해서 전차를 선두로 하여 동두천으로 남하하였다. 이때 국군 1연대 2대대는 동두천 북방 소요산 일대로 철수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인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동시에 국군 1연대 1대대가 서쪽의 마차산에, 3대대가 마차산 남쪽 봉암리에 각각 투입되어 배치되었으나, 이미 인민군 17연대 1대대와 3대대 병력이 우회하여 양주군 덕정까지 진출한 이후였다. 한편 인민군 4사단은 107전차연대 소속의 전차 수십대를 앞세우고 국군 7사단 2대대가 저항하고 있는 소요산 일대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미 탄약마저 떨어진 국군 2대대는 철수하였고, 6월 25일 저녁 해질 무렵에 인민군은 동두천 시내까지 진입하였다.
서울은 6월 28일 연천에서 남하하여 동두천을 거쳐 의정부 축전을 공격한 인민군 4사단과 운천에서 남하하여 포천을 거친 인민군 3사단, 그리고 105전차연대에 의해 점령되었다. 당초 인민군 1군단 1사단은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인민군 2군단 병력은 춘천과 가평을 거쳐 각각 서울에 진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민군 1사단은 파주 봉일천에서 국군 1사단에 의해 진격을 저지당하였고, 특히 인민군 2군단 1사단과 12사단은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에서 진격이 매우 지연되었다. 이처럼 다른 인민군 부대들이 국군의 저지로 공격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이들 인민군 4사단과 3사단이 전차부대의 지원을 받아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단독 점령한 것이다.

한편 인민군의 남하한 이후, 38선 이북의 연천 주민들은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개전 얼마 후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폭격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38선 이남 연천 지역은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인민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 주민들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였다. 북한의 점령정책이 실시되면서 제반 개혁이 이루어졌고, 마을 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자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선전이 실시되었고, 날마다 회의가 열렸다. 38선 이남의 전곡면 양원리에서는 반공유격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의용군 모집 방해, 유치창 습격, 인민군 기습 공격 등의 유격전을 펼쳤다.

(3) 1950　10월 국군의 북진과 연천 진입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되고 전세가 계속 악화되자, 미국은 7월 7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얻어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을 구성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참전 초기에 인민군에 계속 밀려, 8월 15일 경에는 마산-왜관-포항선까지 후퇴하였다.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유엔군과 인민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나,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에 따라 전세는 역전되고 인민군은 패퇴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38선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38선 남쪽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까지 진출한 병력은 국군 8사단 10연대였다.
10월 1일 국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다. 10월 8일 연천군 초성리에 주둔 중인 국군 8사단 10연대가 38선을 넘어 한탄강을 건너 전곡에 진입하였다. 당시 국군 8사단 전면에는 인민군 27여단이 있었으나, 국군 8사단에 밀려 북쪽으로 계속 후퇴하였다 8사단은 계속 북상하여 10월 9일에는 연천면을 장악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소속되어 남한의 통치권 밖에 있던 38선 이북 연천 지역에 국군이 처음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연천에서는 인민군 후퇴 장시, 노동당원 등 핵심세력들이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인민군은 후퇴하면서 38선 이남 고랑포 지역 청년 13명을 쇠사슬에 묶어 고랑포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이들이 라디오를 통해 국군이 가까이 진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공호 속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국군 환영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4) 1950년 12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연천 진입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하자, 10월 3일 중국은 미군도 북진할 경우 참전할 것임을 미국에 경고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북진하였다. 이에 중국은 10월 중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압록강 도강을 단행하여 한국전에 개입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압록강까지 진출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다. 12월 8일 유엔군은 임진강과 38도선을 연결하는 'B선'이라고 부르는 방어선을 편성하고, 전 병력을 'B선'까지 철수시켰다. 이 방어계획에 따라 38선 이북 연천은 포기되었다. 유엔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강둑에서 홍천-동해안의 양양 15마일 이남의 월포리로 이어지는 'C방어선'과 평택-안성-장호원-원주-월포리로 이어지는 37도선 상의 'D' 방어선으로의 철수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1950년 12월 3`일 해가 지자, 이미 38선 북쪽까지 진출해 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일제히 38선을 돌파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서울 점령을 목표로 하였기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개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부전선 그 중에서도 연천에서 동두천 · 의정부로 이어지는 축선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집중 공격대상 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연천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38군과 고랑포 북방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39군이 투입되었다. 당시 연천 남쪽에는 국군 6사단이, 파주군 적성 일대에는 국군 1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집중 공격대상 이었다. 공격을 받은 국군 1사단은 큰 타격을 받고 고양리와 녹번리로 철수하였으며, 국군 6사단도 1사단보다는 몇 시간 더 진지를 지켰지만, 한 밤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철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1951년 1월 3일 서울 철수를 결정하고 한강 남안 방어선으로 철수하였다. 1월 4일 새벽 유엔군의 마지막 후위가 철수하면서 한강 부교는 폭파되었다. 곧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50군 및 39군, 그리고 인민군 1사단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나부꼈다. 1월 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강을 건너 남진을 계속하자, 유엔군은 'C'선도 포기하고 1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D'선인 37도선까지 후퇴하였다.

한편 인민군은 연천을 다시 장악한 후, 국군이 진주한 이후 국군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였다. 이때 신서면 답곡리에서만 10여 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5) 1951　연천을 둘러싼 공방전

1)　4월 반격과 연천 진입

1월 7일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세가 둔화되자,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래서 2월 10일에는 한강 남안까지 장악하였고, 3월 15일에는 서울을 재탈환하였다. 서울 탈환 후 미 1군단은 국군 1사단을 고랑포로 진격하도록 했고, 미 3사단과 25사단을 각각 의정부와 청평으로 진출케 함으로써 38도선 회복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38선에서 유엔군은 재 북진하였다. 4월 5일 유엔군은 '러기드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은 임진강 하구-문산-연천군 전곡-영평천-화천저수지-남전리-한계령-양양으로 이어지는 한반도를 횡단하는 '캔자스 선' 장악이 목표였다. 작전에는 미 1군단, 미10군단, 국군1군단, 국군3군단이 참여하였고,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유엔군은 '캔자스 선'에 도착하였다.

당시 전곡을 장악한 병력은 미 1군단 3사단이었다. 4월 21일 유엔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난공부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는 철의 삼각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하는 '돈틀리스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은 작전 첫날인 4월 21일에는 목표지역인 철의 삼각지대에 거의 육박하였으며, 이날 미 3사단이 연천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런데 유엔군이 공세를 펴기 시작한 첫날인 4월 21일 중국인민지원군의 공세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조짐들이 하나씩 포착되었다. 유엔군 수색대의 정찰 결과 중국인민지원군 진지가 강력하게 재편성되었음 확인되었고, 특히 4월 22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이 이날 밤 중국인민지원군의 대공세가 개시될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다.

2) 중국인민지원군의 4월 공세와 연천 진입

실제로 중국인민지원군은 4월 대공세를 준비중이었고, 4월 22일 황혼 무렵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공세 목표는 유엔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서울을 재점령하는 것이었다. 4월

공세는 한국전 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전 병력 7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투입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였다.
4월 22일 작전이 개시되자 중국인민지원군은 제3병단 소속 12· 15· 60군과 포병 2사단이 철원 좌측방에서부터 연천 지구로 돌격하여 연천을 지키고 있던 미 3사단과 터키여단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공격하였다. 미 3사단과 터키여단은 포병과 공중 폭격 지원을 받아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을 하루 지연시킨 후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연천은 4월 23일 오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4월 23일 유엔군은 문산-적성-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운천-영평-사창리로 이어지는 선까지 철수하였고, 4월 25일에는 봉일천-덕천-포천-가평선 까지 철수하였다.
당초 미 8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대공세를 펼칠 시 최악의 경우 서울을 포기하고 37도선까지 철수했다가 반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신임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서울 포기를 반대하고, 새로운 서울방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벤플리트는 서울지구의 보급시설을 다수 철수하는 것은 전력상 큰 손실이며, 수도 서울이 다시 중국인민지원군에 점령된다면 유엔군, 특히 국군의 전의에 치명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 추진중인 휴전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서울을 고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하고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이 방어선은 서울 북방을 반원형으로 둘러싼 선과 한강 북쪽과 청평-홍천-대포리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미군은 이 선을 '무명(無名)'의 이라고 불렀다. 유엔군은 '무명의 선' 전면에 엄청난 양의 화력을 집중시켜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을 이 선에서 저지시키고 서울을 지켰다.

3) 반격과 연천 장악

1951년 중국인민지원군의 5월 공세를 막강한 화력을 동원하여 5일만에 저지한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즉각적인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작전명은 '데토네이트작전'이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미 1군단은 5월 20일 임진강-고랑포-전곡-영평으로 이어지는 '캔자스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미 1군단에 소속된 미 기병1사단의 목표는 파주군 적성에서 연천군 전곡으로 이어지는 선이었다. 5월 23일 미 기병1사단은 양주군 가납리까지 진출하였고, 27일을 전후하여 임진강과 전곡까지 장악하였다. 데토네이트작전 결과 유엔군 중국인민지원군 5월 공세 이후 무너졌던 전선을 안정시키고, 중국인민지원군 4월 공세 이전의 전선이었던 캔자스 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유엔군은 6월 3일부터 '파일드라이브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의 목표는 캔사스 선 중앙에서 약 20킬로미터 전방 연천 읍내-연천군 신서면 천광-철원-김화-화천호로 이어지는 돌출부를 형성하는 '와이오밍 선'으로 진격함으로써 중국인민지원군 공세의 근원지인 철의삼각지대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고성까지 진격하는 계획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한탄강에서 차탄천으로 이어지는 선의 이동 지역 즉, 연천군 전곡면· 청산면· 연천면 및 신서면 일부 지역이 유엔군의 장악 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유엔군은 국군 1사단을 임진강 남쪽에, 미 기병1사단을 전곡 남쪽에, 국군 9사단을 영평 북쪽 누대리에, 미 3사단을 포천시 영북면 운천 남쪽에, 미 25사단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중 연천군 내로 진입할 부대는 미 기병1사단과 국군 9사단이었다.
국군 1사단이 임진강 북쪽에서 정찰활동을 펼치는 동안 1군단 주력은 6월 3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기병1사단은 전곡에서 연천 도로를 따라 북서쪽의 임진강을, 중앙의 국군 9사단은 연천군과 포천시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지장봉-고대산으로 연결되는 산악지대를 각각 공격하였다. 이 3사단은 운천에서 도로를 따라 철원을, 미 25사단은 도평에서 금성 도로를 따라 김화를 공격하였다.

국군 9사단 작전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더욱이 가치항-지장봉-괘산 일대에는 중국 인민지원군 1개 사단 병력이 저항을 하였다. 국군 9사단은 1개 연대가 향로봉을 점령하면 나머지 2개 연대도 병진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6월 5일 28연대가 한탄강변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1개 대대 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향로봉을 장악하였다. 이어 7일에는 고대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장봉을 점령하였다. 9일은 국군 9사단이 공격을 개시한 이후 최대 접전이 펼쳐진 날이다. 30연대는 수류탄과 총검으로써 근접 전투를 펼친 끝에 철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 북쪽의 신서면 천광곡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한편 28연대는 우측의 미 3사단 7연대의 공격이 지연되어 우측방이 노출되자, 일시 방어로 전환하였다. 11일에야 우측의 미 3사단 7연대와 연결되자, 28연대는 미 7연대와 병진 공격하여 최종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9사단은 공격 개시 7일만에 천광곡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선까지 진출하여, 철원을 남쪽에서 감제할 수 있는 능선 상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미 3사단과 25사단도 6월 8일까지는 기상악화로 고전하였으나, 9일부터 기상이 호전되어 항공 및 포병지원을 받아 철원과 김화를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서쪽에서부터 임진강-철원-김화-펀치 볼-고성)을 확보하였다. 유엔군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진지 강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이후 연천군 동부 지역은 완전히 유엔군의 장악 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1951년 9월 미 1군단은 와이오밍선, 즉 한강 하구-문산-연천-철원으로 이어지는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10km 끌어올리는 '코만도작전'을 구상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장남면 골랑포 동남 임진강 제방에서, 사미천 변의 사미촌, 왕징면 고왕산과 마량산, 중면에 위치한 임진강변 계호동, 역곡천 남안의 고지군, 철원 북서 주토소, 중가산, 한탄강과 남대천의 합류 지점인 정연리를 연결하는 '제임스타운 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연천군 백학면· 왕징면· 중면· 신서면 서쪽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천군의 대부분 지역이 유엔군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 작전은 군단 방어선을 역곡천까지 밀어 올림으로써 와이오밍 선의 방어력을 튼튼히 하고, 연천-철원 계곡의 병참선을 적의 포병이나 관측으로부터 방호하고, 서울-철원, 철원-김화간의 철로를 개통시켜 보급품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펼쳐졌다.

8군사령부로부터 작전을 승인받은 미 1군단은 10월 2일 예하부대에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군단 좌익인 임진강을 방어 중인 국군 1사단은 장남면 판부리 서쪽을 점령 방어할 것. 영연방 1사단 187고지와 왕징명 고왕리 일대와 마령산, 고잔리를 점령 방어할 것. 미 기병1사단은 346고지, 중면 덕은동 일대와 347고지, 신서면 갈현리 일대를 점령 방어할 것. 미 3사단은 철원군 중토동-도밀리, 324고지-덕산리 일대와 대마리-283고지-266고지-중어성 일대를 점령 방어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한편 미 9군단 25사단도 1군단 우측을 방어하기 위해 소속 터키여단으로 하여금 김화-평강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토록 명령이 내려졌다.

작전은 10월 3일 이른 아침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사격에 이어 새벽 6시부터 시작되었

다. 국군 1사단은 임진강 주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사미천 서안의 91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군단의 작전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여타 지역은 사정이 달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으며, 미 1군단은 10월 19일에 이르러서야 군단의 작전 목표지점을 장악할 수 있었다. 작전 기간 중 이 넓지 않은 작전 지역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2만 1,500여 명의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하였고, 미 1군단도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숫자는 1군단의 코만도작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1군단의 코만도작전으로 상실한 지역을 되찾기 위한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951년 11월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격도 그 중 하나였다. 그 과정에서 고왕산이 일시 중국인민지원군에 점령되었으나, 유엔군이 반격하여 되찾았다. 그러나 마량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장악 하에 들어갔다. 이후 전산은 큰 변화 없이 고착되어 끊임없는 소모· 파괴전이 계속되었다. 이 전선은 휴전회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후 휴전선이 되었다.

(6)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휴전 이후 연천에는 미 7사단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다. 민정관이 군수를 대신하여 행정을 담당하였고, 군청에는 군청 직원 몇 명이 근무하면서 군정을 수행하였다. 1954년 11월 17일「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연천면 등 8개면이 한국정부에 행정권이 이양되어, 해방 후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한국정부의 행정이 펼쳐졌다.